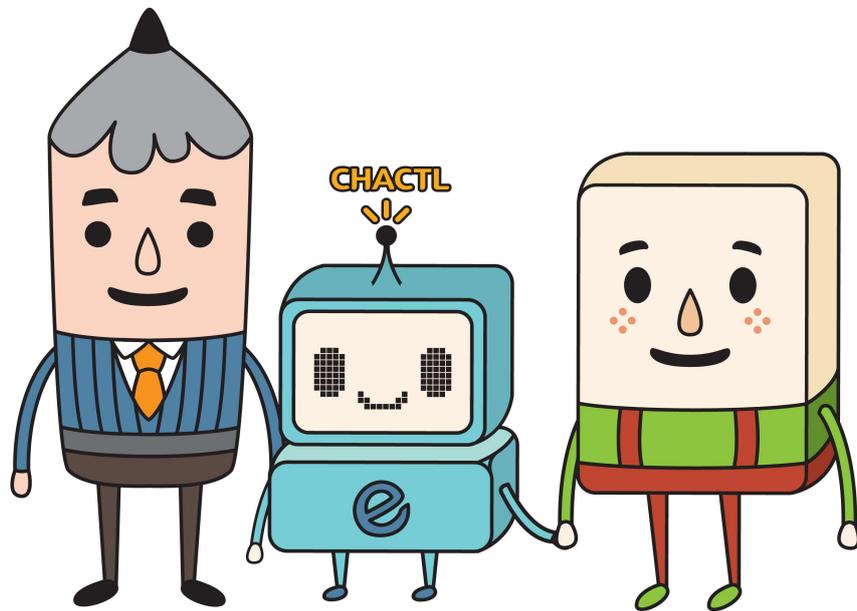


I. 글쓰기(영화감상문) 공모전



최우수상

이인경 보건복지정보행정학과

<동주> 두 글자가 주는 여운



<동주>는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과는 빛깔이 다른 영화다. 역사적 문제들을 나열하기보다 윤동주와 그의 벗 송몽규의 일상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시인 윤동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답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천재적 발상으로 단숨에 시를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실존적 개인으로서 친구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하루하루 느끼고 배운 바를 시로 옮겼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낮은 목소리로 알려 준다.

동주는 격렬하거나 극적인 역사의 어떤 장면을 담아내지 않는다. 반일 독립투사 영화가 아니었고, 우리민족의 애국혼을 자극해 눈물을 강조하는 영화도 아니다. 단지, 시인 윤동주와 송몽규 선생의 우정과 삶, 죽음에 대해 풀어낸 영화다.

보통의 일제영화같이 악역이 나오고 그들을 마음껏 욕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주인공을 숭고하거나 아름답게 보이도록 치장하지도 영웅으로 칭송하지도 않는다.

다만, 어려운 시대에 조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 시를 쓰고 싶어 하였고, 이상을 위해 행동하다 죽은 두 청년의 이야기를 보여줬을 뿐이다.

이 장면은 영화의 맨 처음 장면이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광고가 끝나고 나면, 짝짝하게 암전이 되고 통기타 소리 두 음절과 함께 화면에 '동주'라는 하얀 글씨가 표시된다.

아직 주인공이 나오지도 내용이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동주'라는 두 글자로 마음이 뭉클해지고 깊은 울림을 준다.



흑백영상과 내레이션이 주는 시공간 초월성

모든 상업영화가 3D영화로 진화하는 이 시점에서 <동주>는 흑백영화로 제작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인상을 받았다.

<동주>의 제작비가 '5억 제작비'가 화제가 된 것을 들은 적 있다. 5억 제작비는 영화 제작 예산에 비하면 초저예산이었고 보통 일제 강점기 영화를 찍을 때 제작비가 100억 원을 훌쩍 넘긴다고 한다. 그 사실 <동주>를 연출한 이준익 감독은 이러한 부담이 너무 커서 흑백으로 제작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 영화가 5억의 제작비만 있었던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이 된다. 더 많은 제작비로 화려한 소품과 영상보다 흑백영화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도, 어떤 작품적인 완성도 면에서도 흑백의 영상은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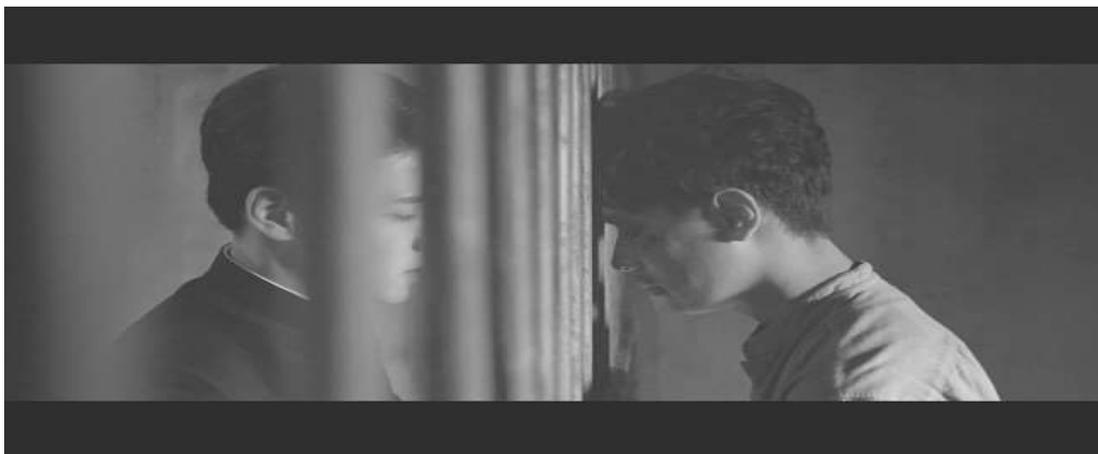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영화 곳곳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던 강하늘의 시 낭송 내레이션이었다. 운동주 역을 맡은 배우 강하늘의 내레이션으로 자작시가 읊어지는 장면은 일상의 시인으로서의 운동주의 모습을 잘 그려 보이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가 좋았나 싶을 정도로,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은 감정으로 시를 담담하게 읽어나가는데 그 내레이션이 아름다운 영상과 잘 맞아떨어졌고 영화의 몰입도를 높였다.

내가 <동주>를 보기 전에 알고 있는 시는 대표적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뿐이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병원], [아우의 인상화]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운동주 시인의 명시들도 삽입되어 영화 속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시의 아름다움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합해져 위인이 아닌 인간 운동주를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부끄럽지 않지만 부끄러움을 주는 영화

<동주>에는 일제에 대항하는 속 시원한 액션 장면이나 애국심을 고취하고 사명감을 부각하는 대사가 없는데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쩌면 <동주>의 일제강점기시대에서의 어려움을 나는 현재의 복잡하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영화 내내 동주와 동주 아버지 간의 갈등이 그려진다. 동주 아버지는 동주가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길 바라지만 동주는 문학공부를 고집한다. 동주는 가슴에 한을 품고, 분노를 새기는 투쟁하는 소용돌이의 시대에서 자신이 시를 쓰고 시인이 되길 바란 것을 후회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다. 이러한 동주의 상황에서 시를 통해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것이 동주의 최선이 아니었을까 싶다.

나는 몽규의 대사 중에 ‘내 글은 금방 잊혀질 거다. 신경 쓰지 말라’ 라는 대사가 머릿속에 깊게 남는다. 그는 그의 글도, 행동도, 존재도 쉽게 잊혀질 것을 알았지만 그는 부조리에 눈을 감지 않았고 그 나름대로 소신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살았다.

나는 <동주>를 보면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생각을 해보았다.

사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기보다는 행동을 먼저하고 흘러가는 대로 지낼 뿐이었다.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간 것은 아닐까 반성하게 된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난 후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또한, 그리고 적어도 부끄러움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도 나의 생각과 행동들이 힘든 현재 상황에서 금방 잊혀질 것을 알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나는 나의 소신대로 살아갈 것이다.

동주는 보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절대 부끄럽지 않은 영화다.

우수상

전다혜 미술치료학과

빅 피쉬

눈 내리는 날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 아버지와 동화

Big fish. 큰 물고기. 처음 영화 제목을 들었을 때는 꽤나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느낌을 받았다. 제목 자체에서 주는 느낌에서 단순한 단어들의 조합 그 이상의 아우라가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물고기 안에 아버지와 아들, 부자간의 소통과 이해, 사랑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범상치 않은 소재일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용이라 더 흥미가 있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모두 각자 그들의 자녀들에게 영웅이고 슈퍼맨이다. 영웅은 누군가가 위험에 처 있을 때 언제든지 달려가 도와주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든 척척 해결해 준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우리 모두는 영웅은 늘 영원하고 완벽할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젊음이 없듯이 세상에 영원한 영웅은 없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우리의 영웅들은 지치기도 하고 늙고 실수를 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점차 우리의 영웅들에게서 벗어나 주위에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현실적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영웅들은 잊혀가기 시작했다.

물론 나의 아버지가 영화 속의 아버지처럼 영웅담이 가득했던 분은 아니었다. 나에게 재미난 모험 이야기를 해 주신 것도 아니었고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환상 가득한 이야기로 나를 설레게 하거나 꿈에 부풀게 해 주시지는 않았다. 다만 내게 자주 하셨던 말은 아버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웠던, 인생의 황금기였던 그리고 지금은 추억으로만 간직하게 된 전성기 시절의 이야기였다. 가장 젊고 열정적이었을 때의 이야기.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아버지는 회사의 본점이 있는 덴마크에 출장을 자주 가셨다. 덴마크는 이곳보다 훨씬 날씨가 춥고 새파란 눈의 외국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영어를 원래 좋아하시던 아버지라도 신비롭고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곳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덴마크는 동화작가의 거장, 안데르센의 고향이기도 하다. 물론 아버지의 나이에 한가롭게 동화타령이나 하며 환상적이고 따뜻한 기분으로만 지낼 수는 없으셨을 것이다. 아버지는 성인이었고 한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고 무엇보다 업무를 위해 오신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때의 일이 아버지에게는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아버지 인생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에피소드가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덴마크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다. ‘덴마크에 가면 날씨가 이렇더라. 지금 날씨가 눈 내리는 걸 보니 2000년도 덴마크 생각이 난다.’를 시작으로 유럽 사람들은 맥주를 물처럼 마신다. 식당에 들어가면 불이 어둡고 침침해서 서양 사람들의 눈이 빛났다 등등 언제나 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 주셨다. 어린 나에게는 너무나도 신기한 이야기였다. 어린 나는 덴마크가 어디에 있는지 그곳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곳에 뭐가 있고 무엇으로 유명한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덴마크에 대한 환상을 키우게 되었다. ‘아 그곳은 눈이 많구나. 덴마크라는 곳은 눈도 많고 우유도 많으니까 온 세상이 하얀 나라 겠구나.’와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환상을 가지면서 지구상에 있는 동화세계쯤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 곳은 춥지만 막상 가보면 따뜻한 곳 이겠구나’ 이렇게 말이다.

2000년도 당시 아버지께서 다니던 회사는 ‘레고’였다. 그리고 우연찮게도 레고는 아버지와 닮아있다. 레고의 열풍은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 당시에는 2000년대니까 정말 레고의 무지막지한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나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레고

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냥 마트나 대형 점에 레고가 들어서면 그 순간 다 팔릴 정도라고 하니 실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레고의 전성기와 아버지의 전성기는 맞물려 있고 레고 회사 직원이었던 덕분에 난 어릴 때부터 레고를 정말 많이 가지고 놀았다. 여자아이라 조립에 큰 흥미를 가지고 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레고 인형이나 장난감 기차 같은 것들은 정말 정말 원 없이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내 보물 1호가 레고로 만든 장난감 집일 정도다. 그건 아직까지도 집에 간직하고 있다. 그 집은 단순한 장난감 집 이상으로 내 안의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 내 인생과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이 깃든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곳에는 내 마음껏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든든함이 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 가득한 레고 선물은 나를 더 나의 동화 속으로 빠지도록 도와주고 허락해 주었고 지금까지도 가끔이나마 내 환상을 지켜주고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되어 주고 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 중에 안데르센 동화 원작이 있다. 덴마크 출장 때 아버지의 현지 동료들이 나의 돌을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정말 영어가 빼곡히 적혀있는 무시무시한 책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말씀도 하셨다. 언젠가 다혜가 영어를 정말 능숙하게 하게 된다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고. 그건 나도 정말 바라는 바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바라고 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다. 원작은 내게 여전히 어렵다. 어릴 때는 지금보다 더 영어를 모를 때니 그 영어투성이인 책 중에 간간히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을 보면서 내 마음껏 내용을 상상해보곤 했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 알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나 인어공주 등등을 생각하며 내 마음껏 나의 동화를 만들어 보았다. 아 지금 이 여인은 이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거야, 지금 이 소녀는 이런 기분일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었었다. 그리고 그림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장면은 하얀 눈이 정말 쏟아지듯이 펄펄 내리는 순백의 세상에 눈보라가 치고 그 언덕 위에 새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홀로 서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눈의 여왕’이 아니었을까 싶다. 눈의 여왕 이야기를 알고 그녀가 마녀라고 평가받는 것을 알고 있는 지금과 그 때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의 감정은 확연히 다를 것이다. 그 때는 하얀 요정이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에 설레고 다가서 만나고 싶은, 그 동화 삽화 속에 들어가고 싶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그녀가 마녀이기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는 외로운 마음이 느껴진다. 카이와 게르다를 갈라놓는 악인이지만 그 새하얀 세상 속에서 혼자만이 존재하는 그 곳에서 그녀는 아마 외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린 나와 지금의 내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의 시작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마음이다.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다. 그녀에게 말을 건네고 나도 그 하얀 세상에 들어가 보고 싶다. 환상 속에서 가능할 법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사실 영화 자체에서 인물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마다 많은 생각과 들고 많은 것을 느끼고 감상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영화 속 아버지의 이야기의 진위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환상과 의문투성이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난 그렇게 환상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오히려 비관적이라는 표현이 들어맞을 정도이다. 그런 내가 이 영화 속에서 가장 크게 감상한 것은 동화 속 이야기로만 알고 있던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를 큰 물고기를 통해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아버지의 사랑, 빅 피쉬가 주는 의미다. 하지만 그것은 영화를 본 누구라도 알아낼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느낀 오직 순수한 나의 감상은 나의 아버지가 떠올랐고 아버지가 내게 심어준 지극히 현실에 입각한 동화, 환상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던 그 순간들을 추억하고 간직할 물건들이 내게도 가장 큰 보물들이 되었다는 것, 그 보물들이 지금은 환상이나 쫓을 나이도 아니고 오히려 너무 현실적으로 되어버린 나의 마음 속 어딘가에서 절대 깨지지 않는

유리구슬 속 동화세계를 펼쳐주고 힘들 때 언제든지 나는 그 곳에 들어 갈 수 있는 편안함이 있다는 것이다. 그 속에서는 나는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서 동화를 여전히 만들 수도 지금의 나 자체로 지금 나의 동화를 내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은 채로 완성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각자의 동화나 환상을 품고 살아간다. 그것이 지금은 작은 불씨가 되어 사그라지는 것 같아도 잠시 눈여겨 보듬어주면 그 안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마음껏 상상의 이야기를 꽃피울 수 있다. 내게는 지금, 크리스마스 와 눈이 내리는 지금 아주 간절하게 생각이 난다. 그리고 그런 덕분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내 속에 더욱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다.

우수상

김상민 식품생명공학과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사랑하라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사랑하라 - 굿 월 헌팅

제 인생에서 굿 월 헌팅이라는 영화를 감상한 횟수는 총 6회이며, 이 글은 7번째 감상을 통한 저의 느낌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보호관찰을 받아 MIT대학 청소부로 생활을 하던 반항아 월은 수학 수훈 상을 수상한 램보 교수가 수업시간에 내준 수학문제와 2년에 걸쳐 증명한 문제를 가볍게 풀어냈지만 그 모습을 본 램보교수가 다가가자 월은 자리를 뜨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카마인을 야구장에서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고 월과 친구들은 카마인 일행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카마인은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고 그런 월을 말리는 친구들 사이로 경찰관들이 도착해 월을 저지하려 하자 분을 삭이지 못한 월은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감행하여 일주일 뒤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로 합니다. 기분을 풀기 위해 월과 친구들은 하버드대학가의 클럽에 방문하게 되고, 처키가 스카일라가 있던 테이블에 찾아가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던 중 스카일라의 친구 클락이 찾아와 역사를 전공한다는 처키를 곤경에 빠뜨리게 되고, 월이 다가와 역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뽐내며 클락을 돌려보내고, 월에게 스카일라가 찾아와 연락처를 알려 주고 떠납니다. 한편 램보 교수는 캠퍼스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월의 정보를 찾으려하고, 월이 보호관찰중이라는 것을 알고 월의 재판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몇 번이나 입양됐지만 파양되고 학대를 받았던 월의 과거를 판사가 언급했지만, 월의 화려한 언변으로 자기변호를 하는 모습을 보며 램보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월을 판사와 얘기를 하여 자신의 보호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석방을 권유합니다. 첫 번째로는 매주 자신과 만남을 가지며 수학문제들에 대한 증명을 해줄 것, 두 번째로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감옥 보다는 나왔기에 월은 받아 들였고, 수학문제들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해주는 치료사들에게 치료 내내 그들을 자극하고 도발하여 치료를 포기하게끔 만들어 램보 교수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램보 교수는 마지막으로 대학동기였던 심리학 교수 션을 찾아가, 그와 월이 동향, 즉 보스턴 남부 출신이라며 그의 재능을 위해 도와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월과 션의 첫 번째 만남에서 월은 여대까지와 다를 바 없이 션을 자극합니다. 션이 직접 그린 홀로 노를 젓는 그림을 보며, 션의 아내에 대해 악담을 하자, 화가 난 션은 아내를 모욕하지 말라며 월의 목을 조르며 화를 냅니다. 마침 상담시간이 끝났고 월이 떠나자,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자신의 그림을 보던 션은 월을 계속 상담해주기로 결정합니다. 월은 스카일라와의 만남을 통해 점점 더 그녀에게 이끌리게 되며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두 번째 상담에서 션은 월을 호수로 데려가 월에게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의 소중함에 대해 말해줍니다. 아내의 암투병에 대해서도 먼저 말을 꺼내며 본인의 진심을 보여주며, 월에게 지적이고 자신감이 있다기 보다는 오만이 가득한 겁쟁이 어린애로 보인다고 말해줍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서로 아무 말도 안하고 상담시간이 끝나버립니다. 그런 와중에도 월의 수학적 천재성은 여실히 증명되어 램보교수를 흡족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만남에서도 침묵을 유지하던 중, 션이 잠에 들려 하자 월이 비행기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지어낸 얘기라는 걸 션에게 들리게 됩니다. 결국 월은 스카일

라와의 만남을 말해주며, 그녀의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사실 자신을 들키지 않기 위한 수책이었다는 것을 선이 말해주고 자신을 감추고 살아왔다는 것을 월은 깨닫게 됩니다. 선은 월에게 “인간은 불완전한 서로의 세계로 서로를 끌어 들인다”라고 말한 뒤 아내의 사소한 이야기들 중 방귀이야기를 해주며 분위기를 가볍게 이어갔고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과연 서로에게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남녀관계다.”라고 말을 하며 본인은 치료사가 아닌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만남에서 아내를 만나 후회하지 않냐는 월의 물음에 선은 첫 만남이 시작되었던 1975년 10월 21일의 기억들을 되새깁니다. 중요한 야구경기마저 포기하며 처음 본 미래의 아내와 술을 마셨다고 하자 월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런 월에게 “넌시와의 18년 결혼 생활도, 아내가 아파서 6년이나 일을 그만뒀던 것도, 병상을 지켰던 마지막 2년도 난 후회하지 않아. 그깟 시험 못 본 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했으며, 둘은 점점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어느 날 선과 램보는 펴에서 만났고 월을 수학자로서의 길을 걷게 할 것이라고 하자 아직 월은 미래를 결정하기 어려운 미숙한 단계라며 천재적인 능력을 지녔음에도 폭탄테러범이 되고 만 테드 키진스키를 언급하며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의견 대립을 통해 언성이 높아지자 램보는 선에게 자신이 주선한 맥닐사와 면접을 보고 있을 것이라 말했지만, 사실 월은 스카일라와의 만남을 위해 처키를 자신을 대신해 면접에 보내 일을 그릇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스카일라가 캘리포니아에 함께 가자고 하자 자신의 숨겨 온 실제 모습이 보여질까봐 거절을 하게 되고, 자신을 숨기는 월을 눈치 챈 스카일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얘기를 해주며 서로에 대해 솔직해지기를 원하지만 월은 그런 스카일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만 남은 아픈 기억들을 퍼부으며 화를 내며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자신을 속이며 떠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만남에서 선은 월에게 열정을 가지는 일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지만 목동이 되고 싶다는 월의 말에 화가 나 내쫓으려 하자 월도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다음날 스카일라에게 전화를 건 월은 사랑한다는 그녀의 말에도 잘 지내라는 말과 함께 또 한 번 자신을 속이고, 그런 월을 두고 스카일라는 떠나게 됩니다. 그녀를 잊지 못하는 월은 일상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처키의 추천으로 함께 일하게 된 건설현장에서 처키와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평생 이곳에서 함께 살자고 하는 월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표정으로 처키는 친구로서 해주는 조언이라고 운을 띄운 뒤 본인들에게는 없는 재능을 썩힐거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언젠가는 월이 그의 꿈을 위해 쫓아가기를, 그의 집에 노크를 해도 아무도 없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고 그런 처키를 월은 아무말없이 바라만 봅니다. 여섯 번째 만남에서 자신의 서류를 발견한 월은 선에게 어떠냐고 묻자, 선은 그런 월에게 자신이 받았던 아동학대에 대해 이야기해주었고, 선 또한 월에게 자신이 받았던 학대의 고통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줍니다. 그런 월에게 선이 다가가 “네 잘못이 아니다”를 반복하여 말해줍니다. 결국 부정하려던 월은 뜨겁게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선의 품에 안겨 그 동안의 아픔을 흘려 내리듯 구슬피 울부짖습니다. 일곱 번째 만남에서 월은 선에게 맥닐사에 다시 찾아가 잘해결했다고, 진정으로 원하는 일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치료이자 만남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 연락하고 지내기를 원하여 선의 연락처를 받게 됩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들을 만나러 온 월에게 친구들은 깜짝 생일 선물로 차를 선물해줍니다. 낡은 중고차이지만 친구들의 정성을 느낀 월의 표정에선 고마움을 숨길 수 없어 보였습니다. 월은 교수직을 잠시 그만 두고 여행을

가려는 선의 집에 찾아가 편지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떠나고, 처키는 평소와 같이 월을 데리러 그의 집을 찾아가 집 문을 두드리지만 월이 없음을 깨닫고 친구의 꿈을 응원하는 듯한 열린 미소를 띄우며 다시 차를 타고 집을 떠납니다. 뒤늦게 편지를 확인한 선 또한 열린 미소를 띄우며 “건방진 녀석, 감히 내 훗내를 내다니!”라고 말합니다. 편지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떠나야 하기 때문에 맥닐사의 입사를 포기한다고 말하며 램보에게 연락이 오면 죄송하다고 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선물 받은 차를 타고 스카일라에게 가는 모습이 나오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제목에 걸맞게 잘해내고 있다고 격려를 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영화라 함은 본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 받아들이는 감정과 영향이 천차만별이며,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문장과 그 단어들이 가지는 온도마저 다르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6번의 감상과는 달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감상을 통해 온도의 차이가 확연히 다름을 느꼈습니다. 영화 중반 스카일라가 월에게 4년만에 비로서 월을 만났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월은 이제라도 만났으니까 된 거라고 그 욕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속삭입니다. 달리 해석해보자면 우리 또한 아직 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하다보면 그 꿈을 반드시 찾게 될 것이고, 그 끝에 월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들 또한 마음을 닫고 살아왔던 월처럼 자신을 속단하고 타인의 시선에 굴복하며 자신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누군가가 정해 놓은 기준만을 바라보고 그 기준을 성공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각자가 가지는 고유한 인성, 즉 개성을 존중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희망하며, 8번째 감상에서는 어떤 대사들에 공감하며, 또 어떤 감정을 안겨 줄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 영화를, 저의 비루한 몇 글자를 통해 뜨거운 무언가를 느끼고 자아를 찾아 가게 될 그 누군가가 생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응원합니다!

장려상

박재홍 보건의료산업학과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의 내용과 배경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로서 유대인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이탈리아 영화이다. 러시아의 혁명가 트로츠키가 암살당하기 직전에 남긴 글 그래도 인생은 아름다다가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것 같아서 찾아보았다. 유대인 수용소의 생활을 점수 따기 게임이라고 속이고 아들에게 수용소의 비참함을 감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수용소의 비극적인 생활에 대한 유머러스한 묘사로 인해 수용소의 비인간적인 상황이 오히려 더욱 강조되었다. 파시즘이 맹위를 떨치던 1930년대 말의 이탈리아, 약혼자가 있는 초등 학교 교사 도라를 사랑하게 된 귀도는 그녀와 함께 마을에서 도망친다. 5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귀도는 작은 책방을 운영하며 도라와 아들 조슈아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나치가 이탈리아를 점령하면서 귀도와 조슈아는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가고, 도라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가족을 따라나선다. 귀도는 조슈아에게 자신들이 게임을 위해 특별히 선발된 사람이라며, 1000점을 제일 먼저 따는 사람이 1등상으로 진짜 탱크를 받게 된다고 거짓말을 한다.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귀도는 자신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아들을 지키려고 눈물겨운 사투를 한다. 마침내 독일이 패망하자 귀도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독일군에게 사살당하고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는 독일군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믿는 조슈아는 나무 껍질에 숨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게 된다. 다음 날 누가 1등상을 받게 될 지 궁금하여 텅 빈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조슈아 앞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연합군의 탱크가 다가온다. 이 영화의 정확한 배경을 알아보게 된 결과 첫 번째로 국제적 대립과 전쟁위기의 격화 두 번째로는 대량적 실업과 공황, 국내정치의 불안정, 기존 정당 의회 및 정부의 부패 무능 비능률 등 병리형상의 만연 그리고 각종 사회조직의 강화에서 오는 자율적인 균형 회복 능력의 상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사회적 집단 간의 충돌의 격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위기 요인의 격화에 의해 정치체제의 안정과 균형이 파괴되고 게다가 기존 정치세력이 사태를 효과적으로 수습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 무정부적 진공상태를 메우기 위해 파시즘이 등장한다. 이 영화의 결정적인 배경은 제 2차 세계대전으로서 나치즘과 연결된다. 나치즘이란 히틀러를 당수로 하는 독일의 파시스트 당 '나치스'의 정치사상 및 체제를 말한다. 나치 사상가들은 인간세계를 자연의 세계와 같이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체제를 darwinism jungle로 보았으며 우세한 문화나 인종만이 다른 문화나 인종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거쳐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유대인과 독일 민족과의 마지막 투쟁을 그릇된 세계 역사를 올바르게 되돌리는 장으로 간주했으며 제 1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의 몰락을 보상하는 기회로 여겼다. 히틀러는 또한 유대인 외의 다른 인종, 특히 슬라브족과의 투쟁도 배제하지 않았다. 몇몇 역사가들에 따르면, 나치 이데올로기는 단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의해 형성된 기회주의적 정치선전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실제로 이념적 목표와 사회적 또는 군사적 현실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나치 이데올로기는 정복과 학살로 점철된 전쟁을 합법화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생을 아름다워 영화는 한마디로 너무 감동적이다. 나도 나중에 커서 자식에게 저런 영화

주인공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전쟁의 영화를 비롯한 국가 간 이념간의 싸움의 측면에서 다른 여러 영화들과 달리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한 인간, 가족의 측면에서 다뤘다는 점이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싶다. 더군다나 그런 심각한 내용을 희화화해서 다뤘다는 점이 너무 인상 깊다. 이 영화를 생각하면 제목의 의미부터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 영화의 내용은 유대인 학살과 남자 주인공은 결국 죽게 되는데 왜 인생을 아름다워일까 결과만 보면 반어법이다. 하지만 과정을 보면, 아마도 주인공의 낙천적인 삶이 불행은 비켜갈 수 없었지만 그 아버지의 가치관과 사랑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굿 윌 헌팅>

굿 윌 헌팅은 아인슈타인에 비교될 수 있는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성장한 사회적 환경은 그를 고등학교 중퇴 및 잡부 직으로 젊음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만들어 버렸고, 동네 친구들과 싸움을 일삼으며 일상의 모든 관계를 반항과 피해의식의 자세로 받아들인다. 영화는 단순한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뚜렷한 방향 설정을 가지고, 천재적인 지능의 소유자인 하류층 젊은이에게 포커스를 맞춘다. 고아로 성장한 윌 헌팅은 가난한 동네인 사우티에 살고 있다. 보스턴의 강을 건너 하버드 대학이 위치한 캠브리지에 근접하는 곳이다. 윌과 그의 친한 친구들은 매일 술집에 들르고 심심하면 대학촌으로 몰려나가 여대생들을 만나려 한다. 그들의 생활은 장래를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피폐한 일상이다. MIT 대학 강의실의 청소부로 일을 하던 윌은 혼자 대학교수들이 몇 년간 머리를 맞대고도 풀지 못한 복잡한 수학 문제를 재미삼아 풀어본다. 수학 교수인 램뷰는 수학 문제를 쉽게 풀어버린 윌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싸움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그를 가석방시킨다. 세상 밖에서 고삐 풀린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윌에게 램뷰 교수는 자기와 함께 수학을 연구할 것과 정신과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하지만 윌에게 정신과 상담이란, 이미 그가 스스로 습득한 정신 분석학 이론에 의해 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최면을 시켜 잠재의식을 끄집어내려는 정신과 의사를 조롱하는 윌의 태도는 다수의 의사들이 혀를 차고 치료를 중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인물 손 맥과이어를 만난다.

손은 램뷰교수의 동창생으로 아내와 사별 후 세상사를 뒷전에 두고 전문대학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 정신과 의사이다. 그는 상냥한 성격이면서 유머러스하나 한편으로는 슬픔을 내포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 손과 윌은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소외된 천재에게 삶의 가능성을 깨닫게 만든다. 윌과 함께 다니는 세 명의 친구들 또한 이 영화의 주변을 경솔하지 않게끔 감싸준다. 정직하지만 목표 없이 배회하는 인생 탈락자들에게 확고한 이미 오랜 시절의 기억뿐이고 그들에게는 막노동과 맥주 마시는 것이 일상의 낙인 것이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진정으로 상대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길 원한다면 자신의 마음에 놓인 벽부터 허물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에서 주인공인 윌은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와 성장과정에 바탕으로 자의견, 타의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누군가 자기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하지만 윌은 천재이다. 자신 또한 그것을 자각하고 있다.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엄청난 독서를 하고 MIT학교 청소부로 들어간 이유도 앞에 대한 욕구 때문이다.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하버드 생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양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윌은 자신의 영혼을 가로 묶어버린 끈과 빗장을 풀길 원하지 않았고, 여는 방법도 모르며 여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의 그런 행동은 오만방자한 태도로 나온다. 폭력으로 구속 위기에 놓인 윌의 천재성을 발견한 교수가 자기 밑에서 자기의 학문 연구를 도와줄 것과 정

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풀려나게 해준다. 정신과 의사와 학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상담으로 고의로 망치던 월은 손교수를 만난다. 그가 바로 월의 마음을 터놓게 한다. 친구들 이외에는 자신의 맘을 열지 않던 월이 그에게 마음을 터놓는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교수가 먼저 자기의 숨기고 싶은 아픈 구석, 마음을 열고 다가갔기 때문이다. 월만큼 불우하고 아팠던 속내, 빗장을 걸었던 그것을 스스로 풀고 월에게 다가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월은 마음이 벽을 허물고 성공적으로 영혼의 교감을 나누고 진정한 사랑 또한 알게 된다. 이 마음의 터놓음은 상담과 치료뿐만 아니라 바로 교육, 선생과 학생간의 소통에 너무나도 중요한 왕도이자 지혜, 필수요소라고 하고 싶다.

나는 또한 이 영화를 보고 내가 되고 싶은 교사의 이상형이 떠올랐다. 지금껏 봐왔던 교사들의 모습은 형식적이고 틀에 얽매인 지식들만을 주입시키고, 사제지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서로를 의식하고 경계하는 관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보면 두 가지의 교사의 모습이 나온다. 서로 생각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다른 이 두 교사 사이에서 해매는 주인공, 주인공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천재성만을 보고 있는 한 선생과, 그와 반대로 그의 정신적인 불안감을 치유해주기 위해 인간다운 삶을 깨닫게 하고 지식만이 아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

<동주>

영화 동주를 보고 나서 와 닿았던 대사가 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일이란 생각과 말이 같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다. 말로 약속하지 않아도 묵묵히 생각한 바를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윤동주 선생님은 그래서 짧지만 한반도 몸통만큼 굵직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남긴 사람이었다. 영화 속으로 함께 사라진 송몽규 선생님도 그랬다. 한 번 뜻을 세웠으니, 또 행동으로 옮겨봤으니,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했다, 말한다. 영화 동주를 본 사람 대부분은 윤동주, 송몽규 선생님처럼 멋지게 살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자유니 민족이니 독립이니 시인이니 하는 수식어 때문이 아니라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떳떳하게 가야할 길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 매 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가고 싶기 때문이리라. 그 길 위에서 주변을 휘휘 둘러보며 말이다.

영화를 보고나서 윤동주 선생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독립운동가, 시인이 라고만 생각을 하였는데 윤동주 선생님은 항일 운동가도 항일 시인도 아니었다. 단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사의 소신을 지킨 사람이었다. 일제 강점기 국민의 80%가 창시개명을 했다고 한다. 지금이야 조금만 일제에 우호적으로 했었던 사람이라면 매국노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쩌면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영화에서 윤동주가 존경하는 시인 정지용이 ‘지금 시대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시대야.. 하지만 부끄러운걸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이 말처럼 부끄럽게 살아가는 걸 알면서도 그걸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지만 윤동주는 그렇지 않았다. 특별히 항일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시를 좋아했던 한 청년이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 동주의 영화 내용인 것 같고 영화에서 윤동주의 친구 송몽규는 항일운동을 했다. 영화 장면의 마지막에서 송몽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인을 일본순사 앞에서 부끄럽다고 한다. 반대로 윤동주는 부끄럽기 때문에 난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 찢어버릴 것 같다. 영화를 보고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모를 것이다. 우리는 나의 잘못은 이해를 요구하면서 남의 잘못은 비

판하고 질타하는데 앞장서고는 한다. 부끄럽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는 비판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랑 얼마나 다를지 생각하다. 그러므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칭송을 한다. 참 이질적인 것 같다. 거창한 독립운동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힘든 건 지금 이 시대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지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주 시인의 마음을 제 가슴으로 새겨 보았고, 한컴타자에 있는 운동주 시인의 서시를 다시 한 번 자세히 타자를 치며 읽어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시를 한 번 내손으로 글을 써보고 싶어서 별 헤는 밤을 필기로 써보며 느끼고 싶어서 한번 써보기도 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는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와 어머니, 어머니 다시 한 번 써보았다.

장려상

윤혜영 미술치료학과

인생은 아름다워

1. 영화 소개

제목 : 「인생은 아름다워」

감독 : 로베르토 베니니

출연 : 로베르토 베니니(귀도), 니콜레타 브라스키(도라), 조르지오 칸따리니(조슈아)

제작년도/국가 : 1999년/이탈리아

2. 핵심키워드

: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 ☆ 부성애

3. 감상문 + 느낀점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를 자신의 인생 영화라며 꼭 봐야 할 영화라고 추천을 받았었는데, 학습지원센터에서 주최한 CHA세대 영화감상 프로그램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11/30일, 드디어 영화가 시작되면서 곱슬머리 남자와 다른 남성이 빨리 달리는 승용차에 탄 채로 “비키세요, 비키세요.” 하며 등장하길래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라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영화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① 앞부분은 귀도와 도라가 서로를 알게 되고, 사랑을 시작하는 이야기

② 그 후, 그 둘과 아들 조슈아와 함께 단란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

③ 끝부분은 이 가족이 수용소에서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아들과 아내에 대한 귀도의 사랑과 슬픈 현실을 눈물 나지만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① 영화는 1932년,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상경한 귀도는 낙천적인 성격으로 늘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갑니다. 귀도는 삼촌의 주선으로 호텔의 웨이터로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귀도와 전혀 다른 상위계층의 여성인 도라의 첫 만남은 특별합니다. 도라가 우연히 귀도의 앞에 떨어지면서 운명 같은 만남이 시작됩니다. 귀도는 그녀를 본 순간 사랑에 빠지고, 그녀에게 “안녕하세요, 공주님”이라고 인사합니다. 우연히 만난 후로도, 또 우연을 가장해 그녀와 자주 마주치며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합니다. 도라는 약혼자가 있었지만, 약혼자보다도 유머러스하고 재치가 넘치는 귀도의 자상함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귀도가 벌에 쏘인 도라의 무릎을 빨아주는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녀를 위해 방석으로 우산을 만들고 계단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장면에서 저는 귀도의 지극 정성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로 날 사랑해줄 그런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까하는 부러움이 일었습니다. 결국, 도라는 약혼자가 아닌 귀도를 선택하고 그들의 가정을 꾸립니다. ② 그들은 귀여운 아들도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화 중간 중간에 다른 상점의 문 앞에 붙은 ‘유태인과 개는 출입금지’ 공지문과 귀도가 군인들에게 불려가는 장면은

영화의 시대적 상황을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③ 그러던 어느 날, 귀도와 조슈아는 갑작스레 들이닥친 군인들에 의해 유태인 수용소 행 트럭과 기차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날은 아들 조슈아의 다섯 살 생일날이었습니다. 귀도는 환경이 더럽다고 불평하며 지친 아들에게 생일을 맞이한 너의 깜짝 생일파티를 위해서 여행가는 중이라고 아들을 달립니다. 귀도와 조슈아가 기차에 실렸다는 것을 알게 된 도라 역시 기차에 따라 오릅니다. 비 맞기도 싫어 하던 귀하게 자란, 부잣집 딸내미 도라가 직접 수용소 행 기차를 타는 장면에서 저의 사랑의 힘은 크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도는 수용소에 도착해 입이 반쯤 나와 투덜거리는 아들을 달래기 위해 무자비한 수용소 생활을 단체게임이라 속입니다. 가장 먼저 1,000점을 따는 우승자는 선물로 진짜 탱크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수용소 생활은

모든 사람에게 가혹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귀도는 유독 신나게 생활하는 것처럼 웃음을 잃지 않았습다. 아들 조슈아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귀도는 아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숨기기 위해 아들 앞에서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불안해도 걱정할 것 없다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너무나 고된 강제 노역을 하고 와서 다리가 풀릴 지경이어도 깨끗하게 아들을 안아주고 웃는 얼굴로 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었으며, 어쩔 도리가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사랑, 아들은 그러한 아버지가 있어 어린 나이에 가혹한 수용소 생활을 그나마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슈아가 계속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귀도 자신도 얼마나 집에 가고 싶고 아내를 만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고 싶다고 해서 집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절망적으로 좌절할 만도 한데, 아들이 수용소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수용소)게임에서 1등을 하자며 부추기고 격려합니다. 정말 자신조차 버티기 힘든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켜내야 할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에, 끝까지 희망과 긍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안하고 위태로웠던 하루하루가 지나 마침내 독일이 패망했다는 말을 들은 귀도는 조슈아를 나무 궤짝에 숨겨둔 채 아내를 찾아 나섭니다. 조슈아는 날이 밝을 때까지 독일군에게 들키지 않으면, 1000점을 채워 게임에서 이긴다는 귀도의 말을 믿고 궤짝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귀도는 아내 도라를 찾으려다 발각되어 독일군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총살을 당하러 가면서도 그는 궤짝에 숨어 자기를 지켜보는 아들에게 왕크를 하며 웃어주고 군인걸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끝까지 귀도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다. 장난감 병정처럼 웃으며 씩씩하게 걸어가는 귀도의 모습이 마음에 남아 잊히지 않습니다. 수용소의 참혹한 상황에서 어린 아들에게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희생에 눈물 나게 슬펐고, 또 저를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이 생각났습다. 부모님들은 힘든 상황임에도 자식들을 위해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으시고 감정들을 잘 표현하지 않으시기도 할 것입니다. 파시즘과 뜨거운 부성애,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봐야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감상문을 마무리하며, 귀도가 조슈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다.

“조슈아 인생은 아름답단다.

아무리 처한 현실이 이러해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란다.”

사랑이 있기에, 사람이 있기에, 함께 견뎌낼 수 있기에 인생은 정말로 아름답습다.

장려상

박한슬 약학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동주들에게

혹자는 묻습니다. 너희 세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저는 그런 할난 조의 질문에 항상 담담하게 같은 대답을 해왔습니다. 저희 세대의 시대정신은 그저 미래에 대한 ‘불안’일 따름이라고. 대학 졸업장을 가슴에 품고도, 생계를 위한 취직을 걱정하는 불안감이 지배하는 시대에 저는 영화 <동주>를 봤습니다.

젊은 시인은 그의 짧은 생애동안 끊임없이 고뇌를 했습니다. 고통과 상실의 시대에 과연 ‘시(時)’를 쓰는 것이 맞을지,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요. 그런 시인에게 시인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제 혼자 좋은 문학을 할 것이 아니라, 의학부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그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느냐 구요.

그러나 시인도 알고, 시인의 아버지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인의 아버지가 바라 것은 인술을 베푸는 의사(醫師)가 아니라, 아들의 안정적 생계라는 것ेल요. 시절이 수상해도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고, 아비 된 입장에서 시국보다 자식이 배 굶는 것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그리 큰 허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결국 문학을 택했습니다. 항상 등단은커녕 시집 한 권 내어본 적이 없다며 그 호칭에 썩스러워 하는 그지만, 시인이라 칭해지는 것을 거부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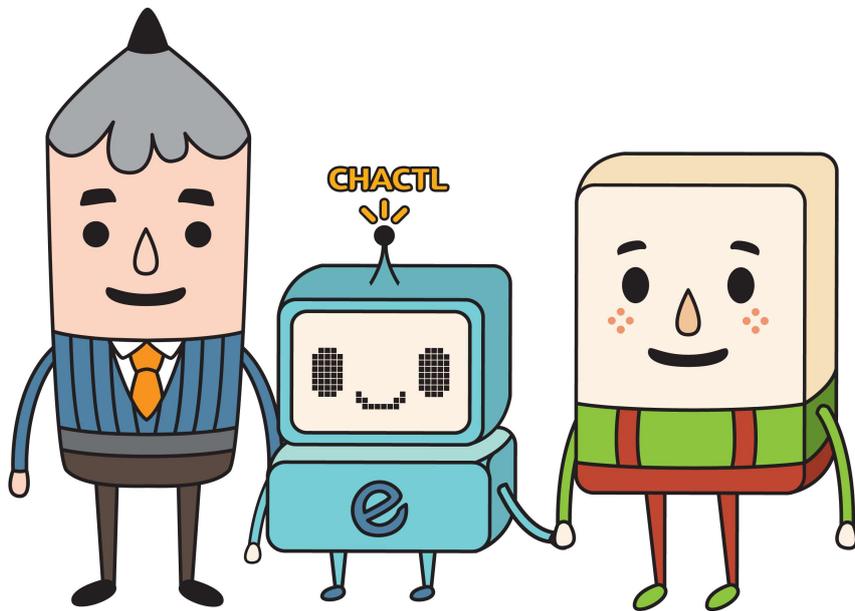
하지만 그의 벗 ‘몽규’는 달랐습니다. 그의 등단작인 <손가락>의 내용을 간단히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부부가 유일한 결혼 예물인 은수저를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하자는 결심을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장에다가 수저를 팔아 쌀을 사왔는데, 막상 밥을 짓고 보니 집에 수저가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는 그런 슬픈 내용입니다. 그는 그런 암울한 시기에 세상에 투신하는 길을 택했고, 아버지가 바라지 않던 의사(義士)의 길을 걷습니다. 그 예겐 문학이건, 천우건, 시인이건 간에 모두 투쟁의 수단일 따름입니다. 시인은 그런 그를 보며 고민이 깊어집니다. 의사의 길을 피해왔더니, 이제는 다른 의사의 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영화는 시인을 삶을 통해, 그 두 가지 축 중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를 끊임없이 관객에게 묻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던지고, 결국은 그 스스로조차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몽규’와 같은 삶과 그런 시대 속에서도 고요히 자아실현과 스스로의 인간다움을 지켜나가던 ‘시인’의 삶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맞는 것 인지를요. 참여와 순수의 대립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현실과 이상의 대립으로도 읽혔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불안한 시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는 더더욱요.

저는 불안에 떨던 시인을 보고, 몇 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의 아버도 시인의 아버와 비슷한 말을 했었고, 저는 그 즈음의 강렬한 불안을 기억합니다. 바리깡으로 머리가 밀리던 시인을 보면서, 연거푸 취업 고배를 마신 선배들이, 수능을 다시 봐서 교대로 입학하는 선배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인은 그런 불합리를 직접 겪고 는 현실에 나서서 그런 불합리에 저항코자 했습니다. 용기를 갖고,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몽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핑계로, 진정 바라던 것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말입니다. ‘몽규’는 못 되더라도 ‘동주’는 되어야 할 텐데, 불안에 떠밀려 약대에 안주한 저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II. 우수다 에세이 공모전



최우수상

정유진 미술치료학과

동양과 서양을 넘나드는 미술의 세계, 좋은 수업을 소개합니다. <동서양미술사>

목 차

- I. 서론: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프리지아’ 한 송이
- II. 본론: <동서양 미술사>, 널 어쩌면 좋니!
 - i. 과거를 거슬러 미래로 나아가는 미술의 흐름
 - ii. <동서양 미술사>가 따끈한 수업이 되기까지
 - iii. 교수님의 알록달록 무지개 평가!
 - iv. 동양과 서양, 미술로 넘나드는 간질거리는 2시간
 - v. 百聞不如一見! 미술이 오감으로 다가오다.
 - vi. 미술과 힐링이 만나면? 힐링 스페이스!
 - vii. 달콤한 명화와의 소통, 우리들의 참여형 수업
- III. 결론: 시계토끼를 쫓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세계로

I. 서론: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프리지아’ 한 송이

미술의 ‘미’도 모른 채, 덜컥 미술치료학과에 입학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게 후딱 지나가버렸고 어느새 2학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이러다가는 대학 시절에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채 흘러갈 것만 같았던 건지 마음에 불이 난 듯 조금해지다가 우연히 눈길을 끈 과목이 있었다. 바로 ‘동서양 미술사’. 미술의 흐름을 꿰차기에 적합한 과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과목에서 얻는 배움이 학과의 공부의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수강버튼을 살포시 누르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동서양 미술사와의 인연! 당신의 시작을 응원한다는 프리지아의 꽃말처럼, 제 2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이 과목을 당신께 소개합니다!

II. 본론: <동서양 미술사>, 널 어쩌면 좋니!

i. 과거를 거슬러 미래로 나아가는 미술의 흐름

교양을 논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이 과목을 주저 없이 선택해도 좋다! 이 과목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2학점 선택교양 과목이다. 저번 학기에는 2개의 분반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수강인원은 각각 50명 정도였다. 이 과목은 미술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변화무쌍한 미술의 세계에서 흐르는 일정한 규칙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적어도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라면, 이집트 미술은 죽은 자와 영원을 위한 미술이며 엄격한 규칙에 따라 인물은 정면, 나무는 측면에서 본 각도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선사시대부터 현대사회의 근간이 마련되는 19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의 미술을

주제로, 예술가와 그들의 작품들 이면에 담긴 내용을 통해 동서양 미술사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 과목은 그들의 작품들 이면에 담긴 내용을 통해 동서양 미술사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 과목은 강의를 통해 배움의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발휘되는 창조적 역할과 능력을 키워주고 동시에 제 2의 내재적 창의력, 열린 마음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흐름을 한 권의 책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방대한 4~5권의 분량이 깔끔하게 정리된 PPT 자료로 압축되어 핵심만 설명한 이 강의는 미술 비전공자가 수강하기에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고 머리에 쑥쑥 들어오는 강좌다.

ii. <동서양 미술사>가 따끈한 수업이 되기까지

강수지 교수님은 대학교에서는 서양화를 전공하셨다. 그림이 너무 좋아서 선택한 전공이었고,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대학 때 미술사에 대한 공부를 어렵게 하기도 했지만 재미있게 공부하셨고 대학 졸업 후 큐레이터를 하기도 했다. 대학원은 차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임상미술치료전공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는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미술치료전공 박사를 수료했고, 많은 프로젝트들과 연구를 진행 중이시다. 강수지 교수님의 동서양 미술사 수업은 이러한 교수님의 일련의 과정을 하나로 묶은 아름다운 작업이다.

교수님의 수업을 준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의 책과 본인이 공부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PPT를 만들고, 그 내용을 정리, 요약해서 설명한다. 미술사 관련 책들뿐만이 아니라 역사, 문화, 영화, 심리에 관한 책들과 전공서적, 교양서적, 논문도 참고해서 수업 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미술사를 어렵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 예술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림을 보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에 대하여 역사와 관련해서 미술사조 및 작가들에 대해 설명이 충분한 강의를 만들고 싶어 하셨다. 아마 이 점이 다른 미술사 수업과 차별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님이 따로 이 수업의 주 교재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준비한 PPT자료를 읽는 등의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PPT 자료 외에도 미리 수업 시간에 설명할 내용을 마련해 강의 때 참고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즉 교수님이 이 강의실에 발을 디디기까지는 2개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는 PPT 자료물, 나머지 하나는 교수님의 추가설명서가 그것이다. 강의안인 PPT 발표물은 매주 업데이트가 되며 교수님의 추가설명서는 학사관리시스템에 업로드 되지는 않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함께 쓰이는 자료이다. 교수님은 미술사를 전공으로 배울 때는 너무 어려웠고, 방대한 양에 힘이 들어 전공수업처럼 수업하고 싶지 않아하셨다. 정말 재밌게 수업할 수 있고, 익힐 수 있는 수업을 이끌고 싶으셨으며, 수업 외적으로는 대학시절 교수님께서 느꼈던 것, 졸업 후의 직장생활에 관한 것, 혹은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학생들에게 교수님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도 해주고 싶었고, 실제로 교수님께 많은 질문들이 왔다고 한다.

iii. 교수님의 알록달록 무지개 평가

교수님의 평가방식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무지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무지개의 색이 각양각색이듯, 교수님은 학생을 다각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충분히 학점에 반영하고자 한다. 출석(30), 중간(20), 기말(20), 과제/발표(20), 기타평가(10)으로 구성된 이 평가방법은 100점 환산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출석이 다른 비중에 비해 중요하게 본 것은 성실함과 준비도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 저번 학기 동서양 미술사의 시험방식은 객관식 20문항으로 출제되었으며 평소 수업을 성실히 들은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된다. 즉 객관식 시험은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점수를 안주기 위해서 구석구석 찾아서 내는 문제가 아닌 정말 크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 흐름에 대한 문제들로 선정하신다. 마지막 문항은 주관식으로 학생의 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며 배점 폭이 큰 편이다. 아마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단 1분이라도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냈다고 하셨다. 하지만 동서양 미술사에 대한 지식적 측면만을 시험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리포트, 전시회 감상문 등이 평가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을 너무 못 보았다고 크게 낙담할 필요는 없다. 저번 학기에 제출한 전시회 감상문은 수업 대체물이기 때문에 점수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으나, 리포트는 과제 항목 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체계성 및 노력을 기울인 정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게 된다. 리포트에서는 주제에 맞는 자신의 생각, 내용(서론, 본론, 결론)의 정리도, 객관적인 자료의 참고문헌 표기를 중요하게 보신다. 다른 자료 혹은 인터넷의 내용을 복사해서 올 수도 있지만 그럴더라도 참고문헌표기는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학교든, 회사든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객관적인 문헌의 표기는 기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표기하라고 말을 하셨다. 또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지를 보았고, 이 주제에 대하여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게 보셨는데, 내용의 정리는 그 리포트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기타평가는 수업시간에의 참여도로 평가가 되어 발표나 질문, 적극성 정도를 보기 위한 평가항목이라고 말씀하셨다. 교수님은 평소 수업 태도를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점수 간 격차를 두시는데, 특히 수업 종종 질문하시는 교수님의 물음에 두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는 자세에 대해 높이 평가하신다. 교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학생과의 참여 형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수업의 좋은 태도라고 보신다. 또 작품을 미술사적으로 논할 때에도 이 작품이 학생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는 지에 대한 인상적 측면을 보는 것에 대해 가치 있게 여기시므로 수업 중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행위에 가산점을 주신다.

이렇게 교수님의 무지개 평가 방식은 학생에게 다각적인 시각에서 미술 작품을 바라보게 하는 넓은 시야를 갖게 하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이끌어 보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동서양 미술사라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예술 문화에 접근할 기회를 이끌어내 학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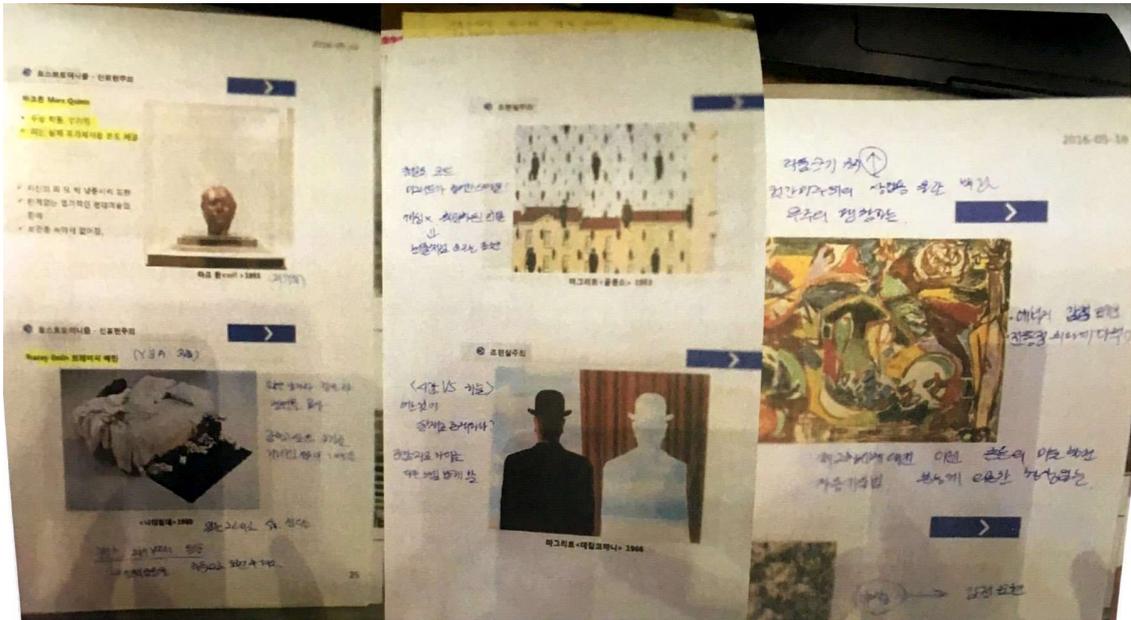
iv. 동양과 서양, 미술로 넘나드는 간질거리는 2시간

저번 학기의 동서양 미술사 수업은 월요일 2~3교시인 10시 30분에서 12시 20분까지 2시간에 걸쳐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미술로 넘나드는 동양과 서양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코끝이 간질거리는 시간을 만날 수 있었다. 수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숲을 보기 위해 BACK하기, 찬찬히 나무를 살피며 미술사를 DEEP하기, 마무리 및 영화 감상.** 이렇게 이루어진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숲을 보기 위해 BACK하기. 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전 수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갖는다. 미술사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전 시기의 미술 사조의 어떤 부분이 변형, 계승, 발전을 이루는지가 다음 시기의 미술 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중세 미술은 신 중심 미술로서 양식이 고정되어 있고 수직성과 아치를 사용한 고딕 미술이 주축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다음 시기인 르네상스 미술은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고 유화, 원근법, 명암대조법, 피라미드 구도 등 회화기법의 혁신이 일어나면서 자유분방한 예술적 독창성을 추구하고 예술에 대한 관심의 대중화가 일어나는 등 중세 시대의 미술과 다른 사조의 양식을 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미술 사조를 접하기 전에 이전의 사조를 되짚어보는 것은 학습할 내용의 흐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찬찬히 나무를 살피며 미술사를 DEEP하기.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숲을 본 게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 깊이 있게 미술 사상을 학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당 시간에 배운 미술사상의 이론을 심도 있게 파헤치며 시대상 전반에 나타나는 미술의 특징을 알아보고 각 대표 작가 및 작품을 공부하며 함께 익힌다. 대표 작가는 각 시대 별로 평균 3인 정도 등장하며 이 작가의 작품을 보는 것이 곧 시대상의 전반을 훑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해당 시기의 적절한 작가를 선정해 보여주신다. 교수님께서 PPT 자료에 나온 용어들을 학생의 수준에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PPT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덧붙이시면서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신다. PPT의 내용은 핵심만 추려서 적혀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문장으로 설명된 부분도 있으나 대개 학생이 이해하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



▲ 수업시간 때 필기한 내용 1,2,3

이 사진 자료는 수업 시간에 내가 필기한 내용을 찍은 사진이다. 작품 사진 옆에 파란 펜으로 필기된 부분이 교수님께서 추가로 설명해주시는 부분이며 수업 후에 되짚듯 읽다 보면 작품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또한 교수님이 중간 중간 강조하시는 부분은 노란 색연필로 강요하여 표시해 두었으며 중간 및 기말고사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

셋째, 마무리 및 영화 감상. 마지막 단계는 마무리를 위해 해당시간에 배운 미술 사조를 간단하게 훑는 작업과 새로운 영화의 감상 수업이다. 특히 새로운 영화의 감상은 미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학생의 선입견을 깨트리고 보다 쉽게 미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 영화의 감상은 수업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학생들의 창의적 발상을 끌어내고 미술을 현학적으로 생각하며 기피하려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기억에 남는 영화 수업으로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작품 <그네>가 떠오른다. 교수님은 이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인상을 물어보셨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교수님의 의도에 수업은 적극적인 열기를 띠기 시작했고 미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당시 학생들의 의견은 참 다양했다.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그네>▶

‘화면 중앙에 한 우아한 숙녀가 그네를 타며 높이 날아오르고 있어요.’, ‘숲의 심원하고도 어두운 음영 속에서 떠오른 달처럼 환하게 빛나는 숙녀의 모습은 마치 한 송이 꽃과 같아요.’, ‘화사함에 매료될 정도로 매혹적이에요.’

이렇게 그림에 대한 학생들의 인상은 대체로 화사하고 따뜻하며 아름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학생들의 대답을 끝으로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 작품은 겉보기에는 여인의 미에 매료될 정도로 아름답지만, 사실은 그네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욕망을 매개하고, 남자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즉 그녀는 나비처럼 쉽게 잡히지 않는 존재로, 그네를 타고 이쪽과 저쪽을 왕복하며 남자들의 욕망을 드러내고 매개하는 현혹적 대상인 것이지요. 그들의 관계는 삼각관계의 전형성이라 볼 수 있으며 섹슈얼리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과 학생들의 의견 사이의 괴리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직까지도 이 문장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수업에서 들은 내용이 나에게 의미 탐색의 즐거움과 작품을 바라보는 확장된 관점의 해석을 제공해주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동서양 미술사>의 2시간은 동양과 서양의 미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이며 미술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개방의 시간이다. 창의적 발상을 이끌어 내고 봄의 벚꽃 잎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간질거리는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이 수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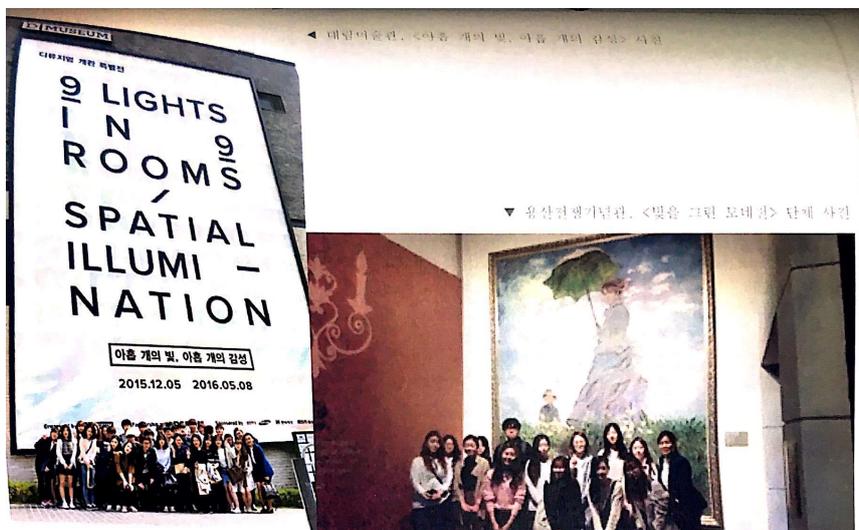
v. 百聞不如一見! 미술이 오감으로 다가오다.

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직접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업을 휴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을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술은 직접 경험하고 느낄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교수님의 이론에 따라 강의실 안을 벗어나 미술을 오감으로 읽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 대체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시회 참여는 용산전쟁기념관의 <빛을 그린 모네전>과 대림미술관의 <아홉 개의 빛, 아홉 개의 감성> 전시를 두 회에 걸쳐 학생들의 일정을 나누어 진행했다. 하지만 전시회에 두 번을 다 참석하거나 전시회 감상문을 제출할 때 두 곳을 모두 제출한다면 적극적인 참여도 측면에서 가산점을 준다고 말씀하셨다. 교수님의 평가방식에는 기타 항목에 10%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플러스 점수를 주시는 것이다.

교수님이 전시회를 고른 기준은 ①전시의 예술성 ②전시의 접근성 ③전시의 파급성이다. 전시가 대중에게 충분한 예술성을 갖추고 있어 그 자체로 의미를 지녀야 하며, 서울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여야 한다는 접근성의 면도 고려해야 한다. 학생 대부분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진행되는 전시를 보러 가기에는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시의 파급성도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부분인데, 현재 이루어지는 전시가 대중에게 있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교수님은 수업 대체로 진행되는 전시회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학생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전시를 제공해 유익함을 꾀하려 노력하셨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시회 도슨트 설명을 위한 단체예약을 통해 미술 작품에 대한 심오한 의미를 쉽게 깨달을 수 있었다. 미술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도슨트는 학생이 예술에 다가갈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마련했다. 미술을 마음껏 즐기기를 바라는 교수님은 전시회 감상문을 통해 작품에서 느껴지는 각자의 개성 및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원하셨다. 감상문은 체계성이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주관적으로 드러내는데 목표를 두었다. 수업 대체로 진행된 전시회 탐방이었기 때문에 전시회 감상문 출결 인정용으로 작성하는 것이었으며 평균 2~3장을 써서 제출하였다고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미술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미술과의 소통을 추구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은 전시회 탐방을 통해 미술을 이론적으로 습득했을 때와 두 눈과 귀로 경험했을 때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게 다가왔다. 미술의 감성이 마음에 파고드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내면이 충만해지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vi. 미술과 힐링이 만나면? 힐링스페이스!

<동서양 미술사>는 리포트가 있는 수업이다. 저번 학기의 리포트 주제는 ‘힐링 스페이스 공간을 선정하여 소개하기’ 이었다. 이 리포트 과제에서 재미를 느낀 부분은 기존의 수행한 리포트 주제와는 확연히 다른 ‘치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인데, 이번 주제는 평온한 마음으로 힐링 공간을 탐색하며 그 공간에서 숨 쉬는 치유적 가치를 들이 마시고 내쉬며 여유로움을 한껏 누릴 수 있었다. 힐링스페이스 리포트를 수행하기 전 교수님께서 해당 공간에 대한 정의와 예시를 보여주어 학생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을 기울이셨다. 교수님은 이 과제를 통해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서적,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이 공간을 찾은 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리포트를 작성해도 좋지만 그 공간을 방문한 후 느낀 점에 대해 작성하는 것에 대해 더 높이 평가하신다. 이 리포트를 낸 의도는 학생들이 지친 학업 생활에서 벗어나 마음껏 휴식 할 수 있는 나만의 힐링공간을 찾으라는 의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실제로 자신이 선택한 공간을 방문해서 리포트를 제출한 경우가 더러 있었으며 추후에 방문해보는 등 ‘힐링’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리포트의 평가 방식은 ①주제의 부합성 ②내용의 체계성 및 구성 방식 ③성실성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주제의 부합성

이 리포트의 중심 주제는 ‘힐링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공간의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평가 방식에 포함된다. 만약 공간이 단순한 유희만을 추구하거나 힐링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담고 있다면 감정 요인이 된다. 또한 해당 공간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다면 힐링 스페이스 공간으로 접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주제의 부합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힐링 스페이스 공간으로 해당 장소를 선정했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 공간이 주는 유익함 및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교수님께서 힐링 스페이스 공간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는 하셨지만, 다수가 보았을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힐링 스페이스 공간에 제하여 평가를 내리신 것이다.

②내용의 체계성 및 구성 방식

내용의 체계성 및 구성 방식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힐링 스페이스 공간의 세부적인 구성과 이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힐링 스페이스 공간을 ‘소개’하기 위한 레포트를 써야하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장의 완성도, 참신성, 체계성을 모시며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연결성 및 통일성도 함께 보신다. 또한 내용의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개요를 작성해 한눈에 보기 쉽도록 레포트가 구성된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③성실성

레포트의 분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성실성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비록 분량이 성실성에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2~3장 쓴 레포트와 7~8장 쓴 레포트는 다르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아무리 레포트를 쓴 분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제와 부합하지 않거나 내용이 알차지 못하다면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유 분량이라는 점에서 힐링 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길게 쓴다면 레포트의 성실성을 높이 평가해 점수에 반영한다고 말하셨다.

그 외에도 힐링 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레포트에서 ‘해당 공간의 방문 여부’도 점수 반영에 참고로 한다. 힐링 스페이스 레포트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의 힐링’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 점에서 해당 공간을 방문한 후 인증 샷과 함께 레포트를 제출한다면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힐링스페이스로 선정한 포천아트밸리

이렇게 힐링 스페이스를 주제로 한 레포트 과제는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반복되는 일상의 한 줄기 달콤한 휴식을 제공해 준 신선한 경험이었다. 나의 경우 포천아트밸리를 힐링스페이스 공간으로 선정해 직접 방문하여 레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vii. 달콤한 영화와의 소통, 우리들의 참여형 수업

마지막 수업으로 미술치료 워크숍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미술에 대한 이론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미술 작품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보면서 미술에 다가갈 수 있는 참여형 수업이었다. 수업의 기본 준비물은 교수님께서 준비해주셨고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프린팅해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 교수님은 혹여나 학생들이 영화를 준비하지 못할 것은 우려해 따로 영화를 프린팅해 필요한 학생에게 나누어 주셨다. 우선 자신이 원하는 색상의 도화지를 고른 후, 준비한 영화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리거나 찢어 붙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주제는 자유이며 영화를 통해 떠오르는 감상 및 생각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이다.

▲ 미술치료 워크숍, 영화 재구성하기

이렇게 완성된 영화를 강의실 전면에 붙여 놓으니 성취감이 들었고 영화가 아름답게 재탄생되는 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 교수님은 이어 2~3명의 학생에게 해당 그림의 의미 및 느낀 점을 질문해 학생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 워크숍을 통해 미술은 어려운 것이라는 통념을 깰 수 있었고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었으며 미술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계기가 되어 주었다.



III. 결론: 시계토끼를 쫓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세계로

“어제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난 어제의 내가 아니거든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내뱉은 말이다. 어느 날 앨리스는 시계를 들고 늦었다고 뛰어가는 토끼를 따라가 이상한 나라로 떨어지게 되며 모험을 시작한다. 마치 이 새로운 차원에 대한 통과가 동양과 서양의 미술사를 넘나드는 이 수업과 어렴풋이 닮아 있다. 그간 접해보지 못한 지식의 문에 뛰어들며 시작된 수업 참여를 통해 많은 긍정적 변화를 꾀할 수 있었다.

①능동성과 주체성의 함양

이 수업은 학생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신 교수님의 수업방식은 학생의 능동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왔다. 교수님이 수업 중간 중간에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 참여 형 수업 방식은 자신의 자율적인 자기표현 능력을 고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미술사 내용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특히 힐링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레포트 작업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힐링의 공간을 재 정의하고 해당 공간으로의 모형을 이끄는 적극성과 열정을 키울 수 있었던 시간으로 능동성을 키울 수 있었던 과제였다.

②유연한 사고방식과 열린 마음의 획득

미술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헤치면서 유연한 사고방식과 열린 마음을 획득할 수 있었다. 미술을 편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세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인상적,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작품을 새로이 바라볼 수 있었다. 해당시기의 미술 사조의 특징 및 형성 배경에 대해 공부하면서 인과성을 획득하며 보다 융통성 있게 작품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겼다. 하나의 작품을 보더라도 단편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작품의 의도와 작가의 생각 및 작품의 형성 배경 등 다각적인 면을 고려해 작품을 다차원적으로 보려는 마음이 생긴 것은 개방된 사고의 획득을 보여준다.

③미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

미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깰 수 있었던 수업이다. ‘미술은 어렵다.’, ‘미술은 재미가 없다.’, ‘미술은 우리와는 동 떨어진 고차원적인 이야기이다.’ 등 미술에 대해 품고 있었던 그간의 생각들이 이 수업을 통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진행한 영화 해석 수업과 전시회 감상 등의 작업은 미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왔다. 영화를 해석하면서 미술 감상의 작업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경험으로 깨달았고 전시회에 걸린 작품을 자유롭게 해석하면서 조금씩 미술의 매력에 빠질 수 있었다. 미술은 대중과의 소통의 접점에 놓여 있으며 작품은 작가와 관람자 사이의 대화를 매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깨달으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④현재 전공에 대한 흥미의 제공

미술 치료에 처음 입학했을 당시에 비해 이 수업을 통해 본과에 해당 흥미가 높아졌다. 미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고취되고 나의 편견이 깨지면서 전공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보다 즐거운 태도로 수업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수업을 계기로 1학년 1학기에 비해 성적도 보다 향상될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 시간에 수업한 내용인 미술치료 워크숍 프로그램, 영화 재구성하기는 미술에 대한 치유적 효과를 깨달도록 도왔으며 미술 작업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다.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자연스럽게 본과에 대한 열정과 의지도 드높일 수 있었다. 또한 동서양 미술사의 수업을 통해 미술치료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동서양 미술사와 전공 공부 사이의 접점에서 학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공과목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사회가 점점 살아가기가 삭막해지고 각박해지는 사회가 되어 간다. 미술이나 미술사를 공부하는 것이 삶에 있어 사치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굳이 알 필요 있을까 생각되는 것이 대부분일 수 있는데, 미술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자격증에 스펙 쌓기에 알바에 시험에 파묻혀 사는 학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줄 수 있는 이 시간만큼은 그림이 주는 힘에 이끌려 공감하고 느껴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술관 수업을 통해 실험적이지만 다양한 것들을 느끼며 미술관이라는 곳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곳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 어려움을 느끼듯, 영화를 활용한 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내면도 들여다보고 직접 느껴보기를 바란다. 교수님은 활동적인 수업준비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언제나 자신의 수업을 열정적으로 들어주는 학생들이 있어서 마음 기쁘게 준비했다고 말씀하셨다.

마치 동화 속 앨리스가 들어간 새로운 차원의 세계와도 같았던 <동서양 미술사>의 세계에 푹 빠졌다 나온 나는 어제를 오늘과는 다른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학업이기 때문에 지겨웠던 수업이 아닌,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자신을 한 발짝 더 성장하도록 도와주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제 2의 삶을 꿈꿀 수 있게 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이 수업에 감사함을 느끼며 학우들이 <동서양 미술사>의 세계에 한껏 빠져보길 바란다.

우수상

권예나 간호학과

간호학과의 좋은 수업을 소개합니다.

1. 간호과정이란

내가 ‘좋은 수업을 소개합니다’로 선정한 수업은 홍세훈 교수님의 ‘간호 과정’이라는 수업이다. 간호과정은 전문직 간호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직 기술이다. 본 과목은 과정으로서의 간호를 이해한 후 간호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여 간호대상자인 개인, 가족,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과학적인 문제해결 과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기본지식과 능력을 갖게 한다.

2. 수업 준비

수업은 교수가 직접 제작한 수업자료로 진행하였다. 수업자료는 간호과정에 관한 기존 문헌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각 항목마다 들어주었다. 또한 기존 문헌의 차례를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한정된 시간에 학생들이 흡수할 수 있는 내용을 추렸고 다른 단원에 있는 내용일지라도 연관되고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같이 묶어 정리하는 등 선형적인 수업 진행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입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강의안을 제작하였다.

3.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험 70%(중간 35% + 기말 35%)
- 출석 10%, TBL시험 10%(시험 5%, 동료 평가 5%)
- 간호진단 TEST 10%

개인 과제 팀과제, 동료평가 등 다양한 평가 자료를 획득하여 활용하였다. 시험은 서술형 문제로만 이루어졌다. TBL시험은 객관식 문제로 이루어졌다. TBL 동료 평가는 조원의 참여도, 성실성, 실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동료들이 점수를 매기고 해당 점수를 부여한 근거를 서술하였다.

4. 수업방식 - TBL(Team-Based Learning)을 중심으로 실제에 적용하기

간호과정 강의는 TBL을 기반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간호 과정 강의의 핵심이자 다른 강의와 비교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TBL이란 팀 기반 학습(Team-Based Learning)을 일컫는 말로 1970년대 미국 오클라오마대학(University of Oklahoma) 경영대학의 Michaelsen 교수가 처음으로 팀 기반 학습(Team-Based Learning)의 아이디어와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대규모 수업에서 4~7명의 학생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한 뒤, 소집단 활동과 과제를 활용하여 수업하는 방법이다. 팀 기반 학습은 공통의 인식과 관심을 같이하는 적정 규모의 팀원이 현안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개

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대화를 통해 공유하면서 지식을 창출하는 학습이다. 팀 기반 학습과 집단학습은 개개의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팀 기반학습이 집단학습에 비해서 구성원의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구성원간 결속력 및 목표달성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TBL은 네 가지 주요 원리가 있다. 이 네 가지 원리와 간호과정 강의에서 이루어진 실제와 비교해보겠다.

- 첫째, 집단을 적절하게 형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 둘째, 학생들은 개인별, 팀별 과제에 책임이 있다.
- 셋째, 집단 과제를 통해 학습과 팀의 발전과 학습을 촉진해야한다.
- 넷째,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한다.

우선 첫 번째 원리는 <집단을 적절하게 형성하고 운영해야 한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팀은 학생들의 강점, 약점, 특성이 골고루 반영 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배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조원을 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강의에서 TBL조는 무작위 혹은 교수님의 임의에 따라 정해졌다. 어떠한 기준으로 나눠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홍세훈 교수님과 우리는 처음 본 사이였고 학과 내 기록물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 기록물을 참고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강점, 약점,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원을 배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4~5명으로 구성된 팀은 학기 내내 영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매 수업시간마다 TBL 조별로 앉아 함께 수업을 들었고 토론 활동이나 과제 수행에 있어서 팀으로 운영되어 첫 번째 원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두 번째 원리는 <학생들은 개인별, 팀별 과제에 책임이 있다>이다. 이에 대해서, 간호과정의 수업은 매 수업시간마다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팀 구성원끼리의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대표로 두 팀을 임의로 선정하거나 설명을 잘했던 팀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 모든 학생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였는지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습 준비와 확인 과정을 위해서 각 학생들은 사전에 학습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수업준비에 책임감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교수는 학생들 간에 성취한 이해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본 강의 시간에 추가적인 설명을 더하여 사전 지식의 차이를 경감할 수 있다.

한 학기에 2번씩 쪽지시험을 치른다. 쪽지시험은 먼저 개인이 푼 다음 같은 시험지를 팀원들과 같이 풀게 된다. 따라서 쪽지시험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며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TBL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쪽지시험은 점수뿐만 아니라 개인 구성원의 공헌도에 따른 동료평가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학습은 물론 팀의 발전까지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만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쪽지시험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높은 출석률을 보일 수 있었다.

세 번째 원리는 <집단 과제를 통해 학습과 팀의 발전과 학습을 촉진해야한다>이다.

Team-Based Learning이라는 이름에 맞게 집단 과제는 팀 기반 학습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간호과정 수업에서도 집단 과제가 이루어졌다. 집단 과제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업 시작 전 TBL 조별로 전 시간 수업 내용 복습 및 발표, 팀별 쪽지시험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제시된 사례를 분석하여 간호 진단을 내리고 진단을 뒷받침하는 사정 자료를 분석하는 팀별 과제가 있다. 먼저 팀별 쪽지시험에서의 개인의 학습능력도 중요하지만 나의 의견을 다른 팀원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내가 생각한 답이 맞았지만 팀원들의 다른 의견으로 오답을 고를 수 있다. 이것이 집단 과제의 단점이라고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팀 내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간호과정의 비판적 사고를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학생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근거를 가질 때까지 수많은 고민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근거기반수행(Evidence-Based Practise; EBP) 능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팀별 '사례 분석 및 진단내리기'과제는 혼자서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제였기 때문에, 내가 속한 팀도 우리 팀원들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모여서 팀원들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팀원들의 생각을 들어본 뒤 그 의견에 동의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리는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한다>이다. 교수님은 쪽지시험을 치르고 즉시 답을 맞추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히 '몇 번 문제의 답은 무엇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왜 이 선택지는 답이 될 수 없는가?', '이 선택지는 어디가 틀린 것인가?' 등과 같은 질문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학생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집단 과제인 '사례 분석 및 진단 내리기'과제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5. 교수의 열정 및 학생들에 대한 태도

홍세훈 교수님은 학문에 대한 관심과 간호학의 의미 확립, 학문적인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갖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간호학은 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회에 참여하고 새로운 학술지를 통해 기존의 간호학을 업데이트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이 아직까지는 온전히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계셨고 학생들에게 이를 인지시켰으며 항상 학문적인 물음을 되뇌는 것을 중요한 덕목이라 여기셨다. 아무 저항 없이 이론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내용에 반론을 갖고 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게 되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예를 들어 '왜 혈압을 잴 때 맥박이 소실된 지점으로부터 30mmHg을 올려야 하는가?', '꼭 30mmHg여야만 하는가?', '육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왜 2시간 마다 자세를 교환 해주어야 할까?', '1시간이면 안되고 3시간이면 안될까?', '2시간이라는 시간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결론지어진 것일까?' 등등 무심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에 대해 다시금 고찰 할 수 있었다.

또한 홍세훈 교수님은 본교를 졸업하여 우리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교수이기 전에 선배로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 TBL조로 또래 스터디를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였고 학교 선배들의 이야기나 임상에서의 경험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서 이론을 실제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관심이 있는 학생은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졸업 후 간호학과의 다양한 진로를 소개해주셨다. 또한 학생들에게 간호학과의 리더가 되어야 하며 될 수 있을 것이라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6. 나의 변화 및 소감

간호학과의 강의는 대부분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론 주입식 강의였다. 주어진 수업시간 내에 배워야 할 이론이 많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질문을 주고받고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란 없었다. 그래서 TBL에 기반 한 ‘간호 과정’ 강의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쳐서 지식을 얻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자가 학습과 팀 활동을 통한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친구들과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활발히 상호작용하여 협동심과 상호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다.

강의시작 전 TBL 조원들과 전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을 서로에게 가르쳐 주는 시간을 가질 때 나는 배운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으니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친구에게 나의 목소리로 ‘말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니 아무 의미 없이 글자를 읽어내려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명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인데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였고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말로 표현하려니 정리가 안 되어있었다. 그리고 내가 설명하는 차례가 끝나고 친구가 나에게 설명을 해줄 때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교재를 읽으니 머릿속에 한 번 더 각인되었고 내가 놓친 부분을 친구가 언급해 줌으로써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었다. 알고 있는 것을 확실히 하고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었다.

비판적 사고에 관해서 Paul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관련성 있고, 일관성 있고, 공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예술’ 즉,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간호과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 나는 집단 과제를 하면서 위와 같은 비판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팀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나의 의견을 고집하여 주장하였다. 하지만 친구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 같은 편협한 마음과 지적인 오만을 정당화하는 행위는 비판적 태도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임을 알게 되었다.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자신의 지식과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비판적 사고는 자율적인 생각이므로 타인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지만 지적 겸손과 지적 용기를 포함한 상호작용은 높은 수준의 비판적 사고를 이룰 수 있었다. 집단 과제를 마치고 나는 ‘이러한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내가 너무 책의 단어에만 집중했었나 보다. 문맥을 읽지 못하였다.’, ‘비판적 사고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닌 공정한 마음가짐으로 지적으로 감정이입을 해야겠다.’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만약 이 과제를 혼자서 해결해야 했다면 나는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는 수행으로 남았을 것이다. 즉, 집단 과제를 통해 팀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폭넓은 사고로나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네이버 지식백과] 팀기반학습 [-基盤學習, Team-Based Learning] (HRD 용어사전, 2010.9.6.,(주)중앙경제)
2. Team-based learning 모형, <http://blog.naver.com/cldk3/30131365049>
3. TBL의 필수요소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2008), <http://dohwan.tistory.com/796>.

우수상

이푸름 보건복지정보학과

‘나는 왜 있는가’

여자는 왜 있는가? 라는 강의 제목을 봤을 때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는 선뜻 강의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다. 내가 이 강의를 들은 이유는 정말 우연히도 교양과목이 남은 게 없어 하는 수 없이 선택해서였다. 대학교에 처음 와서 선택한 교양이었기에 내가 진짜 원하는 강의를 듣고 싶었다. 그런데 수강신청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았고 그 만만치 않은 경쟁에서 떨어졌고 그것도 겨우 한자리 남은 강의를 수강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 친구들한테 어떤 강의를 신청했는지 다 조사를 하고 다녔지만, 아무도 내가 듣는 강의를 듣지 않았다. 원했던 교양도 아니었는데 심지어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슬펐다. ‘조용히 강의만 듣고 나와야지.’하는 심정으로 첫 강의를 들으러 갔던 거 같다. 강의실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꾸벅꾸벅 의자에 앉았다. 혼자라고 누가 쳐다볼까 봐 괜히 핸드폰을 하는 척했다. 그 때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출석체크를 위해서 이름이랑 학과, 학번을 적으라고 종의를 돌리셨다. 나는 그걸 본 순간 더 경악했다. 일학년은 몇 명 안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3~4학년이었다. 점수까지 못 받는 건가...! 망연자실한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우울해 있던 찰나, 교수님께서 앞으로의 강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강의 제목만 봤을 때는 ‘도대체 뭘 배우는 수업이지..’생각했는데, 교수님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수업이었다. 이 말인즉슨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큰 틀로 이야기하자면, ‘여성과 남성 그리고 다윈주의 생명철학’에 관해서 앞으로 강의하시겠다고 하셨다. 조금 걱정은 됐었다. 바이오나 의생명처럼 과학 분야를 배우는 학과가 아닌 보건복지정보학과에 있는 나로서는 과연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찰나, 교수님께서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하신 듯, 학과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교양 수준에서 강의할 것이고 우리는 지식을 쌓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교양을 쌓기 위해 모인 것임을 강조하셨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에 반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기도 했다. 왜냐하면, 수업 내용에 반을 차지하는 것이 ‘토론’이 있다는 것이다.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토론이라니.... 그것도 한 팀이 2번이나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뭔가 발표도 아니고 토론이라니까 더 거창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어깨에 짐을 좀 얹은 채 첫 수업이 끝났다.

이 수업에 있어서 인상 깊었던 것이 4개? 있다.(보통은 3개라 하지만 나는 4개이다.) 그 첫 번째로, 교수님의 강의방식이다. 솔직히 대부분 교수님 강의라고 하면, PPT를 띄워놓고 설명을 하시든가 화이트보드에 강의 내용을 적으면 그걸 받아 적느라 바빠 이해하는 건 뒷전이었던 적이 많아 수업이 끝나면 지치곤 했던.... 그런 게 보통의 강의였다면, 정지형 교수님께서서는 무언가를 적느라 수업을 놓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수업만 들으라고 하셨다. 단순히 PPT가 아니라, 직접 하나하나 사진까지 첨부해서 만드신 pdf 파일과 학생들이 줄까봐 유머코드까지 집어넣으셨다.(예를 들자면, 도대체 ‘쌈’은 왜 타는가?, 나쁜 남자 왜 끌릴까? 와 같은 제목) 그리고 이 수업은 단 순 암기를 묻는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뭘 많이 적는다고 해서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펜을 잡지 않고 있는 거 같아서 불안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멀티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수업에 대한 몰입도가 그 어떤 수업보다 강렬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걱정했던 토론 수업이다. 누구나 내 상황이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누구랑 조를 이루어 토론을 해야 할지가 첫 번째 고민이었다. 또 이런 내 마음을 아신 것인지 팀을 직접 짜서 나누어 주셨다. 학년이며 학과며 고루고루 섞일 수 있도록 팀을 편성하신 것이다. 대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타과를 접해본 게 이때가 아닌가 싶다. 물론, 처음에 팀이 모일 때는 너무 어색하고 몸 둘 바를 몰랐다. 그래도 뭔가를 하기 위해 팀이 모인 만큼 그 어색함을 깨고 토론 준비를 열심히 했던 것 같다. 토론 방식은 이랬다. 토론하기 전, 모두가 함께 영화를 보고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찬/반을 나눠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었다. 영화를 두 번 봤는데, 하나는 "Blindness"라는 영화였고 다른 하나는 "Lone Survivor"이라는 영화였다. 둘 다 생소한 영화였고 시사 할 것을 많이 담고 있는 내용이었다. 우리가 맨 처음 토론을 했던 "Blindness"라는 영화는 모든 인간에게서 시력을 빼앗음으로써 가장 순수한 상태에 인간을 몰아넣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그려낸 영화이다. 상상 그 이상 끔찍했다. 사람이 앞이 안 보인다는 건 단지 시력을 잃었다는 그 자체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벌거벗은 상태나 마찬가지로였다.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자를 거리하기까지 하였다. 다 같이 안 보이는 상황이면 협력할 것만 같던 내 생각과는 달리 사람이 아닌 짐승 같아 보였다. 여기서 바로 토론 주제가 선정되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모두 공황상태에 빠질지 아니면 서로 협력할지 이렇게 두 주장으로 나뉘었다. 우리 팀은 협력한다는 주장을 선택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우리 조는 각자 파트도 나뉘고 이뿐만 아니라, 토론 당일 날 옷까지 흰색셔츠로 맞춰 입으면서 단결을 보여주었다. 모든 학생 앞에서 토론을 진행해야 되어서 심하게 떨고 침까지 말랐던 거 같다. 그래도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 말했고 교수님 말씀대로 의문문 형식으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선제공격을 하려고 노력했다. 비록 두 토론 모두 1점 차이로 졌지만, 점수와 상관없이 엄청 뿌듯했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짜릿함과 희열을 느꼈다. 두 번째 "Lone Survivor"이라는 영화는 탈레반을 체포하기 위해 투입된 특수부대가 그 작전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표현한 내용이다. 영화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큰 틀로 보면 '정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 예들 중 하나인 안락사 찬/반에 대해 우리 팀은 이야기했다. 우리 팀은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주제여서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걱정을 했는데, 뻔한 만큼 찾을 자료도 많아서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상대의 허를 찔렀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토론을 준비하고 토론을 하기 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었다. 집이 멀어서 셔틀 버스를 놓치면 끝장이었지만, 토론 준비 때문에 몇 번이나 학교에 남아 밤늦게 집에 도착하거나 글이 아닌 말로써 내 생각을 표현해야 했기에 유연성 또한 필요했다. 이처럼 순탄하지는 않은 토론이었지만, 지금도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닐 만큼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

세 번째는 야외수업이다. 유치원 때 말고는 야외수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특히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우고 이해하는데 바쁜 공부였기에 밖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사색을 해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 가능해졌다. 교수님께서 꼭 강의 중에 한 번은 야외에서 수업하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학교에 플랜카드까지 걸렸다. '내 삶의 유전자 바꾸는 방법 : 해룡산 개구리에 입맞춤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되었다. 켈리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도 오셔서 우리의 강의 처음을 근사하게 빛내주셨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직접 준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김밥, 과자를 먹으면서 강의를 들었다. 시크릿 가든에 스크린까지 미리 설치해놓으시는 철저한 준비력까지... 대단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대학 강의가 아닌가 싶었다. 마음껏 사색하고 즐기고 음미하는 수업. 두 가지 감정

이 교차했다. 너무 행복한 감정이랑 앞으로 또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슬픔이. 강의는 그 어떤 수업, 어떤 날보다 최고였다. 내 유전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건지.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여러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 수업 덕분에 알은 지식이 아니라 깊은 지식 속에 잠깐이지만 발을 담글 수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험이다. 시험이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의아해할 거 같다. 어려워서 쉬워서가 아니라 시험방식이 독특해서이다. 일단 완전히 서술형 방식의 시험이었는데, 답이 정해져 있는 서술형이 아니었다. 그동안 강의 중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쓰는 문제들이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은 새롭기도 하면서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 분량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문제 또한 되게 추상적이어서 한참을 생각하고 답안지를 썼던 기억이 난다. 엄청 빨리 쓰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나처럼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고민에 고민 끝에 답을 쓰는 사람도 있었다. 시험을 보는 중에는 그래도 나름 즐거웠다. 답이 안정해져 있으니 자유롭게 내 생각을 쓸 수 있었고 '대학 시험이면 이래야지!'하며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만들었다는 게 문제를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었다. 꽤 시간이 오래지나 시험 문제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지만, 기억나는 선에서 말하자면 '삶과 죽음'은 무엇인지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처럼 우리가 직접 이름을 붙인다면 호모○○을 만들어 그 뜻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 외에도 한 3개 정도 더 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더 특이했던 건 이 5문제 중에 본인이 원하는 3문제를 택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물론 나도 쉬운 문제가 있지 않나 찾아보기는 했는데 모두 난이도는 같았다.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3문제를 택해서 풀었다. 내가 속한 학과가 공대가 아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오픈북 시험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배운 강의 자료를 봐도 되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봐도 되었다. 그런데 이 말은 찾아서 시험을 본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과 같았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본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 커닝을 하나 감시? 감독? 할 필요도 없었다. 내가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르고 나오면 되었다.

강의를 처음 듣기 전에는 온갖 겁을 먹고 어떻게든 피할 공리만 했다면, 수업이 시작하는 동시에 첫 수업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단 한 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다. 일주일 중에 금요일이 제일 기다려졌고 강의가 끝나면 친구들한테 자랑하느라 바빴다. '오늘은 어떤 수업을 했고 다음에는 또 어떤 걸 배울 건데' 라면서 들뜬 목소리로 말하고 다녔다. 그만큼 즐기면서 들었던 수업이어서 학점도 좋게 받았다. 한 학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교수님의 강의를 듣지 못해 아쉬워하며 말이다. 토론 수업 때 각자 찍어준 사진과 짧은 글과 함께 문자로 한 명 한 명의 학생에게 보내주셨고 학생들의 요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시켜주려고 노력하셨다. 단순히 수업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셨다. 바이오 교수님이셨는데 전공 분야만 가르치기도 바쁘실 텐데 교양 수업까지 열어서 안 좋게 말하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신 것이다. 그 고생에 감동한 나 같은 학생이 많길 바랄 뿐이다. 강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자. 여자는 왜 있는가? 진짜 이 제목이 묻는 말의 속뜻을 안다면 나처럼 처음부터 반감을 갖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존재, 그 시작이 어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해 묻는 철학적 질문 정도라고 생각하려 한다. 단지 하나의 강의, 수업이었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추억하고 힘들 때 꺼내보고 싶은 사진첩 같은 존재로 남을 거 같다. 이 글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정지형 교수님께 감사함을 전해 드리고 싶다.

장려상

민유정 보건의료산업학과

컴퓨터 실무 활용

해당학기 : 1학기

학 과 : 보건의료산업학과

학 번 : 20163210

이 름 : 민유정

-나에 대한 소개-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는 컴퓨터와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학생이었음을 말한다. 창피할 정도로 타자도 일명 '독수리 타자'였으며, 내가 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기능을 찾고자 할 때에는 아무 버튼이나 클릭하기도 했고 인터넷에 항상 도움을 요청했다. 포털 사이트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커진다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떤 버튼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친구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는 나였다. 그런데 내 21년 인생에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딱 두 번 있었다.

첫째,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실험 대회를 나가 근사한 PPT를 만들었던 것. 둘째,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물동아리를 운영하게 되면서 담당동아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카페를 하나 개설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1년 동안 동아리 카페를 운영하며 동아리 원들의 게시물을 관리했던 것.

이 두 개가 끝이다. 재수학원에 다닐 때에는 컴퓨터는 아예 만져보지도 못했다. 이런 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보건의료산업학과의 전공기초 수업으로 정미현 교수님의 "컴퓨터 실무활용"과목을 만나게 된 것이다. 학점을 생각하면 아뿔싸인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친해질 기회가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

보건의료산업학과의 1학년 전공기초 수업이었으며, 우리 과 1학년을 담당하신 정미현 교수님의 수업이었다. 교과목 이름은 '컴퓨터 실무활용'이다. 교과목 개요는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기본지식과 최신 컴퓨터 기술 동향에 대하여 학습하고, Office 프로그램들의 기본 기능과 실무 예제의 실습으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님이 기대하셨던 학습 성과는 '업무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는 Office 프로그램에 대해 기초부터 효과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여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실행할 수 있다.'였다. 총 45명가량의 신입생들이 함께 한 수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편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수업은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지식을 쌓고 엑셀과 한글을 실무적으로 다루는 것에 주력했다.

- 나의 경험에 기초한 이 수업의 중요성 -

기본적으로 한글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에 집중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컴퓨터에 대해 배우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실무적인 능력이 부족한 채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내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보고서 표지에 있는 학교 로고를 가져오는 방법도 정미현 교수님께서 직접 학교 홈페이지에서 따오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학생 때 교무실에 들어서 생긴 일화가 기억이 난다. 그 때 선생님들끼리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쌤이 수학 성적 산출해주시면 끝나. 엑셀을 정말 잘 다루시거든. 반 별로 정리해 주실 거야.” 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난다. 선생님 컴퓨터에 있는 엑셀을 다루기 어려워 보였다. 그리고 ‘저것들로 어떻게 평균을 내며 월 하신다는 걸까’ 라고 느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정기고사를 치른 후 나온 성적 확인란 모두 엑셀을 이용한 것이다. 엑셀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과한 것이 아닌 것 같다.

- 교수님의 수업준비 -

정미현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 모두 네이버 폼으로 진행되는 사전 설문을 거쳤을 것이다. 설문 내용에는 꼭 배우고 싶은 것들, 교수님께 바라는 점들, 평가 비율, 평가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교수님은 모든 학생의 설문이 끝나면 익명으로 투표된 결과들을 스크린에 띄우신다. 그래서 자연스레 모두 다수의 학생들이 어떤 항목을 원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대부분이 원하는 수업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수님은 학생들과의 단체 카카오톡방도 만들어서 공지도 직접 전달을 해주신다. 또한 E-learning 학습 동영상을 올려주셔서, 학생들에게 예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며 그 부분도 꼭 공지를 해주신다.

- 교수님의 지식 및 열정 -

교수님은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에 계시며 컴퓨터 관련 부분을 끊임없이 수업하시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업시간에 배운 A형, B형, C형에 대해 공부해오라고 하신다.(이 유형 모두 교수님이 저자이시다.) 그럼 실제 수업은 교수님께서 이 모든 부분을 합쳐서 새로운 D형 유형으로 만들고 출제하셔서 골고루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

교수님의 열정은 교수님의 개인 수업 인터넷 카페 운영에서 엿볼 수 있다. 이미 회원 수는 1000명 이상에 달하기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시스템으로 들었는지 알 수 있다. 교수님이 보유하고 있는 방식이기에 더 나은 방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을 것이다.

내가 교수님 수업 중에 가장 좋았던 부분은 ‘수업내용 동영상 녹화’였다.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수업을 빠진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놓쳤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복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님의 개인 카페에 올려지는 동영상들은 유튜브와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의 강의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수업시간에 원격제어를 통해 학생들 개개인의 진도를 파악해 주셔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진도에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다. 어려워하는 학생부터 쉽게 느끼는 학생들까지 다양한데,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주로 들어주셔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이끌어주시려고 하신다.

- 평가 방법 -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과제물	참여도	기타
20%	60%	10%	10%	5%	5%

중간고사는 필기시험으로 실시되었다.

문제의 유형은 객관식이었으며, 국가공인자격 IT+정보활용지식과 컴퓨터활용능력필기 2급 필기시험의 최근 기출문제 중 진도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일부 변형되어 출제되었다.

- 나의 공부 방법 : 교수님이 직접 준비해주신 PPT 이론 자료에는 중요한 부분에는 빈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빈칸을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채우는 방식이었다. 수업에 집중해야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듣는 계기가 되었다. 각 소제목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았고, 직접 빈칸을 가리며 공부를 하였다.

Chapter1 컴퓨터의 개요

정보 부분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가 가지는 5대 기능에 집중했다. ‘컴퓨터의 발전 과정’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발명시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고대의 계산기부터 현대의 컴퓨터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폈다. 특히 제 4세대 컴퓨터와 제 5세대 컴퓨터에 대해 자세히 공부했다. 또한 자료표현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는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의 차이를 나타낸 표에 집중하였다. ‘컴퓨터 속 데이터’ 부분에서는 데이터 용량 같은 부분은 실제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바이트와 비트에 대해 확실히 익혔다. 또한 진법의 변환은 교수님께서 직접 칠판으로 예시를 들어가며 수업을 하실 정도로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학습했다.

Chapter2 하드웨어 (1),(2)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입력장치, 중앙처리장치, 출력장치 등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였으며 내가 평소 알던 지식들과 비교해가며 실무적인 지식을 쌓는 식으로 공부하였다.

기말고사로는 한 학기 동안 배운 한글과 엑셀 프로그램에 대한 실기시험으로 실시되었다.

문제의 유형 및 난이도는 국가공인 자격 IT + 워드프로세서, IT + 스프레드시트 기출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출제 되었다.

- 나의 준비 방법 : 수업 동영상 녹화를 철저히 활용하였고 엑셀과 한글의 A형, B형, C형을 일정 횟수 이상 반복해보았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친구들이나 교수님께 질문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주로 엑셀의 기본 함수나 고급함수를 이용할 때에 헛갈렸기에 직접 손으로 써보거나 타 동영상 시청까지 하였다.

출석 : 지각 2번까지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결석 1회 당 -1점, 지각 3회시 결석 1회로 간주하여 -1점 처리 되었다. 규정으로 인정되는 유고 결석의 경우 출석으로 처리되며, 교수 재량으로 인정한 유고 결석의 경우 지각으로 처리되었다.

- 나의 준비 방법 : 기숙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각이나 결석을 한 적은 없었고, 최대한 수업에 일찍 참여하려고 노력했다.

과제물 : 실습과제 1회는 10점 만점으로 처리하였다.

- 당일 과제는 5점 만점으로 주차별 제출한 당일 수업 시 완성한 파일의 제출 여부만으로 점수 부여하였다.

- 나의 준비 방법 : 교수님께 배운 한글 프로그램 사용방법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과제였다. 노트북의 성능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내 노트북을 실제로 고를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보고서에 교수님께 배운 부분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

당일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날그날 충실히 한 부분을 카페에 올리다보니 결과물을 제출하려는 학생들의 집중도도 상당히 높았다.

- 교수님의 수업을 소개하는 근본적인 이유 -

사실상 정미현 교수님은 내 생각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투자해주신다. 그래서인지 많은 타 학과학생들도 정말 잘 가르쳐 주신다고 칭찬하였고, '에브리 타임'등 익명성의 학교 시간표 사이트에서도 정미현 교수님이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준다는 평이 많다. 사실상 내가 듣는 전공 수업을 타 학과 학생들에게 좋다고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정미현 교수님께서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교양 수업을 여셨다. 컴퓨터는 우리가 앞으로도 충분히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취업에 나간 선배들이나, 인턴으로 회사 생활을 해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수많은 작업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방학 때 시간을 내어서 컴퓨터 학원 다니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그러기보다는 학교를 다니며 자연스럽게 열심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미현 교수님의 수업들을 추천하고 싶다. 현재, [SNS의 이해], [사진편집 디자인], [동영상 제작활용], [엑셀 실무활용]등의 강의가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한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분명 학기가 끝난 후에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소감-

일례로, 내 친구가 얼마 전 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나에게 노트북 추천을 부탁한 적이 있다. 브랜드 추천을 하는 면에서는 마땅히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CPU 종류 중 코어 i7-6세대, i5-6세대 i3-6세대 등이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 물었을 때 내 지식이 힘을 발휘하는 것을 느꼈다. 이 부분은 앞서 중간고사 때 하드워드(2)에 대한 이론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친구에게 자신 있게 대답하였다. “응 그게 인텔 모바일 cpu라는 건데, i3는 보급형(저가,업무/사무용)이고, i5는 중급형이고, i7은 고급형(전문가/매니아용)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넌 i5나 i3를 사면 충분해,”라고 말이다. 친구는 나에게 이제 ‘컴알못(컴퓨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벗어났다며 신기해했다.

지식을 깨닫게 되고 그걸 응용할 수 있을 때의 뿌듯함은 사실 찾기가 힘든데, 이 수업을 듣고 나니 실제로 빈번히 수업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게 되면서 ‘더 열심히 들을 걸’이라는 후회가 남을 정도다. 현재 나는 1학기 수업의 연장선으로 [보건의료산업 정보분석정리]수업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엑셀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있다.

교수님의 학습 컨텐츠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몸소 느끼는 바이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녹화되어 있는 교수님 수업을 통해 복습도 많이 하며 내 실무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힘쓸 것이다.

장려상

이동렬 융합경영학과

‘말과 글’은 A+ PPT를 만들기 위한 지름길

1학기 때 수강했던 과목 중 다른 학생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강의는 이민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글’입니다. 이 수업은 1학년에게 교양 필수로 이 강의를 반드시 수강해야 하므로 차의과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모두 수강했거나 수강해야 할 과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업이 제가 1학기 때 수강했던 과목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학 공부에서 기초가 되는 부분을 배우므로 이 강의를 들을 때 꼭 열심히 들으라는 측면에서 이 수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교양 수업은 2학점이며 인문학 글쓰기와 말하기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주된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과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기초적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인문학과 관련한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자기소개서와 연보 작성을 과제로 하여 글쓰기를 함양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교수님께서 PPT로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부터 과제가 있습니다. 강의 제안서를 다음 수업 시간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교수님께 수업 방식과 평가 방식을 어떻게 해주셨으면 하는지, 말하고 싶은 기타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매주 1시간은 조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대학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책으로 진도를 나갑니다. 조별 발표가 모두 끝나면 2시간 동안 책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자기 연보, 자기소개서를 과제로 공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말고사를 봅니다. 올해 신입생은 1학기 때 중간고사를 시행하지 않아 현재 1학년인 저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강의계획서를 보면 중간고사가 끝난 후, 토론 대회와 감상문 작성이 과제로 있는데, 제가 1학기 때 이 수업을 수강할 때는 중간고사가 없었기 때문에 토론 대회와 감상문 작성을 하지 않고 책 진도를 더 많이 나갔습니다.

조별 발표 과제는 꽤 복잡한 편입니다. 발표를 하기 전 발표 계획서를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club에 탑재하고 발표 후에는 발표했던 PPT를 탑재하고 기말고사를 보기 2주 전에는 발표했던 것에 대한 결과 보고서까지 탑재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조별 발표의 주제는 ‘청년 혹은 사회 초년병이 꼭 알아야 할 인문학 사전 만들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인문학 용어, 개념 혹은 이론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조별 발표를 누구와 함께 하는 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과제로 조별 발표 계획서를 club에 탑재하라고 하십니다. 조별 발표 인원은 총 2명으로 교수님께서 학번 순서대로 조를 만들어 주시고 발표 일자도 학번 순서대로 정해주십니다. 발표 계획서에는 발표할 인문학 용어/개념 혹은 이론과 이것을 발표하는 이유, 그리고 발표 개요를 작성합니다. 발표 개요에는 인문학 용어/개념 혹은 이론을 어떻게 찾았는지, 나의 삶과 미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말이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PPT에 사용할 영상, 이미지, 음향, 음악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조별 발표 PPT에는 발표 계획서에 작성되어있는 발표 개요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표할 인문학 용어/개념 혹은 이론과 관련된 사례,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쓰이고 왜 사용하는 지 등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참고 문헌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조별 발표를 할 때, 나머지 학생들은 발표하는 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

다. 교수님께서 발표가 시작할 때 점수표를 나눠 주시는 데 각 항목에는 발표자의 발표 태도, 발표한 조가 사용한 인문학 용어가 인문학 사전에 탑재하는 것이 적절한 지, 발표한 PPT를 잘 만들었는지 등이 있습니다.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발표자들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갖습니다. 그 후에는 교수님께서 발표한 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조별 발표가 끝난 후, 기말고사가 시작하기 2주 전에 club에 발표 결과 계획서를 탑재해야 합니다. 발표 결과 계획서에는 조에서 발표했던 개념에 대한 설명과 출처를 작성해야 하고 청년이 왜 이것을 알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길게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 점수를 더 좋게 얻기 위한 도움을 주자면, 기말고사 때 자신의 조에서 발표한 인문학 용어가 왜 청년과 사회초년병이 알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 쓰는 문제가 나오므로 발표 결과 계획서를 작성할 때 열심히 고민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별 발표가 모두 끝나면, 과제로 자신의 연보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계속 2시간 동안 책 진도를 나갑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먼저 책에 나와 있는 연보 작성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1살 때부터 현재 나이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연보 작성은 성적에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보를 작성하는 이유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살아오면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자신의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쓰는 자기소개서이므로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 학생들이 제출한 연보를 보고 자기소개서에 어떠한 내용을 쓸 수 있는 지 도움을 주십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코멘트를 보고 자기소개서, 자신의 장점과 자신이 보완해야 할 점, 그리고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교재 수업 내용은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 올바른 문장부호와 띄어쓰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올바른 글쓰기에 대해서 배울 때는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같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각주 달기, 참고 문헌 표기법에 대해서 배울 때는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각주 달기, 참고 문헌 표기법을 배울 때는 1명씩 앞으로 나와 칠판에 적혀 있는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하는 문제를 풉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작성한 답을 확인하시고 만약 틀렸으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각주 달기와 참고 문헌 표기법은 2시간 동안 계속 수업하고 시험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므로 이 부분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말고사 문제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올바른 글쓰기 내용을 토대로 올바르게 쓰지 않게 쓰인 단어, 문장과 문단을 보여주고 올바르게 고쳐 작성하라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club에 올린 강의록 PPT에서도 몇몇 문제가 출제되므로 책만 보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봤던 기말고사 문제의 난이도는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업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각주 달기 문제와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문제가 특이하게 나오므로 더 주의해서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 교수님의 수업 방식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이 더 함양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이민호 교수님께서 조별 발표를 청년이 알아야 할 인문학 사전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하셔서 대학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인문학적 개념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조별 과제를 할 때 초반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교수님께서 사회에 처음으로 발을 딛는

사회 초년병, 청년이 꼭 알아야 할 인문학 사전을 만드는 것이므로 고등학생이 알고 있는 인문학 용어, 개념 혹은 이론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회 초년병이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이지만 대학생이 흔히 알지 못하는 것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고 초반에는 주제에 대해서 이해를 명확히 하지 못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발표하는 친구와 함께 학교 도서관에서 인문학과 관련된 책을 읽으며 ‘귀스타브 르 봉의 군중심리’ 책을 보고 주제를 선동과 관련된 것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티비 캐스트에서 선동과 관련된 유명 인물들을 조사하고 선동과 관련된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가 발표하기 전, 다른 조에서 선동과 매우 비슷한 인문학적 용어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저희가 사용하려고 한 선동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례를 먼저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조는 선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목을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 ‘피리 부는 사나이’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수님께서 다른 조의 발표 PPT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제목 선정한 것이 좋지 않았다고 예시로 ‘피리 부는 사나이’를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주제로 변경하기 위해 인문학 용어에 대해서 다시 검색하여 ‘바넘 효과’라는 인문학 용어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서 발표 준비를 다시 하느라 힘들었지만 제가 발표 주제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여 ‘바넘 효과’라는 사회 초년병이 꼭 알아야 하는 용어에 적합한 단어를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서 찾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문학 용어를 찾을 때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바넘 효과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 EBS 다큐프라임 등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며 바넘 효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게 되어 저의 인문학 지식이 더 많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교수님께서 조별 발표를 했던 인문학적 용어와 청년이 이 용어를 왜 알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 기말고사 시험문제로 서술형식으로 출제하신 것입니다. 발표 결과 보고서에 제가 발표한 바넘 효과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하고 정리를 하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 초년병이 알아야 할 인문학 사전 만들기’라는 주제를 첫 수업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이어가 인문학 용어를 더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해서 폭넓게 알고 있으면 다방면으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과 글 수업을 통해 ‘사회 초년병이 알아야 할 인문학 사전 만들기’ 조별 과제를 하면서 정점 이동 효과, 사회 유기체설, 해석 수준 이론 등 새로운 인문학 용어를 알게 되어 저의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수업을 통해 PPT를 잘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고등학교 때 사용하지 않았던 파워포인트를 통해 PPT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 전, PPT를 배운 적이 있어서 많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쉽지 않았고 교수님께서 조별 발표 PPT를 엄격하게 평가하셨습니다. 맨 처음 조가 발표를 했을 때 교수님께서 PPT를 보면서 느낌표를 3개 이상 쓴 것을 지적하며 3개미만으로 쓰라고 하셔서 놀랐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느낌표가 많으면 이것에 대하여 감탄을 한 것이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 PPT에 글을 작성할 때, 원색이 진하므로 사람들에게 강조할 부분을 더 쉽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 원색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원색이 눈의 피로를 주므로 원색이 아닌 다른 색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PPT를 더 올바르게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PPT 평가를 엄격하

게 하셔서, 교수님께서 다른 조가 만든 PPT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마다 노트에 어떻게 PPT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적으며 많은 노력을 하여 다행히 제가 발표를 할 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보 작성을 할 때는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소개서와 자신의 장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적기 위해 자신의 연보를 작성합니다. 이 연보를 보고 교수님께서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제목을 최대한 생각하셔서 적어주십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연보를 열심히 적어서 제출했지만 교수님께서 제가 적은 연보에서 뽐을 만한 좋은 것이 없다는 코멘트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제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저의 연보를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저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자신의 장점과 보완해야 할 점에는 모두 제목을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는 8줄, 자신의 장점과 보완해야 할 점은 4줄로 짧게 작성해야 합니다. 제목을 재밌거나 비유적으로 해야 해서 제목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며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어떤 비유 표현이 있는 지 계속 탐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의 성격에 비유하여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만든 자기소개서 제목을 보니 쉽고 간편한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과제를 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제목 선정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다른 교수님들은 과제를 제출하라고 공지를 하고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면 바로 성적에 반영하는데, 이민호 교수님께서서는 과제를 바로 성적에 반영하지 않고 학생들이 더 좋은 글을 쓰도록 하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글을 어떻게 써야하는 지에 대해 말해주셔서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을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하신 것 같아 이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조별 발표결과계획서를 제외한 모든 과제가 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을 작성할 때, 교수님께서 '김연아', '반기문'과 같은 유명인들이나 연예인을 선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인물을 써야 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제를 제출한 후 이런 식으로 과제를 한 것이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취직을 할 때 자신의 전공과 관련시켜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야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물을 말하지 않으면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PPT를 만드느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 친구들도 모두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과 글' 발표 PPT를 만든 후 다른 전공 수업, 교양 수업에서 조별 발표를 위해 PPT를 만들 때 이 교수님의 말씀대로 하여 잘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말과 글 수업을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제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업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PT를 만들 때마다 계속 제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글쓰기 실력이 함양되었으니 앞으로 좋은 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진짜 교수님 말대로 PPT에서 글을 작성하고 배경을 만들 때 교수님이 발표 PPT를 보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떠올라 2학기 때 마케팅 원론, 영어 교양 수업에서 발표 PPT를 만들 때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이 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은 모두 이 수업이 중요했던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신입생들에게 꼭 들으라고 추천하고 할 것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PPT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 하지 않았던 PPT 발표를 주로 합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PPT를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들 수 있고

교수님들이 어떤 PPT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문학적 사전 만들기 발표를 할 때, 교수님께서 잘 만들어진 PPT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직접 PPT를 2개를 만드셔서 club에 탑재하셨습니다. 처음으로 PPT를 이용해 발표를 하는 것이었지만 교수님께서 만드신 PPT를 보고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예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에 과제를 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과 글’ 교양 수업은 1학년 전공 필수 수업이므로 선택의 여지없이 수강해야 하지만 꼭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과제를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인문학적 사전 만들기 발표를 통해 대학에서 자주 등장하거나 대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문학적 용어, 개념 그리고 현상들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인문학에 대해서 더 잘 알면 교양 수업뿐만 아니라 학과 공부를 할 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적 토대를 통해 길러진 창조성과 사고의 유연성, 문화적 소양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인문학은 중요한 학문입니다.

인문학이 보통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과목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재미없고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호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시면 교수님께서 수업을 흥미롭게 진행하시므로 인문학에 대한 재미가 생길 것입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교수님께서 수업이 지루하지 않도록 흥미롭게 수업을 진행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수업 때 이민호 교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 자신과 동명이인인 연예인 ‘이민호’ 사진을 보여주며 소개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특유의 말투가 있으셔서 말과 글을 수강했던 친구들 중 교수님이 유머러스하다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3일에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므로 투표한 것을 인증한 사진을 찍어 club에 탑재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4월 13일에 동사무소에 방문한 것을 사진 찍어서 club에 탑재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 사진을 보고 선거 위원회 직원 같이라며 엄숙하다는 댓글을 작성하셨습니다. 저희 학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학생들이 많아 투표를 한 인증 사진을 많이 올릴 줄 알았지만 저 밖에 올리지 않아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투표를 인증한 사진을 보시고 좋아하시고 교수님과 사진을 통해 소통을 하여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올바른 자세를 갖는 시민이 되자며 인증 샷을 찍어오는 숙제를 내주신 교수님은 제가 수업을 듣는 교수님들 중에서 오로지 이 교수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이민호 교수님은 특별하고 다른 교수님과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과 글’ 수업 교수님께서 평가를 엄격하게 하셔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평가하는 만큼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이므로 공정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재를 통해 올바른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등을 배우면서 자신의 필력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로 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은 나중에 취직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과 글’ 수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대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들입니다. 이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수강하기 전보다 인문학적 소양이 더 향상되고 특히 다른 수업에서 발표 PPT를 만들 때 매우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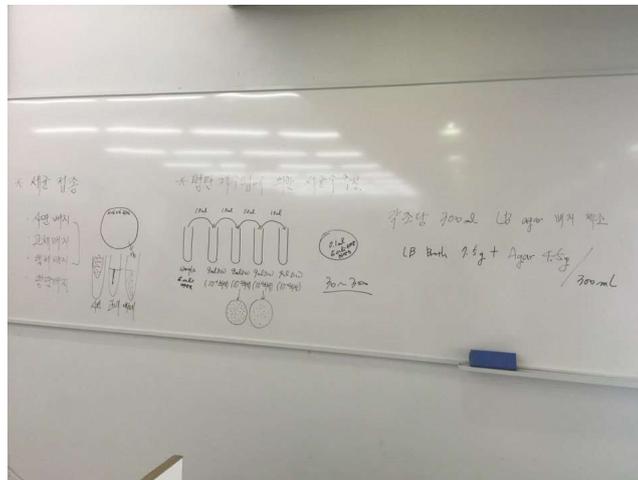
장려상

조윤희 바이오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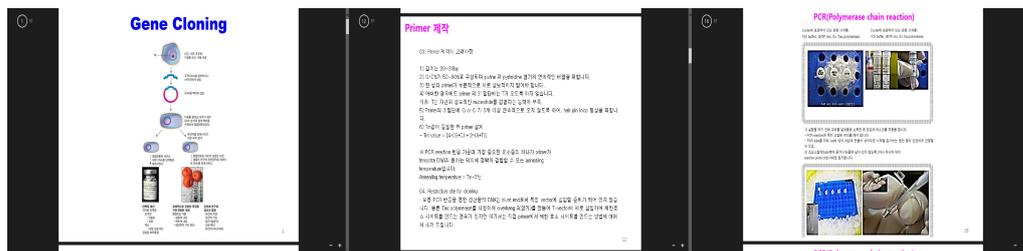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미생물학 실험

저는 2학년이 되고 어떤 수업을 들을까 매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공 선택인 유수인 교수님의 '미생물학 실험'을 신청했습니다. 미생물학 실험이란 말 그대로 미생물을 이용해 여러 실험을 하는 것으로 바이오공학과 전공 선택 중 하나입니다.

같은 전공 선택 중 임대석 교수님의 '미생물학'을 듣지 않는 저는 혹시 실험도중에 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아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나 매우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험 전 유수인 교수님께서서는 칠판에 충분한 이론 설명을 해주시고, 참고자료와 ppt를 준비하셔서 강의 듣는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셔서 미생물학을 듣지 않고 실험을 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험 내내 조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상황을 봐주시므로 저뿐만 아니라 바이오공학과 비전공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전 칠판설명입니다.)



(교수님께서 매번 준비하시는 참고자료와 ppt의 예시입니다.)

미생물학 실험 과목 특성 상 배지나 멸균한 소도구 등 미리 준비해야하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실험 때 마다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미리 준비 해 놓으셔서 실험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의 효율을 높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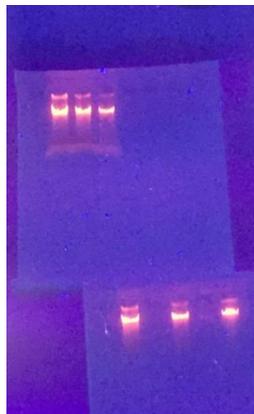


(교수님께서 실험 전 미리 준비해주신 배지입니다.)

실험한 모습을 몇 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실험은 첫 실험인 배지에 대장균을 접종해보는 실험입니다. 오염되지 않게 조심히 실험하고 접종하는 도구들을 처음 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네 번째 실험인 DNA의 전기영동입니다. 매번 책에서만 보던 전기영동을 직접 해보고 형광 밴드를 눈으로 관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실험이 끝나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써야하며 각 양식 항목에 상중하를 매겨 보고서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매주 쓴 보고서와 기말고사 성적으로 총 성적을 평가합니다.

일시	2016년	월	일	학번	성명
실험제목					
Abstract	<p>여기에서는 실험전체의 요점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이 읽어보았을 때 실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p> <p>실험목적, 원리, 실험방법 또는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간단히 언급하고 실험결과에 대한 평가도 해본다.</p> <p>즉, 실험의 배경, 목적과 의의, 결과 등을 5문장 이내로, 반 쪽 정도에 걸쳐 쓴다.</p>				
Data and Results	실험결과를 알기 쉽게 요약한다.				
Discussion (가장중요)	<p>실험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다. 기존의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설명해 나갈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p> <p>따라서 나름대로 가설도 세워보고 그에 따라 실험을 분석할 수도 있어야 한다.</p> <p>(어떤 학생은 여기서 오차의 원인만 단순히 늘어놓는데, 오차의 원인은 Discussion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그렇게 쓰지 않도록 한다. 또 일부 학생들은 일어난 현상들만 나열해 놓고 마는데 이럴 경우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걸로 간주하고 감점할 수밖에 없다.)</p> <p>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실험 방법의 개선이나, 실험을 통해 알고자 하는 원리를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실험을 제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실험이 예상만큼 잘되었는지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고 결론을 내린다.</p> <p>실험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글쓴이의 모든 역할을 발휘해서 쓴다.</p> <p>오차의 원인만 늘어 놓지 말고, 실험에 대한 평가를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하도록 한다. 또, 개선점 등,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공, 제안하도록 한다.</p> <p>필요하면, 참고서적을 뒤져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의 학문적 의미를 따져보며 토의한다.</p>				
Reference	<p>* 지저, 책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쪽</p> <p>Oxtoby & Nachtrieb, Principles of Modern Chemistry, 4/ed., Saunders College Pub, 1996, pp. 12-15.</p>				

(이것이 보고서의 양식입니다.)

매 실험의 목적, 원리, 실험방법, 가설 등을 미리 총정리를 하는 Abstract과 실제 실험을 하고 난 후의 결과만을 적는 Data and Results,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Results의 이유와 실험 오차 이유, 원리 등을 설명하는 Discussion으로 크게 나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쓸 때 참고했던 서적이거나 논문을 알리는 Reference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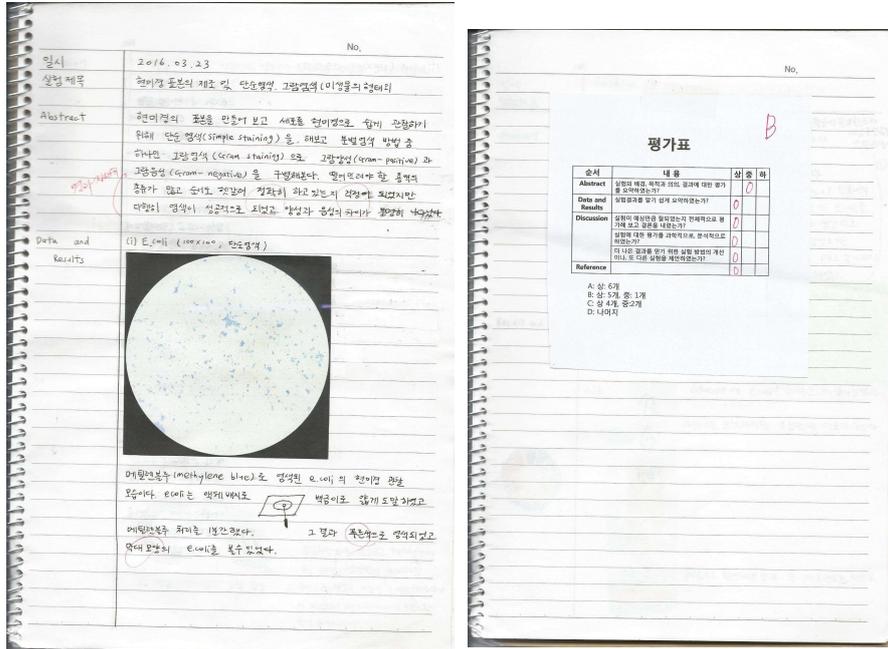
이렇게 양식대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우수한 교수님께서 아래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철저히 공정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평가표

순서	내용	상	중	하
Abstract	실험의 배경, 목적과 의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였는가?			
Data and Results	실험결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였는가?			
Discussion	실험이 예상만큼 잘되었는지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고 결론을 내렸는가?			
	실험에 대한 평가를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하였는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실험 방법의 개선이나, 또 다른 실험을 제안하였는가?			
Re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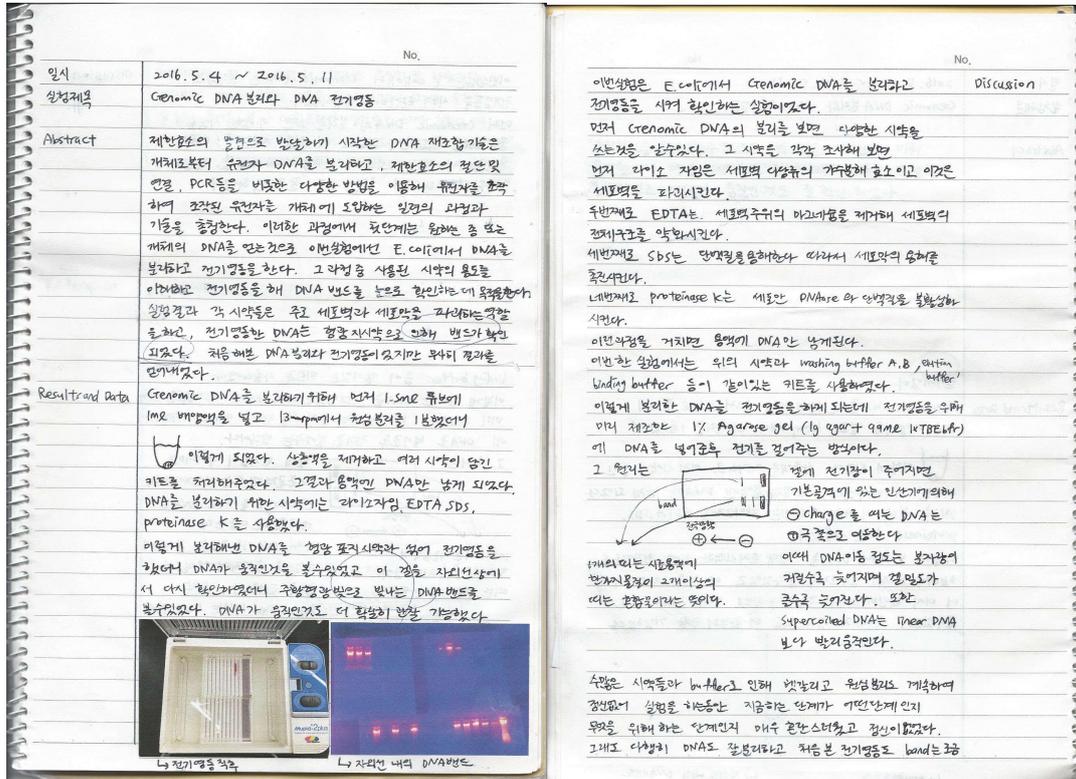
A: 상: 6개
 B: 상: 5개, 중: 1개
 C: 상 4개, 중: 2개
 D: 나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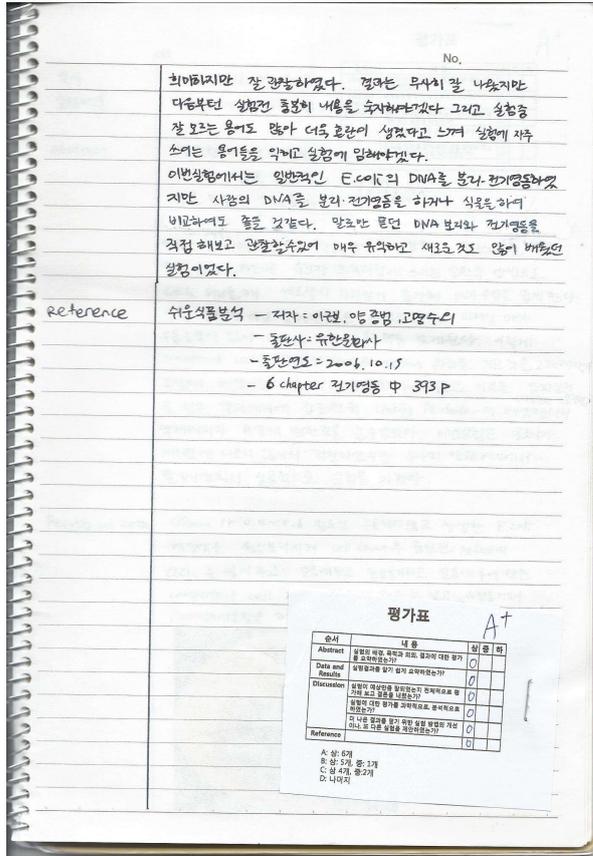
다음은 제가 쓴 실험보고서 중 하나였던 '현미경 표본의 제조 및 단순염색, 그람염색' 으로 실제적인 보고서와 평가방식입니다.



첫 보고서이니 내용도 6페이지 분량으로 매우 많고 열심히 적었지만 Abstract의 결과내용 부족으로 평가에서 B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일 인상 깊은 실험이었던 'Genomic DNA분리와 DNA전기영동' 실험보고서 입니다.





3페이지로 글의 양이 확연히 줄었지만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었고 깔끔해졌기 때문에 평가표에서 A+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글의 양이 아닌 평가표대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평가가 매겨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생물학 실험 수업은 다른 여느 실험보다도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생물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어서 미생물의 '미'에 대해서도 모르던 저에게 여러 미생물들과 그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들, 그리고 실험실 유의사항과 필요한 소도구들을 익힐 수 있는 꼭 필요한 수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금선, 백금미, 오토클레이브 등 다양한 기구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유수인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미생물쪽 직업인 식품기사에 대해 새로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고 흥미도 생겼습니다.

'미생물학 실험'은 바이오 쪽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쉽고 재미있게 실험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실험스킬도 늘릴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수업입니다. 담당 교수님이신 유수인 교수님께서서는 철저한 사전 자료 준비와 필요한 재료준비로 실험 때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항상 노력하시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시어 학생들의 최대한의 이해를 이끌어 내 주십니다. 특별하고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미생물학 실험'을 저는 좋은 수업으로 추천합니다.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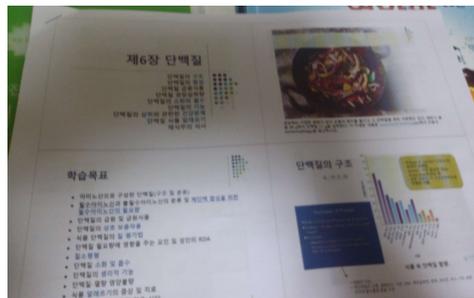
조혜란 식품생명공학과

식품과 건강

좋은 수업이란?

제가 수강하고 있는 ‘식품과 건강’ 수업은 전공필수 과목입니다. 전공필수 과목이기는 하지만 1학년 수업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이거나 크게 어렵지 않고, 배울수록 흥미로운 수업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선택할 때 관심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분야를 선택하곤 하는데 식품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식품과 건강’ 강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른 과목들을 수강할 때 실생활에 접목할 수 없는 내용 때문에 ‘이 과목은 시험만 아니면 아무 곳에도 쓸모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 ‘식품과 건강’ 수업은 식품의 소비와 인체의 건강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과 학생들도 많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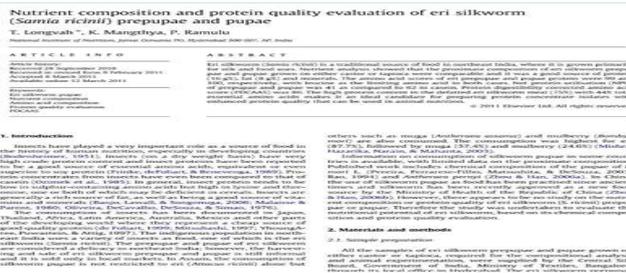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강의의 조건 중 첫 번째는 강의준비입니다. ‘식품과 건강’의 조형용 교수님께서서는 수업 1~2일 전에 미리 강의 자료를 직접 학생 개개인의 메일로 보내주셔서 미리 수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강의 자료를 미리 받기 때문에 보내주신 강의 자료를 수업 전에 미리 확인하고, 교재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미리 강의 자료를 받는 것의 장점은 한번이라도 강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 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의 자료를 미리 보내주시는 것이 사소한 일 같지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수업 시간에 더 집중 할 수 있었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다른 과목의 담당 교수님은 학생들의 요구에도 수업자료를 미리 보내주시지 않아, 수업시간에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강의의 조건 중 두 번째는 과제입니다. 과제는 수업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채우고, 직접 경험해보고, 복습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과 특성상 영어 원서를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했는데, 한번은 교수님께서 과제로 영어 원서를 해석해오라는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기만 했습니다. 물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저희가 과제를 완성해서 교수님 메일로 보내면 일일이 확인하시고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벽한 과제를 만들어 다시 제출했습니다. 만약 피드백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저는 잘못된 정보를 옳은 정보로 믿은 채 지나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기를 수 있고, 그 과목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유익한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별과제 중에 하나로 식품성분표시에 대해 조사하는 과제를 받았었습니다. 사실 매일 접하는 식품이고, 그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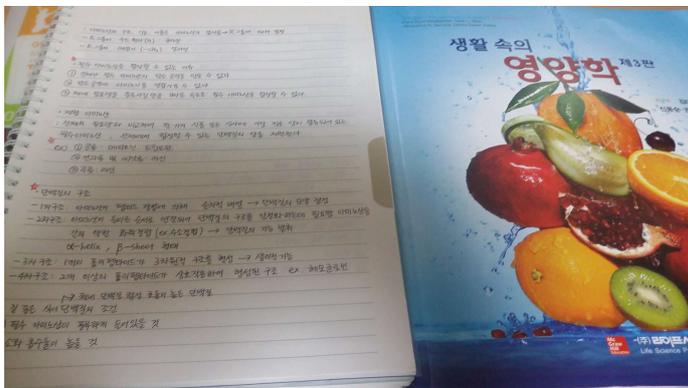
에 붙어있는 영양성분표시이지만 관심 있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이 과제를 위해서 저는 백화점과 마트를 찾아다니며 식품을 조사했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계속 식품성분표시를 사진으로 찍느라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힘들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십 가지 식품의 영양성분표시를 분석하고 나니 이제 어떤 식품이 좀 더 몸에 좋은지, 어떤 식품이 기능성 식품인지, 첨가물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식품성분표시를 보고, 어떤 식품을 사더라도 식품성분표시를 보고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은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 과제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제의 모습)

<해석>
Introduction
 곤충들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인류 영양의 역사에서 음식의 원천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곤충들은 함량이 높은 미가공의 단백질 식품이고, 곤충 단백질은 콩 단백질과 동등하거나 심지어는 조금 더 우수한 수준을 가진 필수 아미노산의 좋은 근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곤충에서 농축된 단백질은 삼키기 까다로운 단백질과 비교되어오고 있다. 보통, 곤충 단백질은 함량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함량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시제품에서 부족할지도 모르는 리신과 트레오닌이 함량이 낮은 곤충들은 일반적으로 비단과 무지개나 흰색의 부하 인자이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강의의 조건 중 세 번째는 공정한 평가입니다. 평가는 학생들이나 교수님에게나 민감한 부분입니다. ‘식품과 건강’ 강의의 평가는 두 번의 퀴즈(15%), 중간고사(30%), 기말고사(40%), 개인별 과제(10%), 조별 과제와 발표(10%), 출석(10%)으로 이루어 집니다.



(‘식품과 건강’ 교재와 필기노트)

‘식품과 건강’이 전공기초과목이다 보니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사실 저의 공부 스타일은 시험을 치루지 않으면 공부를 소홀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외에도 두 번의 시험을 더 봅니다. 물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여러 번의 시험은 그리 달갑지 않은 부분일 것입니다. 이제 겨우 1학년인 저에게 경쟁은 마냥 숨 막히고,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시험이 어렵기도 하지만 시험을 치르고 나면 아는 것도 많아지고 똑똑해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또, 그동안 필기 해놓은 공부노트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감에 공부를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학기 들어서 이미 한 번의 퀴즈와 중간고사를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시험과 다르게 퀴즈 점수의 경우 170점이었고, 중간고사의 만점은 405점이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만점이 높은 만큼 다음 시험에서 만회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더 억척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문제도 교재와 강의자료 구석구석에서 꼼꼼히 나오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로는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습니다.

시험 이외에 조별과제로도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별과제의 경우 저희 조는 한 달 이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조별과제에 대해 안 좋은 평가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별과제를 내주시는 이유가 조원들과 협동심을 기르고 함께 공부하라는 의미인데, 조원들과의 불신만 생긴다는 이야기와 조별과제는 사회의 악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원들과 함께 하다 보니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 수행했고, 모두가 조화롭게 잘 해나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조별과제 중에 마지막 단계인 발표만을 남겨 놓은 상황인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강의의 조건 중 네 번째는 강의자의 열정입니다. ‘식품과 건강’ 수업은 첫 수업부터 특별했습니다. 보통 짧게 소개만 하고 끝나는 첫 주 수업임에도 조형용 교수님께서서는 강의의 목적과 앞으로 수강생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열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이전과는 다르다며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첫 주에 이렇게 수업하시면 몸서리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교수님의 열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두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단 첫 번째 수업뿐만 아니라, 매시간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의 얼굴을 익히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학생들보다도 더 수업에 일찍 오셨고, 수업 준비도 수업도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수업 준비와 수업을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은 비교적 많이 봤었지만, 조형용 교수님처럼 ‘학생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열심이신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업 내용도 자연히 알차고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의에 대해 소개할 때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식품과 건강’ 과목의 조형용 교수님의 장점은 수업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 오십니다. 수업 전에 미리 강의 자료도 수정하시고, 관련 서적도 찾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들과 용어들을 계속해서 공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조형용 교수님은 새롭고 혁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끔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학생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동안 주입식 공부를 하는 제가 본 받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형용 교수님께서서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항상 학생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메일로 연락하라고 하시고 답장도 바로 해주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함께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도 공부 이외에 많이 어울리면서 끊임없이 소통하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강의 주제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십니다. 저는 겨우 올해 대학생이 되어서 진로나 삶에 대한 그림은 백지상태입니다. 그래서 막막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의 진로 방향이나 삶에 대한 이야기,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교수님의 경험담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해주십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많은 격려도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도 해주시지만 꾸중도 하십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을 안 하거나 흐트러지면 혼을 내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학생들을 많이 아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소통이 빛을 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별과제를 진행할 때 수업시간에 여러 번 교수님께서 진행과정에 대해 확인하시고, 미팅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교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주신 과제가 아니라 쌍방향적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미팅을 통해 수집한 자료도 확인하시고 날카로운 질문도 하셨습니다. 질문은 학생들이 생각지 못한 허점을 찔렀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정곡을 찔러 지적하셨고, 다시 올바른 궤도에서 과제가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모두가 모르는 분야나 관련자료, 지식이 필요한 시점을 정확히 잡아내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이로써 토론이 더욱 풍부해졌고 원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정곡을 찔르는 질문이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러한 질문은 저에게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다른 과목에서 조별과제를 받았을 때는 학생들끼리만 과제를 진행하고 교수님께서서는 평가만 했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일이 점검을 해주시고 진행방향에 대해 가르쳐주셔서 저희 조는 해매지 않고, 좀 더 수월하게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른 강의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Index	<p>1. 발표 주제 및 목적</p> <p>2. 조사방법 및 조사장소</p> <p>3. 영양표시의 정의 및 의미</p> <p>4. CODEX</p> <p>5. 주요국가 Health claim 표시 규정</p> <p>6. 미국 식품의 종류</p> <p>7. 미국의 영양표시 제도</p> <p>8. 국내의 Health claim 비교</p>	<p>1. 발표 주제 및 목적</p> <hr/> <p>< 주제 ></p> <p>국외 식품의 영양 표시</p> <hr/> <p>< 목적 ></p> <p>1) 국외 식품 영양표시제도의 이해 2) 국내, 국외 식품 영양표시의 공통점 & 차이점 이해 3) 영양표시의 의미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해</p>
-------	--	--

(조별과제-발표자료)

그리고 제가 교수님께 감탄했던 부분은 학생들의 과제를 일일이 검토하고 피드백해주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의를 듣는 수강생의 수가 많다보니 교수님께서 그냥 과제 제출 여부 확인만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일일이 수정할 부분을 알려주시고, 수정된 메일을 새롭게 받으셨습니다. 피드백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언젠가 한번 이 '식품과 건강'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의 과제를 모두 확인하려면 1주일은 걸린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수업도 있으시고 바쁘실 텐데도 학생들에게 많은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기노트)

‘식품과 건강’ 강의를 통해서 저의 변화한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필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여학생들은 필기를 잘 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 저는 그런 편견을 깨는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공부 노트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기를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고, 필통을 들고 다니지도 않았고 삼색 볼펜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무조건 수업을 듣기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 기억력으로 수업시간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점점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식품과 건강’ 수업은 알아줘야 할 것들, 기억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시작했고, 필기를 하다 보니 핸드폰을 보거나 친구와 떠들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필기노트 사진은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시험공부를 하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본 노트입니다. 시험 전에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공부한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었고,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필기한 내용을 보니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필기노트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도 필기노트를 만들어 잘 정리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한 모습은 꼼꼼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기 전에, 고등학생 때도 공부를 할 때 꼼꼼하게 책을 안 읽고 대충대충 보고 공부했었습니다. 일명 수박 겉핥기식 공부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한번 치고 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치 제가 대충 보고 지나간 부분에서만 꼭 시험문제가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험을 한번 못보고 나서 그 이후로는 좀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만족감이 듭니다.

세 번째로 변화한 모습은 호기심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식품과 건강’ 수업의 장점을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 고등학교를 거쳐 오면서 저는 일방적인 수업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소통하는 방식이 수업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어도 머뭇거렸던 이전과는 달리 질문도 하게 되었고, 질문을 하다 보니 궁금한 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조금씩 스스로 찾아서 하는 자발적인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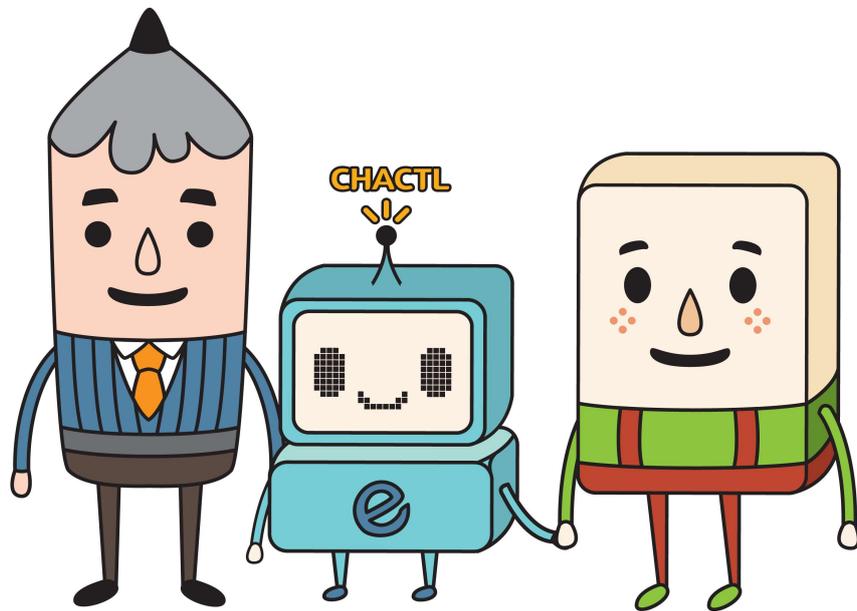
첫 강의시간에 강의 계획을 설명하실 때, 시험도 많고 개인과제, 조별과제와 발표 등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다 해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험이 많으면 학생들에게 안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기억하고 있는 것도 많고, 더 심화된 과목을 공부하는데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차근차근 한 걸음씩 저의 실력을 키워나다가 보면, 어느덧 처음보다는 많이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힘들지만 결국 학생들을 위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기 중 절반을 지나선 지금, 공부를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적까지 좋다면 더 좋겠지만 열심히 했기에 성적과 상관없이 종강을 하고나면 성취감을 느끼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과 건강’ 에세이를 마무리 하면서, 이 ‘식품과 건강’ 강의는 식품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식품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건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꼭 한번 들어보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하지만 편하게 수업을 듣고 좋은 학점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추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만 힘써서 단순한 식품 또는 건강과 관련된 지식 이상의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식품과 건강’ 수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길 추천합니다. 저도 ‘식품과 건강’ 수업의 담당

교수님인 조형용 교수님의 수업으로 전공 수업 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는 습관이 생겼고, 수업에 더욱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학생과 소통하며 교수와 학생이 함께 공부해 나가는 수업’입니다.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위한 강의 방법이 대학교 수업에서까지 이어진다면, 고등학교 수업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대학교의 목적이 학생들의 취업이나 학점을 위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진정한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한다면 수업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위해 ‘좋은 수업’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Ⅲ. 우수 리포트 공모전



최우수상

김소민 간호학과

<p>리포트 주제 선정 과정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p>	<p>생애 주기 별로 대상자 1-2명을 만나서 면담을 한 후, 면담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번 주는 학령기의 대상자를 만나야 했는데 마침 친동생이 학령기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다른 대상자로 친동생을 선택하여 면담을 시행하였다. 다른 대상자들과는 달리 약속을 잡지 않고 만날 수 있었기에 면담 준비 과정이 조금 더 수월했다.</p>
<p>기타 사항 (리포트 작성 과정에서 특별한 점, 조별 과제외의 경우 역할 분담 등)</p>	<p>리포트 작성 시에 포함해야 하는 이론가 및 이론들이 많아서 무척 힘들었다. 다른 생애주기 대상자들은 모두 아주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에 이론들을 적용하여 비교하기 어려웠지만 학령기 대상자들은 대부분 삶의 패턴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론들을 적용하여 올바른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평가하기 좋았다. 또한 다른 생애주기와는 달리 학령기의 대상자들은 인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미숙한 편이었기에 모든 질문을 쉽게 풀어서 해야 했다.</p>

건강증진과 비판적 사고

-학령기 1주차-



과 목 명: 건강증진과 비판적 사고
담당교수: 임지영 교수님
제 출 일: 2016년 11월 29일
학 과: 간호학과
학 번: 20152112
성 명: 김소민

의사소통 기록지

학 번 20152112
 이 름 김소민
 실 습 지 대상자의 집
 일 시 2016년 11월 25일
 총소요시간 1시간 10분

대상자 이름 김민재

연령: 만 9 세

성별 남

학생	대상자	면담진행에 대한 근거와 평가
<p>[도입]</p> <p>-민재야, 저번에 작은 누나하는 거 봤지? 작은 누나한 것처럼 너한테도 누나가 질문 할 건데 너가 대답만 해주면 돼. 누나 숙제로 해가야 하거든. 이거 한 다음에 엄마한테 말하거나 아빠한테 말 하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말해 줘도 돼. 대답하기 싫은 거 있으면 대답하기 싫다고 말해주고, 억지로 대답하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알았지?</p>	-응.	<p>-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상자에게 면담의 목적 및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줌으로써 면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 수 있게 해 주었으며 부담감을 완화시켜 주었다.</p> <p>-또한 면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며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p> <p>-대답하기 싫은 질문에 대해 스트레스/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었다.</p>
<p>[전개]</p> <p>1. 낯선 사람이랑 만났을 때 너는 어떻게 행동해?</p> <p>3. 아, 그러니까 너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너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p> <p>5. 그럼 어떻게 해?</p> <p>7. 어떤 대책?</p>	<p>2. 낯선 사람이 뭔데?</p> <p>4. 아니..</p> <p>6. 그냥 처음에는 말 안 걸고...그 친구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대책 세우고 그러는데.</p> <p>8. 그냥 친해지려고 세우는 거.</p>	<p>-대상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줌으로써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3번)</p> <p>-대상자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더 깊이 있는 면담을 진행하였다. (5번, 7번: 질문)</p>

<p>9. 아~ 그럼 친구 관계는 어때? 친구가 많은 편이야 아니면 적은 편이야?</p> <p>11. 단팥은 있어?</p> <p>13. 현우는? 현우도 너랑 단팥이잖아.</p>	<p>10. (손으로 수자를 세면서) 하나, 둘, 셋..... 많은 편이야.</p> <p>12. 음...두 명? 승준이랑 진혁이.</p> <p>14. 아~ 지금 같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만 되는 줄 알았지, 그럼 현우까지 세 명.</p>	<p>-대상자가 친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할 여유를 주며 기다려주었다. (9번; 침묵)</p> <p>-대상자가 빠뜨린 정보가 있는 것 같아 대상자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확인을 하였다. (13번; 확인, 직면)</p>
<p>1. 좋아하는 과목 있어?</p> <p>3. 과학? 왜?</p> <p>5. 싫어하는 과목은?</p> <p>7. 뭐야(응음). 그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뭔데?</p> <p>9. 왜?</p> <p>11. 지루하다는 거지?</p> <p>13. 어? 그러면 과학 말고 체육도 좋아해?</p> <p>15. 그럼 좋아하는 과목이 두 개인거지? 과학도 좋아하고, 체육도 좋아하고.</p> <p>17. 체육은 왜 좋은데?</p> <p>19. 이얼~ 너네 반이 이겼어?</p>	<p>2. 음...있어. 과학.</p> <p>4. 재밌으니까. 또 내 꿈이 과학자니까.</p> <p>6. 나머지 다 싫은데...</p> <p>8. 음.....사회?</p> <p>10. 재미가 없으니까.</p> <p>12. 응. 진짜 재미없어. 체육은 나가서 뛰어놀 수 있어서 장 좋은데.</p> <p>14. 응! 과학보다 더 좋아~!</p> <p>16. 응. 둘 다 좋아.</p> <p>18. 친구들이랑 나가서 뛰어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다른 반이랑 체육 같이 해서 피구 싸움해가지고 더 재밌어. 저번 주에 내가 우리 반에서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다.</p> <p>20. 아니, 졌어(응음). 우리 반이 원래 피구 잘 못해.</p>	<p>-대상자에게 개방형 질문을 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의 답을 들을 수 있었다. (1번, 3번, 9번, 17번; 질문)</p> <p>-대상자에게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3번, 9번, 17번; 질문)</p> <p>-대상자가 싫어하는 과목이 많다고 애매하게 표현하여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말하도록 유도하였다.</p> <p>-대상자가 '과학'을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체육'이 좋다고 말을 하였기에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시 한 번 질문을 하였다. (13번; 직면, 명료화)</p> <p>-대상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이로 인해 면담의 분위기가 한층 더 편안해졌다. (19번; 경청)</p> <p>-대상자가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리액션을 해 주었다. (19번; 촉진)</p>

건강사정 지침
(학령기:6-12세)

면담시간 11월 25일, 총 7면

면담장소 대성가정

면담자 김소민

I. 일반사항

이름 김민재 생년월일 2007년 11월 2일 (만 9세) 성별 남

주소 서울시 동산구 이촌동

종교(유, 무 및 신에 대한 관념)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II. 기본육구사정

1. 활동과 휴식

1) 활동

	종류	시간	이유
a. 오락 및 취미	컴퓨터게임	1시간	"재미있어서"
b. 놀이	알게 레고	20분	"좋아하고 똑똑하게서"
c. 운동	수영, 축구, 농구, 피구	40분	"몸에 좋아서"
d. TV	광우, 보라	1시간 20분	"머리 식히려고"
e. 도서	만화책(우먼, 아영화집, 책도)	20분	"공부 하려고"
f. 특별활동	피아노	50분	"엄마가 시켜서"

2) 수면(수면시간, 수면시 문제점 및 해결방법 같이 자는 사람)

- 오후 10시 30분 ~ 오전 7시 / 해시 (평균 10시간)
- 어두운게 무서워서 잠들 때까지는 엄마가 옆에 있어준다.

2. 안전과 안정

1) 일반위생(구강위생, 일반위생상태, 구충제 복용상태) No

하루에 2번 (아침, 잠자기전) ↓
· 나갔다 들어오면 손씻음
· 목욕은 매일

2) 행동과 성격

- a. 어린이가 말하는 어린이의 성격: 정말 착하다
- b. 특별히 공포를 가지는 것: 거미, 곤충(벌레)
- c. 용돈(양, 주요용도): 일주일에 5천원, 주로 불량식품을 사먹음
- d. 용돈을 주로 주는 사람: 엄마
- e. 불안, 분노, 질투를 느끼는 때: 엄마가 약점을 지적할 때 → 엄마한테 화내고 소리지름
(불안하거나 분노, 질투를 느낄때 또는 불편할 때 보이는 행동)

온다

해소방법: 속내 안 하고 혼자 본다.

f. 동일시 대상: 친구 → 친구가 A를 하면 나도 A 사야 돼

g. 가장 예정을 갖고 있는 대상: 나

3) 대인관계, 의사소통

a. 낯선 사람과 사귀는 정도: 처음에 말을 먼저 걸지 않음, 노력을 하려고 노력 없음

b. 친구관계: 친구가 많다 ✓ 꽤 많다

친구가 조금 있다 _____

단팍유무 yes, 3명

- c. 부모와의 관계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음
- d. 형제와의 관계 (누나 2명; 20세, 17세) 친하다

4) 또래 집단과의 관계(집단경험 혹은 집단활동)

- a. 또래 집단의 유무 있음
- b. 또래 집단의 구성원의 수 및 특성 2명, 친하다
- c. 또래 집단내에서 대상자의 역할 이야기를 나눈다
- d. 또래 집단의 활동내용 및 성격 공들놀이, 포자, 레고 등등 하거나 이야기 나눔

5) 학교

- a. 학년 3
 통학: 걷는다 _____ (소요시간 _____)
 버스 _____ (소요시간 _____)
 기타 엄마 차 → 10분 정도
- b. 성적: 상위 _____ 보통 ✓ 하위 _____
 성적에 대한 만족정도: 아주만족한다 _____ 보통이다 ✓
 불만족이다 _____
- c. 좋아하는 과목 과학, 체육 이유 공이 과학이라서 재미있음 | 볼 수 있어서
- d. 싫어하는 과목 사회 이유 재미없음, 지루함
- e. 좋아하는 선생님: 있다 _____ 없다 _____
 관심없다 ✓
 그이유는 _____

f.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만족한다 ✓ 불만이다 _____

그 이유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좋다.

3. 영양과 배설

1) 영양

a. 아침식사(시간,식이,같이 하는 사람)

오전 8시 ~ 8시 20분, 밥, 김치, 파김치, 고기, 기타 빵, 영아와

b. 저녁식사(시간,식이,같이 하는 사람)

오후 6시 ~ 7시, 밥, 김치, 영아와

c. 식욕: 좋다 _____ 보통이다 ✓ 나쁘다 _____

d. 간식(시간,양 및 종류) 우유, 불량식품, 찰리, 사탕, 과자 | 오후 8시쯤

e. 좋아하는 음식: 쇠고기, 고기, 복대찌개, 감자탕, 피자, 라면, 햄버거, 짜장면
best

f. 싫어하는 음식: 생선, 채소

g. 기타 식사에 관련된 문제점 가만히 있어서 먹지 못할 → 계속 음식이면서는 안 잘하면서 먹음

2) 배설

a. 대변(횟수,형태,문제,해결방법)

- 하루에 한 번
- 갈색이고 질다
- 문제 no

d. 소변(횟수,형태,문제,해결방법)

- 하루에 2~3번
- 노랗거나 하얗다
- 문제 no

4. 성욕구(Latent stage, Sexual maturity stage관련)

"그게 뭐야?"

"몰라"

5. 산소욕구(호흡, 순환 관련 소견)

· 흡수 16회 (정상범위)

III. 과거력

1. 과거에 크게 앓은 질병: 있다 _____ 없다 ✓

있으면: 언제 병명 어떻게 치료했는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입원경험: 있다 ✓ 없다 _____

언제 ① 7세 ② 9세

어디에 ① 중앙대 소아과 ② 중앙대 소아과

왜 ① 운동에 전염성 단핵구증 ③ 마테노이드 & 편도선 제거술

퇴원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NO

3. 입원시 어린이 반응: 아팠다, 집에 가고싶다, 심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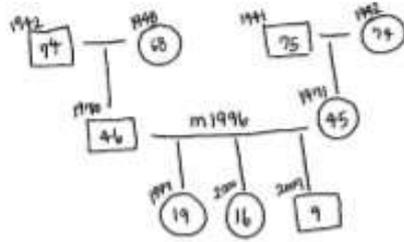
• 4. 예방접종

	횟수 및 최종 접종일자	특이반응여부
B. C. G.	0 ~ 4주	- 없음, 연령별로 맞아야 하는 것들은 모두 맞았음
D. P. T.	2개월 ~ 만12세	
소아마비	2개월 ~ 만6세	
홍역	12개월 ~ 만6세	
볼거리	12개월 ~ 만6세	
풍진	12개월 ~ 만6세	
뇌염	생: 12~35개월 사: 12개월 ~ 만12세	
기타	독감 (매년)	

• 학교실습시 제외됨

IV. 가족력

1. Family Pedigree (조부모, 부모, 형제 포함)



2. 가정의 경제력, 문화수준, 부모의 직업, 학력 및 주거환경

- 경제력: 중
- 아빠: 회사원, 대졸
엄마: 가정주부, 대졸
- 주거환경: 중

* 추가정보 *

- 과제력: 키 124cm, 체중 25kg
- 레고 놀이 좋아함
 - 새로운 레고 모으기
 - 착한 팀 VS 나쁜 팀으로 나누어 놀기
 - 스스로 조립하기
- 요즘은 엄마와 밖에서 뽀뽀 NO
 - 부끄러워
- 삼삼 앨범에 가서 모아두고 자랑

V. 신체사정

체중 30kg 키 128.8cm 체온 37.3°C

맥박 64/min 호흡 16 혈압 130/51 → 성인은 커피로 측정...

일반적 건강상태 삼기·장염·다래끼에 매우 자주 걸린다. 이직이 한번은 병원을 가야한다.

의사소통 상태 말이 잘 통했으며 면담에 매우 협조적이었다.

면담시의 태도 이후보로 남아 있었으며 초반에는 매우 협조적이고 적극적이었으나 점점 힘들어 했다.

부 위	진 술
피부: 색깔(창백, 발진, 박리, 청색증, 황달) Texture:(건조하다, 촉촉하다, 비닐 처럼 일어난다, 번질번질하다.) 탄력성 손톱(색, 모양)	얼굴은 전체적으로 하얗으나 볼에는 홍조가 있었다. 손톱은 분홍색 + 보라색이었으며 특이점이 없었다. 손에 주름이 없었다.
머리:머리카락(색, 형태, 분포상태) 형태(두위, 모양, 혈종유무) 압통(tenderness)	머리파란 검정색이었으며 굵어졌다. 머리는 2회 말리는 '깡구어리'였으며 압통은 없다고 하였다.
얼굴:균형 얼굴형태 압통(tenderness)	얼굴은 균형적이었으며 압통은 없었다.
입파절:경입파절(부종, 압통) 쇄골상입파절(부종, 압통) 상악골입파절(부종, 압통) 액 와입파절(부종, 압통) 서 해입파절(부종, 압통) 대 퇴입파절(부종, 압통) 비 장입파절(부종, 압통)	모든 입파절은 시인·촉진 되지 않았다. =>장방
눈: 사시 시력 공막(충혈, 황달) 동공-크기(오른쪽, 왼쪽, mm) 빛에 대한 반응 조절력(Accommodation) 대칭성 시야 결막(충혈, 염증) 안구(eyeball)	눈 시력은 양쪽 모두 1.0 이었다. (안경 착용 X) 동공 크기는 양쪽 모두 0.3 ~ 0.4cm 정도였다. 빛에 대한 반응이 있었으며 대칭적이었다. 조절은 없으나 다래끼가 매우 자주 난다고 하였으며 당시에도 (현상) 다래끼가 있는 상태였다.
귀: 청력, 외이 이도분비물 고막(팽창, 파열) 이개(크기, 색, 압통, 상처, lumps) Bone & Air Conduction	청력은 좋은 편이었으며 한 달에 한두 번씩 이개가 분비물을 청소 해 준다고 하였다. 압통 및 상처는 없었다.

부 위	진 술
코:외형(모양,크기,외상,만곡여부) 비강(막힘,분비물,점막의 색) 중격(출혈,천공) 중비갑개(크기,색,팽창) 부비동의 압통	비강에 분비물이 많이 차 있었으며 막혀있었다. 점막의 색은 잘 볼 수가 없었다. 압통은 없다고 하였다.
구강:입술(균형,색,상처) 치아(수,의치,빠진 치아,충치,치료한 치아) 잇몸(부종,색,상처,궤양,출혈) 점막(색,상처,출혈반,발진,궤양) 혀(맛,상태,압통,위축,궤양,열구) 구개(색,모양,움직임)	이때까지 약 8개의 치아가 빠졌으며 비중 가벼운 다시 나왔고 1개는 나오지 않는 중이다 하였다. 중치치통로 인해 은니가 있다고 하였다.
인후:편도선(크기,색,부종,백태,압통) pharynx(색,모양) Larynx(모양,소리)	9살때(2015년도) 아데노이드 1편도선 제거 수술을 해서 이 두개가 없다고 하였다.
목:균형 좌우 앞뒤의 움직임 강직 mass 타액선 갑상선(부종,압통) 혈관(외형,음향,잡음,맥박)	목은 균형적이었으며 mass는 없었다. 앞뒤, 오른쪽·왼쪽으로 자연스럽게 잘 움직였다. 기타 비정상 소견은 없었다.
유방:외형(균형,모습,mass,압통) 유두(형태,분비물,착색)	X
호흡기:호흡(횟수,양상-깊은 숨,얕은 숨) 부속근의 사용(사각근,흉쇄유돌근, -기타:Grade 1-4) 가슴(균형,형태,상처,확장형태) 폐(호흡음,흉격막의 위치와 움직임의 상태,fremitus,friction rub, 청진음,기침,객담)	호흡수는 16으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흉 시에 딱히 어려운 점은 없다고 하였다.
순환기:맥박수(오른쪽,왼쪽-경동맥,상박 동맥,요골동맥,슬과동맥, 족배동맥,후경골동맥,경정맥) 심장(박동횟수,리듬,비대,부종) 심음(systolic & diastolic murmur, friction rub, gallop,thrills) PMI <u>5</u> 번째 intercostal space	맥박수는 64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또 오른쪽·왼쪽의 맥박이 동시에,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으며 잡음은 들리지 않았다.
복부:형태(주상,편평,팽만,비만) 상태(반흔,정맥확장,압통,강직, 탄력성,mass 유무) 장음(bowel sound) 복수,탈장	복부의 형태는 약간 팽만 되어 있었다. 장음은 곱플 도르르 같이 정상적인 음이 아주 잘 들렸다.

부 위	진 술
생식계:남자-고환이나 음낭의 mass 부종,압통,병변,분비물 여자-병변,분비물,pap smear, 초경시기,월경량,월경통(두통,요통,복통)	성기가 아프거나 따개운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항문:변(횡수,색) 괄약근의 정도,압통,치루,치질	매일 변을 보고 있으며 괄약근에 문제는 없다고 하였다.
하지:부종 청색증 궤양	비정상적인 소견이 없었다.
관절:기형,부종,압통 운동기능(손가락,손목,팔꿈치, 어깨,고관절,무릎,발목) 척추(기형,흉곽) 신경계: 1)뇌기능:명료한 의식,둔화, 인사불성,혼수상태 (semi-comatose, comatose) 2)대뇌신경 I:냄새 II:시력,시야축정,안저부(검안경검사) III,IV,VI:동공반사,extraocular 운동 안검하수증 및 안구진탕증 유무 V:측두근과 저작근 운동,이마,뺨및 턱에 대한 통각검사,각막반사 VII:얼굴의 움직임-비대칭성,tics, 비정상적인 운동 VIII:청력 IX,X:혀의 맛 감별, gag reflex, 쉼 목소리의 유무, 구개와 목젖의 운동, 삼킴, 발성 XI:흉쇄 유돌근의 움직임 머리의 돌림, 어깨의 돌림 XII:혀 관찰-속상연속,비대칭성, 비정상적 형태 3) 걸음걸이와 서있는 상태 보행:정상, 비정상 heel-walking toe-walking Romberg 징후 볼수의 운동	모두 정상적이었다.

부 위		진 술					
4) 소뇌: 빠른 교대운동, 지적검사 (finger-nose, finger-finger, heel-shin fast-pointing) 반동, 자세 5) 감각 통각, 온각, 가벼운 촉각, 체위감각, 진동감 입체감각등 6) 연합기능(Associative function): 말하기, 쓰기, 읽기, 실행증, 실인증 7) 운동 긴장력, 질량, 속상연축(fasciculation), 진전(tremor)등 8) 반사(있음, 없음으로 표시할 것)		모두 정상적이었다.					
		이두건	삼두건	무릎	발목	족저	복부
R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L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어린이 행동 관찰 지침 (학령기)

1. 어린이를 3분 간격으로 하여 매번 다른 관찰 환경을 3번 이상 선택하여 관찰하는 동안 볼 수 있었던 모든 행동을 다음의 Checklist에 빠짐없이 기록한다.
2. 같은 행동을 여러번 볼 수 있으면 그대로 기록한다.
3. 관찰이 끝난 후에는 Checklist에 있는 관찰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어린이와의 면담을 통해 어린이가 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기록한다.
4. 관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어린이가 보지 않게 한다.
5. 관찰하기 전에 그 연령 어린이의 발달에 대한 내용을 읽어서 관찰 내용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6. 관찰하지 못한 내용은 면담을 진행하여 확인한다.
7. 관찰과 면담 후에 그 연령에서 특징적인 성장발달내용에 관해 의견 및 분석을 쓴다.
8. 여러분이 읽은 문헌과 비교하여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고 그 결론을 서술한다. 문헌은 그대로 인용한다.

어린이 행동관찰 Checklist (학령기)

항 목	예	아니오	사 례
1. 신체운동발달			
행동이 민첩하다	✓	_____	•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민첩해지고 살고 바로 손을 끝까지 대려온다.
그림그리기, 글쓰기 속도가 일정해지면서 균형잡는다.	✓	_____	• 랍지를 설정 시간 내에 쓸수있다.
뿔볼놀이, 철봉놀이 등 운동기구를 이용한 놀이를 한다.	✓	_____	• 놀이터에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힘이가지면 재떨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무용을 좋아한다.	_____	✓	
지구력이 발달한다. (오래달리기)	✓	_____	• 달리기, 축구, 농구, 피구를 매우 좋아한다.
공놀이를 즐긴다.	✓	_____	• 공욕심이 많으며 집에서 피구공으로 혼자 뛰기면서 논다. *수업에 아빠한테 농구공구하라고 매번 조른다

수영, 스케이트, 두발자전거를 탄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수영 가능하다. · 필리핀 배우 있음
놀이할 때는 자신을 잊고 몰두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닦기, 손발씻기 등을 철저히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졸업 때는 앵크 안 닦고 그냥 자는 경우가 있다.
유치에서 영구치로 대체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8개가 빠졌다.

2. 지적발달

그림을 보고 외워서 읽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간단한 것을 꾸미고 만든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레고 조립하기
어려운 말, 새로운 말에 관심을 갖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화나 옛날이야기를 듣기 좋아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화나 옛날이야기를 말하기 좋아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화제단위를 이해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암기력이 발달한다. 좋아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업시간에 발표하기를 좋아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감적으로 사물의 크기, 모양 색을 구별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줄 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순서를 정할 때는 공평하게 가위바위 로 정하고 제한한다
만화 보기를 좋아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한번 빠진 만화책은 못만드는 본다
독해력이 빠르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20분 안에 한 권을 끝낸다
공책에 글씨를 깨끗이 쓰려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은어, 별명을 사용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친구와 서로 '만두', '순대' 등으로 부른다.
좋아하는 교과목이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체육·과학을 좋아한다.
자연과학, 탐험등에 흥미를 갖는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음·레고 오는 것을 좋아한다.
물건을 수집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야기나 대화에 대해 요점정리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상생활 계획을 세워 시간을 활용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리적으로 사고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항 목	예	아니오	사 례
3. 사회정서적 발달			
칭찬을 기대하고 인정받고 싶어한다.	✓	_____	
형제, 친구끼리 싸운다.	✓	_____	
신체적 공격보다는 언어적 공격(별명등)이 많다.	✓	_____	
친구 동료로부터 소외되면 말다툼한다.	_____	✓	
친구들과 집단으로 사귀다.	_____	✓	
불평을 한다.	✓	_____	* 자신이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다른 친구와 더 재밌게 놀고 있으면 '저런애' 라고 하였다.
친구사이에 질투를 한다.	✓	_____	
배타적인 얘기를 한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흥미 있다.)	✓	_____	
선생님을 좋아한다.	✓	_____	
자신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_____	
간섭받기를 싫어한다.	✓	_____	
선생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지키려 한다.	✓	_____	* "호랑이가 이를 때면?" "호랑! 비가 바졌잖아!"
유모어를 좋아한다.	✓	_____	
흥미있는 것은 환성을 올리면서 좋아한다.	✓	_____	
학업성적, 평가에 관심이 높다.	_____	✓	
동성의 친구끼리 논다.	✓	_____	*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할 것 같아서 싫다고 하였다.
학급에서 책임이나 일을 맡는 것을 좋아한다.	_____	✓	
예의범절을 지킨다.	✓	_____	
공동의 규칙을 지키고 도덕적 행동을 한다.	✓	_____	
의복이나 용모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때로는 더럽다.	_____	✓	* 누가 애만들면 자신도 뽀에어 빛을 빌려서 먹이를 받는다.
그룹에 리더가 있다.	_____	✓	
위인이나 영웅을 숭배한다.	✓	_____	* "애난" 을 좋아한다고 하였으며 자신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게 하는 일을 만들고 싶다고 함
서로 돕는다.	✓	_____	

항 목	예	아니오	사 례
이성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시하려 한다.	✓	_____	· "여자애들은 재미없어." "안 잔해."
일정한 짝동무(peer group)가 있다.	✓	_____	
신체발육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한다.	_____	✓	

4. 기타

손톱깨물기	_____	✓	
팔이나 다리 떨기	_____	✓	
말더듬기	_____	✓	
Tic 증후군	_____	✓	
눈 깜박이기	_____	✓	
공격적, 파괴적 행동을 한다.	✓	_____	· 형제간 다툼 시, 혼동을 빚어 합력한다.
열등감을 갖는다.	_____	✓	

의미 있는 자료 분석

• 신체 발달

의미 있는 자료	참고문헌과의 비교(문헌적 근거)	결론
<p>-1년 전: 키 124cm, 몸무게 25kg</p> <p>-현재: 키 128.8cm, 몸무게 30kg</p> <p>-BMI 18.03 (과체중, 비만 위험)</p> <p>-BMI 75퍼센타일</p>	<p>아동 중기 동안 신장과 체중 성장은 앞 단계에 비해 더 느리나 꾸준하게 진행된다. 6~12세 사이에 아동의 신장은 매년 평균 5cm 성장하여 30~60cm가 더 자라며, 체중은 매년 2~3kg가 증가하여 거의 2배 가까이 된다.</p> <p>지방은 점차 감소하고 본포 양상이 변화하여, 이 시기 동안 아동들이 더 날씬한 모습으로 보이게 한다.</p> <p>(Hockenberry Wilson, 『아동건강간호학 1』, 홍경자 외, 수문사, 2016, p569)</p>	<p>대상자는 한국 소아의 발육 곡선에서 신장 25, 체중 50백분위에 속한다. 신장에 비해 체중의 백분위가 높음으로 비만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경우 몸무게에 맞는 키가 될 때까지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과체중인 이유를 찾아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며 도와주어야 한다.</p>
<p>-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2~3년간) 앞니 4개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치아가 빠졌으며 이중에 7개는 다 나왔으며 1개는 나오고 있는 중이다.</p> <p>-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해서 하루에 총 2번, 이를 닦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곤할 때는 저녁에도 닦지 않는다고 하였다).</p> <p>-충치 치료한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한 은니가 하나 있다.</p>	<p>만 6세부터 유치의 상실이 시작된다. 정상적으로 아래쪽 가운데 앞니가 처음 빠진다. 매년 약 4개의 영구치가 빠진 순서대로 새로 솟아난다. 정기적 치과 검진이 건강 검진에 포함되어야 한다. 매일 아침, 식사 후, 잠자기 전에 불소 함유 치약과 칫솔로 양치한다.</p> <p>(Gloria Leifer, 『생애주기에 걸친 성장발달과 건강증진』, 박호란 외6, 엘스비어코리아, 2014, p108)</p> <p>학령기에는 모든 유치가 빠지기 때문에, 학령기 초기는 작은 얼굴에 비해 새로 나는 영구치가 너무 커서 미운 오리 새끼 단계라고도 불린다.</p> <p>(Hockenberry Wilson, 『아동건강간호학 1』, 홍경자 외, 수문사, 2016, p570)</p>	<p>참고문헌에 따르면 만 6세부터 유치의 상실이 시작되며 아래쪽 가운데 앞니가 처음으로 빠진다고 하였다. 대상자는 아래쪽 가운데 앞니 2개가 맨 처음으로 동시에 빠졌고 그 이후에는 위쪽 가운데 앞니가 하나씩 빠졌었다고 말하였다. 이제는 흔들리는 이가 없다고 하였다.</p> <p>하루에 3번, 이를 닦아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닦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대상자에게 휴대용 칫솔을 들고다니면서 점심을 먹은 후에도 닦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p>
<p>-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7시/8시까지 수면을 취한다고 하였다 (평균 10시간).</p>	<p>신체적 ·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여 활동의 원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 필요한 수면시간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출생 직후는 약 18~20시간, 소아발육기에서는 12~14시간, 성인에서는 7~8시간, 고령자는 5~7시간</p>	<p>참고문헌에 따르면 대상자는 12~14시간 수면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상자는 실제로 10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있으므로 필요수면량이 2~4시간 정도</p>

<p>-어두운 게 무서워서 잠들 때까지 엄마가 옆에 있어준다고 하였다.</p>	<p>이 필요하다. 필요한 수면시간을 확보하려면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충분한 수면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조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수면시간, 생명과학대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1888&cid=42411&categoryId=42411, 2016년 11월 27일) 집합주의를 강조하는 나라의 부모들은 아이와 같이 자는 것이 부모와의 유대에 도움이 되며 아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보고한 반면,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따로 자는 것이 아이의 독립심을 키우고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했다. (수면 발달, 심리학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94140&cid=41991&categoryId=41991, 2016년 11월 27일)</p>	<p>부족한 상태이다. 대상자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지 않도록 하고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상자는 자신이 잠들 때까지 부모님이 옆에 계셔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대상자의 독립심을 키우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금 당장부터 혼자 자는 것은 어려우니 부모님과 함께 잠드는 날의 횟수를 줄여가면서 혼자 자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두운 게 무섭다면 옆에 무드등을 켜놓고 자거나 방문을 열고 자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p>
<p>-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있다. -편식을 한다고 하였다. 야채나 버섯을 좋아하지 않으며 육류, 패스트푸드 등을 즐겨 먹었다고 하였다. -매일 젤리, 떡고치, 초콜릿 등과 같은 불량식품을 간식으로 먹었다고 하였다 (계일 좋아하는 간식은 마이구미와 왕곰돌이)</p>	<p>유아는 하루 세 번의 식사만으로는 필요량의 영양을 섭취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의 보급으로서의 간식이 필요하다. 간식은 영양균형을 고려한 것이고, 그다지 배에 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너무 단 것이나 지나친 양의 간식은 피해야 한다. (간식, 대한간호학회, 간호학대사전, 한국사전면구사, 1996)</p>	<p>대상자는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있으며 매일 간식도 섭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참고 문헌에 따르면 간식을 통해 필요량의 영양을 추가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너무 달거나 지나친 양의 간식은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상자는 젤리, 과자 등과 같은 불량식품을 위주로 먹고 있다. 대상자가 이보다는 과일과 같은 영양분 섭취에 도움 되는 간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교육해 주어야 한다.</p>
<p>-집에서 식사를 할 때 가만히 앉아서 먹지 못</p>	<p>들어다니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잉행동형인데 분명히 바로</p>	<p>대상자는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지를 못한다고 하</p>

<p>-누나들과 알까기/보드 게임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p> <p>-매주 월/수/금마다 50분씩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고 하였다.</p>	<p>력에 대한 도전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게임은 아동이 매일의 신체 활동을 대체하지 않는 한 건강한 배출로가 될 수 있다. 미술과 음악 수업은 전 인생에 걸쳐 흥미, 감상 및 재능의 발달에 유용하다. (Gloria Leifer, 『생애주기에 걸친 성장발달과 건강증진』, 박호란 외6, 엘스비어코리아, 2014, p110)</p>	<p>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알까기와 같은 보드게임은 신체 활동의 건강한 배출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익하다. 또한 아동에 있어서 예체능은 전 인생에 걸쳐 흥미와 재능의 발달에 유용하다.</p>
<p>-집에서는 주로 혼자서 작은 사이즈의 레고블 가지고 논다고 하였다.</p>	<p>학령기 아동들의 놀이는 매우 활동적이지만, 또 조용히 혼자서 하는 활동을 즐기기도 한다. (Hockenberry Wilson, 『아동건강간호학 1』, 홍경자 외, 수문사, 2016, p585)</p>	<p>참고문헌에 따르면 혼자서 조용히 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또한 학령기 놀이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p>

• 인지 발달

의미 있는 자료	참고문헌과의 비교(문헌적 근거)	결론
<p>-공을 종류 별로 모으고 있다.</p> <p>-새로운 레고블 모으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레고블 모으고 싶다고 하였다.</p> <p>-레고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을 지어 놓았다.</p> <p>-처음 보는 형식의 레고여도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보다 설명서를 보면서 혼자 조립하는 것을 선호하였다.</p>	<p>분류 기능은 대상의 공통적인 속성에 따라 집단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학령기 아동들은 지각할 수 있는 논리적 순서, 집단, 종류에 따라 사물들을 배치할 수 있으며, 마음속에 분류 기준이 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학령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을 분류하고 순서를 맞추는 것에서 큰 기쁨을 얻는다. 그들은 초개껍질, 인형, 자동차, 돌, 카드, 봉제완구 등의 분류할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물건 수집에 열중한다. (Hockenberry Wilson, 『아동건강간호학 1』, 홍경자 외, 수문사, 2016, pp575-576)</p> <p>학령기는 수집하는 시기인데, 저학년 아동들은 수집품을 산만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서로 상관 없는 물건들을 이상하게 모아 놓은 것이다. 학령기 후기에는 수집품을</p>	<p>대상자는 공, 레고와 같이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물건들을 모으고 있다. 레고 같은 경우에는 레고의 얼굴 생김새에 따라 착한 편/나쁜 편으로 분류를 하여 갖고 놀고 있었다. 참고문헌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에 근거하여 물건을 분류한다고 하였다.</p>

	<p>좀 더 정돈되고 선택적인 방식으로 모으며, 종종 스크랩북이나 선반 위 또는 상자 안에 깔끔하게 정리해 둔다.</p> <p>(Hockenberry Wilson, 『아동건강간호학 1』, 홍경자 외, 수문사, 2016, p585)</p>	
<p>-똑같은 종류의 떡 2개 중 하나는 반으로 잘라 놓은 후에 겹쳐 놓았고, 나머지 하나는 원래 모양으로 두었을 때, 2개 중에 크기가 더 큰 떡을 골라서 먹으라고 해 보았다. 이때 대상자는 크기가 똑같은 떡을 반으로 자른 것뿐인데 더 큰 게 어디 있냐고 말을 하였다.</p>	<p>Piaget에 의하면 학령기 아동들의 주요한 인지적 과제 중의 하나는, 물체는 마술에 의해 나타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보존 개념을 숙달하는 것이다. 아동들은 동질성, 가역성, 상호성의 3가지 개념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보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p> <p>(Hockenberry Wilson, 『아동건강간호학 1』, 홍경자 외, 수문사, 2016, p575)</p>	<p>대상자는 보존 개념을 숙달한 상태로 보이며 학령기 동안의 인지적 과제를 잘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

• 심리사회 발달

의미 있는 자료	참고문헌과의 비교(문헌적 근거)	결론
<p>-유치원 때는 엄마와 헤어지기 전에 보보를 했었지만 요즘에는 부끄러워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p> <p>-대가 없는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p>	<p>학령기 아동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가족가치들을 비교하기 시작한다. 가족에 대한 의존과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동년배 간의 경쟁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사건들을 일으킬 수 있다. 아동은 공격적인 자리에서 부모와 입맞춤하거나 껴안는 것에 대해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p> <p>(Gloria Leifer, 『생애주기에 걸친 성장발달과 건강증진』, 박호란 외6, 엘스비어코리아, 2014, p118)</p>	<p>학령전기에는 공공장소에서 부모님과 스킨십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지만 학령기에 접어들어 지금은 부끄러워서 하기 싫다고 하였다. 참고문헌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은 이에 대해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부모님에게는 이러한 행동이 부모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교육해주는 것이 좋다.</p>
<p>-남자 색/여자 색을 구분하여 색깔을 좋아한다.</p>	<p>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질문은 성역할 학습이 좀 더 두드러지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자는 남자와 어울리고 여자는 여아와 어울리</p>	<p>대상자는 이제 막 성에 관해 알아가는 시기이다. 남자 색, 여자 색 혹은 여자 성격, 남자 성격 등과</p>

<p>-학교에서 공을 가지고 남자들vs여자들이 에서 다룰 때가 있다고 하였다.</p> <p>-이성친구가 없다고 하 였으며 같이 노는 친구 들이 모두 동성이라고 하였다.</p> <p>-‘예쁘다.’는 남자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 고 하였다.</p>	<p>고, 각 집단은 자신들의 관심사를 추구하면서 양성 사이의 의사소통 은 필요한 것에만 한정된다. 아동들 의 적절한 성역할 개념 대부분은 모래와의 관계를 통해 획득된다. (Hockenberry Wilson, 『아동건강간 호학 1』, 홍경자 외, 수문사, 2016, p578)</p>	<p>같은 성역할 개념은 대부 분 모래와의 관계를 통해 획득된다고 하였다. 하지 만 위와 같이 여자와 남자 를 따로 놓고 생각하게 된 다면 후에 올바르게 익힌 성역할 개념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교육을 통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p>
<p>-집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학 교에서 친구들과 뛰어 노는 것이 좋다고 하였 다.</p>	<p>아동들은 모래 집단과 더 많은 시 간을 보내기 원하고, 집을 떠나기를 열망하는 것으로 보이며, 종종 가족 과 어울리는 것보다 동년배와 어울 리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Hockenberry Wilson, 『아동건강간 호학 1』, 홍경자 외, 수문사, 2016, p580)</p>	<p>학령기 아동은 집에서 있 는 것보다 학교에서 모래 와 어울려 노는 것을 선호 할 수도 있다. 이것으로 인해 부모님이 성실한 마 음을 가지지 않도록 교육 해 주어야 한다.</p>
<p>-자신의 성적이 보통이 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성적에 만족하지도, 불만 족하지도 않는다고 하였 다.</p> <p>-학교에서 받은 상장들 을 모두 하나의 앨범에 모아두고 있으며 낯선 사람이 집에 놀러올 때 마다 이를 자랑한다.</p>	<p>Erickson은 학령기 아동의 첫 과 업이 근면감을 개발시키는 것이라 고 믿었다. 아동은 작은 목표를 달 성하는 것에서부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포상은 배우고 성취하는 것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이 단 계에서는 필수적이다. 7세 된 아동 은 복잡한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하 기 위해 필요한 집중시간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 9세 아동은 일반적으 로 완벽하게 작업을 수행한다. 성취 를 위해 포상을 받지 못한 아동은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 (Gloria Leifer, 『생애주기에 걸친 성장발달과 건강증진』, 박호란 외6, 엘스비어코리아, 2014, p118)</p>	<p>학령기에 성취해야 하는 근면감은 작은 목표를 달 성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 이나 보상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대상자는 자신이 받아오는 상장들 즉, 긍정 적인 보상을 통해 근면감 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대상자가 근 면감을 잘 성취할 수 있도 록 부모님과 형제들이 도 와주어야 한다. 아동에게 긍정적인 칭찬이나 보상을 아끼지 않도록 교육해 주 어야 한다.</p>

간호진단

간호과정	기록내용
사정	<p>>Subjective Data</p> <p>-“나는 맨날 저녁 먹고 켈리도 먹어.”</p> <p>-“나는 버섯이랑 야채는 싫어해.”</p> <p>-“고기 없으면 밥 안 먹어.”</p> <p>-“일주일에 한 번은 꼭 라면 먹어야 돼.”</p> <p>-“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라면이랑 짜장면이야.”</p> <p>-“하루에 이빨 두 번 닦는데, 피곤할 때는 저녁에도 안 닦아.”</p> <p>>Objective Data</p> <p>-BMI 18.03 (과체중)</p> <p>-BMI 75퍼센타일</p> <p>-몸무게 50퍼센타일, 신장 20퍼센타일로 신장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감</p> <p>-충치 치료한 경험이 있음</p> <p>-은니가 있음</p> <p>-매 주말마다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다고 부모님께 조름</p>
진단	<p>비효율적인 자가 건강관리 r/t 식습관, 구강 불 청결</p>

총괄논평

학령기 대상자는 가까운 가족이었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 꺼려지는 질문이 없었기에 모든 질문들을 잘 물어볼 수 있었고, 대상자 또한 면담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때까지의 대상자들과는 달리 학령기 대상자는 모든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였다. 면담을 시작할 때에는 재밌을 것 같라며 신난 모습을 보였지만 면담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지루한 표정을 지었고 '언제 끝나?'라는 질문을 한 번 하였다. 그래서 면담 후반부로 갈수록 깊은 면담을 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장난기가 많다보니 장소, 시간, 사람 등의 방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담 과정이 굉장히 산만했다. 학령기 대상자를 위한 리플렛을 받았지만 대상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다. 대신 플더폰에도 해당되는 내용을 몇 가지 체크해 가서 대상자에게 교육을 해 주었다. 또한 리플렛 내용 중에 거북목 교정 자세는 평소 자세가 바르지 않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내용이었기에 대상자에게 리플렛을 보여주면서 교육해 주었다. 대상자는 거북목 자세를 따라하면서 "이 자세 엄청 불편한데.", "이렇게 앉아야 하는 거 까먹을 것 같은데." 등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rickson은 학령기의 아이들이 이뤄야 할 과제로 '근면감'을 말했다. 근면감은 다른 말로 성취감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열심히 노력하여 어떤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꼈을 때 개발시킬 수 있다. 아동은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서부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Gloria Leifer, 『생애 주기에 걸친 성장발달과 건강증진』, 박호란 외6, 엘스비어코리아, 2014, p118) 혹은 어떤 것을 성취한 후에 얻는 보상으로 인해 근면감을 개발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취감을 얻지 못하면 자신이 또래 집단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열등감을 얻게 될 수도 있다. 대상자는 작은 보상을 얻음으로써 근면감을 조금씩 개발해 나가고 있다. 그 첫 번째 예시로 대상자가 자신이 반에서 타자 빠르기가 top5안에 들었기 때문에 상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매우 자랑을 하고 다녔다. 두 번째로는 몇 달 전에 대상자가 글쓰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왔다. 세 번째로는 우수상을 받은 후에 아빠로부터 뷔페를 데리고 가는 또 다른 보상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대상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해 상장과 외식권 같은 작은 보상을 받음으로써 근면감을 획득해 나가고 있다.

Freud는 학령전기에서 남근기, 즉 성별 구분을 하지 않으며 '나'라는 개념에만 집중했던 시기가 끝나고 학령기에서는 성적 잠복기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잠복기는 성적 정숙기이며 상대적인 성적 비활동기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성 친구에게 관심이 없으며 동성친구와만 노는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옷, 장난감, 색깔 등에 성별 특수성이 나타난다. 대상자 역시 이러한 잠복기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대상자는 친하게 지내는 이성 친구가 없다고 했으며 매일 동성친구들과만 논다고 하였다. 또한 학령전기에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물었을 때, 항상 "분홍색"이라고 했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금은 "파랑색"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분홍색을 좋아했는데 왜 바뀌었냐고 묻자 "분홍색은 여자 색이잖아. 난 여자가 아니라 남자야."라고 대답을 하였다.

Piaget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은 구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그러

므로 이전과는 달리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추론이 가능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에는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인과관계를 넣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이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른 개념이다. 학령기 아동들은 물건들을 수집하고 이를 자신만의 규칙을 통해 분류한다. 대상자는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대상자는 요즘 공과 레고를 종류별로 모으고 있다. 현재 집에 피구공,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등이 있으며 대상자는 이런 공들을 집에서 놀 수 있는 공과 집 밖에서 놀 수 있는 공으로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다. 공뿐만 아니라 수많은 레고도 보유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사람 모양의 레고들을 생김새에 따라 착한 편과 나쁜 편으로 분류해서 가지고 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대상자는 학령기의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걸음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대상자는 실제적으로 비만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었다. 간호진단을 내린 것을 토대로 대상자에게 중재를 내렸다. 대상자는 구체적 조작기로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기에 이를 이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첫 번째 문제점은 식습관이었다. 편식을 하고 있었으며 젤리와 같은 불량식품을 매일 먹고 있다고 하였다. 대상자에게 “민재 키 크고 싶지? 근데 야채는 안 먹고 고기만 먹으면 몸에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지 않아서 키가 덜 크게 돼.”, “불량식품은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많이 먹어도 키가 안 크고 살만 찌.”라고 중재를 하였다. 대상자는 “똥똥해지기는 싫는데.....”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식습관이 조금 나아졌다. 얼마 전까지는 처음 보는 음식(주로 야채)은 아예 먹을 시도도 하지 않았었는데, 중재 이후 처음으로 파프리카를 먹어 보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는 “나 이제 이런 거 먹으면 안 똥똥해지지?”라고 물었다.

대상자의 두 번째 문제는 구강청결에 대한 지식부족 및 불이행이었다. 학교 가기 전 아침에는 매일 닦지만 점심에는 닦지 않으며 저녁에도 피곤할 때에는 닦지 않고 자고 있다고 하였다. 대상자에게 “이를 잘 닦지 않으면 저녁에 치과에서 했던 아픈 치료를 계속 해야 돼. 민재 저녁에 아프다고 울었었잖아.”라고 중재를 하였다. 또한 저녁에 대상자가 그냥 자려고 할 때마다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옆에서 같이 이를 닦게 하도록 유도하였다. 아직까지도 점심에는 이를 닦고 있지 않지만 저녁에는 닦고 자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보다 나은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위해 앞으로도 옆에서 지지해줘야 한다.

우수상

박채원 바이오공학과

리포트 주제 선정 과정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	일반 화학 실험 과목에서 '물질량 측정' 실험을 하였다. 이는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얻어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아세톤의 물질량을 구하는 실험이었다. 평소 일반 화학의 기초가 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실험에 사용한 점이 인상 깊었으며 좀 더 심화된 실험 원인 및 결과 도출을 한 리포트였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선정하였다.
기타 사항 (리포트 작성 과정에서 특별한 점, 조별 과제에의 경우 역할 분담 등)	실험에 쓰인 기초 지식과 함께 평소 화학 수업 강의에서 익힌 좀 더 심화된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을 이해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실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하게 되었다. 표와 테이블을 이용하여 결과를 정리 하였다.

실험 날짜 : 2016.10.13	학과 : 바이오 공학과	실험조 : 3조
학번 : 20164221		이름 : 박채원
<p><Abstr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물질량 측정 · 목적 및 의의-쉽게 증발하는 기체의 물질량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 원리-이상기체 상태방정식($PV=nRT$)로부터 물질량(M)=$\frac{m}{n} = \frac{nRT}{PV} = \frac{dRT}{P}$ 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식을 이용하여 현재 온도(T), 대기압(P), 액체 시료의 질량(m) 및 플라스크의 부피(V)를 측정한 값을 대입하여 물질량을 구한다. <p><Introduction></p> <p>1. 실험 원리</p> <p>: 원자나 분자들은 아주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양으로 질량을 나타낸다.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물질량을 12로 정하고, 이 안에 들어 있는 탄소 원자수를 아보가드로 수(3.02×10^{23})라 하며, 이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원자나 분자를 원자 1몰 또는 분자 1몰로 정의한다. 몰(mol)은 화학물질 양의 측정 단위이다. 원자, 분자, 화학식 단위 등에는 몰 단위가 적용될 수 있다.</p> <p>1몰 = 아보가드로 수(N) = 6.02×10^{23}개의 원자, 분자</p> <p>몰은 시료 속의 입자수를 나타내는 물질의 양이다. 실제로 어떤 물질의 원자 질량에 g 단위를 붙이면 그 물질 1몰의 질량이 된다. 이 질량값을 몰질량(molar mass, MM)이라고 하며, 한 원소의 몰질량 값은 g으로 표시한 그 원소의 원자 질량과 같다. 주기율표를 보면 철의 원자 질량은 55.85amu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철의 몰질량은 55.85 g/mol이 된다. 자연에 존재하는 산소(O_2)의 몰질량은 16.00g의 두 배인 32.00g/mol이 된다.</p> <p>분자의 몰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체는 상온, 상압 하에서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하므로 기체의 압력(P), 부피(V), 온도(T)를 알면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몰질량(M)을 계산할 수 있다.</p> $M = \frac{wRT}{PV}$ <p>이상 기체 법칙은 기체에 대한 상태 방정식이며, 여기서 상태라 함은 주어진 시간에서 기체의 조건을 말한다. 즉, 기체의 상태는 온도, 압력, 부피, 몰수 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네 가지 성질 중에 세 가지 성질만 알면 기체의 상태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 기체 법칙은 기체의 성질에 관한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실험식이다. 이 이상 기체 법칙을 잘 만족하는 기체를 이상 기체라 하며, 실제 기체는 온도가 높거나 압력이 아주 낮을 때 이상 기체와 같은 행동을 한다. 이상 기체 1mol이 0°C (273.2K), 1atm인 상태에서 이상 기체 법칙으로부터 부피를 계산하면 22.42L이다. 즉,</p> $V = \frac{nRT}{P} = \frac{(1.00\text{mol})(0.08206\text{L} \times \text{atm}/\text{mol} \times \text{K})(273.2\text{K})}{1.00\text{atm}} = 22.42\text{L}$ <p>여기서 구한 22.42L를 표준 상태(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 STP), 즉 0°C, 1atm에서 몰 부피(molar volume)라 한다.</p>		

이상 기체의 물질량은 밀도를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다.

$$n(\text{몰수}) = \frac{\text{기체 } g\text{수}}{\text{물질량}} = \frac{\text{기체분자수}}{\text{아보가드로수}} = \frac{\text{기체부피}}{\text{몰부피}}$$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입하여 물질량을 계산하려면, ($d=m/V$:밀도)

$$P = \frac{nRT}{V} = \frac{(m/\text{물질량})RT}{V} = \frac{m(RT)}{V(\text{물질량})} = \frac{dRT}{\text{물질량}}$$

$$\text{물질량 } M = \frac{dRT}{P}$$

이 실험에서는 일정 부피의 플라스크 내에 액체를 가열하여 기체로 가득 채우고 다시 냉각시켜 액체로 만들어 질량을 측정한다. 정밀하게 하려면 아주 작게 제작된 비중병(pycnometer)을 사용하기도 한다.¹

II. 용어

· 아세톤(acetone): 화학식= CH_3COCH_3 , 분자량= 58.08g/mol ², 끓는점= 56.3°C , 부색의 액체 케톤이며 용매로서 또는 2-메틸프로피온산메틸 ($\text{CH}_3)_2\text{COOCH}_3$ 의 공업적인 합성원료 등에 사용된다. 아세톤 발효(아세톤-부탄올 발효)나 아세틸렌에서의 합성, 이소프로필 알콜의 산화 또는 쿠멘법에 의한 페놀 합성의 부산품으로 얻을 수 있다. 계통명은 프로판논(propanone)이다.³

· 반 데르 발스의 상태 방정식(van der Waals' equation): 실제 기체의 상태방정식의 한가지이다. 1몰의 기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된다.

$$(p + a/V_m^2)(V_m - b) = RT \quad \text{또는} \quad (P + a \frac{n^2}{V^2})(V - nb) = nRT \quad 4$$

여기서 p 는 압력, V_m 은 몰부피, T 는 절대 온도, a , b 는 물질에 의해 정해지는 상수, R 은 기체상수이다.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보일-샤를의 법칙 $pV=RT$)보다도 훨씬 실제에 적합한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서 사용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 a , b 의 보정항목으로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b 는 기체분자의 크기가 무시될 수 없는 데 따른 보정, a/V_m^2 은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보정이다. 이것은 이상기체에 비해 외관상의 압력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⁵ 아세톤의 $a=16.02 \text{ L}^2 \text{ bar mol}^{-2}$, $b=0.1124 \text{ L mol}^{-1}$ 이다.⁶

· 기체의 법칙 (gas law): 일정한 양의 기체에 관해 압력, 온도,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을 말한다. 보일의 법칙이나 샤를의 법칙 등을 가리킨다. 실제의 기체에 대해서 이 법칙들은 엄밀하게 성립되지 않으나 고온 또는 저압 조건에서는 그 차이가 비교적 적게 된다. 기체의 법칙에 엄밀하게 따르는 기체를 이상기체 또는 완전기체라고 한다. 실제의 기체는 모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다소나마 차이를 나타내지만 입자의 부피가 무시되고 분자내력의 기여도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 관계식을 적용할 수 있다.(저압, 고온 하에서) 실제기체의 거동을 기술하는 여러 가지 상태방정식이 제안되어 있으나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반 데르 발스 (Van der Waals)의 상태방정식이다.⁷

· 기체상수(gas constant, R): 이상기체(ideal gas)의 상태방정식에 나타나는 상수를 말한다. $8.31434 \text{ J mol}^{-1} \text{ K}^{-1}$ ($0.08206 \text{ Latm mol}^{-1} \text{ K}^{-1}$ 또는 $1.987 \text{ cal mol}^{-1} \text{ K}^{-1}$)⁸ 또는 $8.31447 \times 10^{-2} \text{ L bar K}^{-1} \text{ mol}^{-1}$ ⁹

· 기화(증발, vaporization): 액체 또는 고체에 열을 가했을 때 기체나 증기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비등(boiling)과는 달리 별도로 일정한 온도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화속도는 온도상승과 동시에 커진다. 액체인 경우에는 증발이라고 하는 일이 많다.¹⁰

· 아보가드로 상수(Avogadro constant): 기호= L_A 또는 N_A , 1몰의 물질 속에 있는 입자수. $L_A=6.022045 \times 10^{23} \text{ mol}^{-1}$, 아보가드로수¹¹

· 몰(mole): 기호-mol, SI기본단위 중에서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탄소-12의 0.012Kg(12g)속에 함유되는 원자수(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입자집합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입자'란 원자, 분자, 이온, 전자, 광자(photon) 등과 같이 어떤 소립자라도 좋으나 확실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물질의 양은 당연히 성분입자수에 비례한다. 1몰에 상당하는 원자수, 즉 아보가드로 수는 6.022045×10^{23} 이다. 상대원자질량 A의 원소 1몰은 Ag이 된다. 이 양은 이전에 '그램 원자'라고 하였던 것이다. 상대분자질량(분자량) M을 갖는 어떤 혼합물의 1몰은 Mg이 되는데 이것은 이전에 '그램 분자'라고 불렀다.¹²

· 절대온도(absolute temperature, T): 섭씨 온도를 θ 로 나타낼 때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T = 273.15 + \theta \text{ (K)}$$

절대온도눈금은 이상기체에 대해 샤를의 법칙을 적용하면 얻게 된다. 즉, $V = V_0(1 + \alpha \theta)$ 이 된다. 여기서 V는 $\theta^\circ\text{C}$ 에서의 부피, V_0 은 0°C 에서의 부피이다. α 는 기체의 열팽창률이다. 저압 하에서는 실제 기체도 이상기체와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데 α 의 값은 $1/273.15$ 가 된다. 따라서 절대온도가 0인 점에서 기체의 부피는 이론적으로 말하면 역시 0이 된다. 실제로는 액화나 고화가 일어나므로 이대로는 되지 않으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이 점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것으로 -273.15°C 가 0K에 상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눈금은 이상기체 눈금 또는 켈빈온도라고하며 절대온도는 열역학의 온도눈금과 같다.¹³

· 표준상태(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 STP): NTP라고도 한다. 표준압력 및 표준온도를 가리킨다. 국제적으로 결정된 조건으로서 101 325Pa, 273.15K, 즉 1기압, 0°C 를 따른다.¹⁴

III. 재료 및 도구

: 아세톤, 비커, 둥근 플라스크, 피펫, 눈금실린더, 온도계, 저울, 거름종이, 스탠드, 바늘, 클램프

IV. 실험 방법

1. 깨끗하게 건조시킨 100ml 둥근 플라스크에 알루미남박으로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 가능한 아주 작은 바늘 구멍을 뚫는다.
2. 이 뚜껑을 포함한 플라스크의 무게를 저울로 정확하게 측정한다.
3. 액체 시료는 플라스크에 3ml 정도 넣고 뚜껑을 막은 다음 스탠드에 고정시킨다.
4. 500ml 비커에 물을 반 정도 채우고 끓을 때까지 계속 가열한다.
5. 비커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플라스크를 물 속 깊이 담근다.
6. 대기압과 끓는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플라스크 내 액체가 모두 기화할 때까지 플라스크를 비커에 남겨 둔다.

(※증발한 기체를 직접 흡입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실험실 환기가 잘 되도록 유의한다. 가열된 플라스크 등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7. 플라스크 내 액체 시료가 모두 기화한 후 조금 지나서 플라스크를 끓는 물에서 꺼내어 식힌다.
8. 플라스크 바닥의 물은 거름종이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9. 완전하게 말린 플라스크의 뚜껑 무게를 다시 한 번 더 측정한다.
10. 플라스크는 깨끗하게 씻고 플라스크 가득 증류수를 채워 눈금 실린더로 증류수의 부피를 측정한다. (플라스크 부피 측정)
11. 측정값을 구해본다.

V. 결과 추측 (가설)

: 실제 기체로 측정된 값을 이용하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입하여 물질량을 구하므로 실제 물질량 값인 58.08 g/mol과는 차이가 날 것이다. 반데르 발스 방정식을 이용하여 물질량을 구했을 때에 더 적은 오차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Data & Results> (*계산 결과치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sf=3)

기호	목적	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m	시료 투입 전 플라스크 무게 (g)		95.4582	100.0980	100.1231
	냉각 전 플라스크 무게 (g)		96.3225	100.9910	101.0154
	기체의 질량 (g)		0.8643	0.8930	0.8923
V	플라스크의 부피	384.2ml = 0.3842L			
T	증탕 물 온도		80.2°C = 353.35K	86.3°C = 359.45K	98.3°C = 371.45K
P	압력	1 atm (대기압) = 1.01325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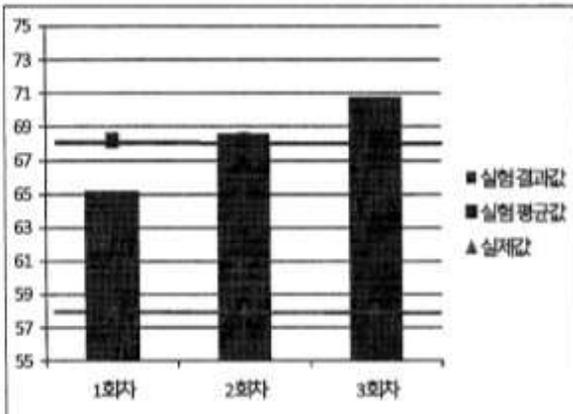
table 1. 기체의 질량(m), 부피(V), 온도(T), 압력(P) 측정 결과치

	물질량 구하는 과정 ($M = \frac{mRT}{PV}$)	물질량 계산 결과값 (g/mol)
1회차	$\frac{(0.8643g) \times (0.08206 \text{ Latm mol}^{-1} \text{ K}^{-1}) \times (353.35K)}{1 \text{ atm} \times 0.3842L}$	65.23
2회차	$\frac{(0.8930g) \times (0.08206 \text{ Latm mol}^{-1} \text{ K}^{-1}) \times (359.45K)}{1 \text{ atm} \times 0.3842L}$	68.56
3회차	$\frac{(0.8923g) \times (0.08206 \text{ Latm mol}^{-1} \text{ K}^{-1}) \times (371.45K)}{1 \text{ atm} \times 0.3842L}$	70.79

table 2.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사용 물질량 계산 (기체상수(R)=0.08206 Latm mol⁻¹K⁻¹ 사용함.)

평균	표준편차	분산
68.19	2.28	5.22

table 3. 물질량 측정 결과값 통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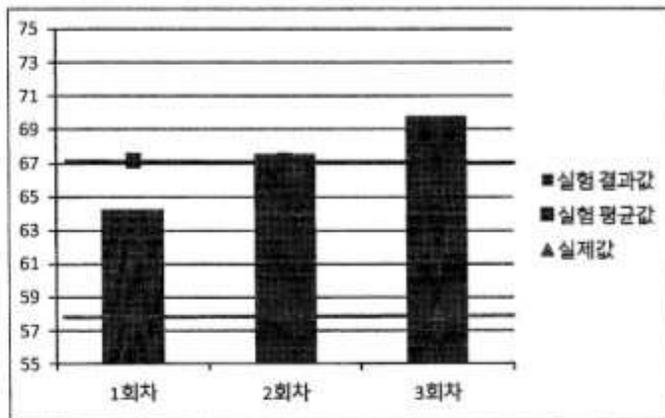
graph 1.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용한 물질량 계산 결과

	반데르 발스 방정식 사용하여 구한 몰 수 (mol)	물질량 계산 결과값 ($M = \frac{m}{n}$)
1회차	1.35×10^{-2}	64.24 g/mol
2회차	1.32×10^{-2}	67.56 g/mol
3회차	1.28×10^{-2}	69.83 g/m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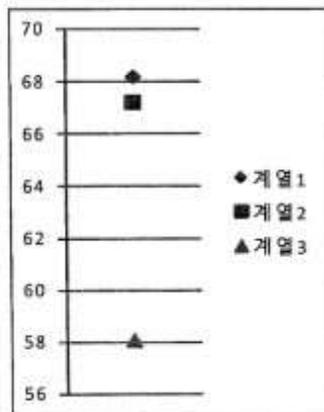
table 4. 몰 수를 구하여 물질량 계산 결과

평균	표준편차	분산
67.21	2.30	5.27

table 5. 반데르 발스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 물질량 통계치



graph 2. 물 수 이용한 물질량 계산 결과



graph 3.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반데르발스 방정식 이용 평균 물질량, 실제 물질량 비교
(각 순서대로 계열 1,2,3 의미)

<Discussion>

: 총 세 번의 실험 결과, 아세톤의 평균 물질량은 68.19g/mol로 실제 물질량인 58.08g/mol의 값과는 꽤 차이를 보였다(graph 1, 참조). 이와 같이 실제 값과 큰 차이를 보인 이유로 가장 큰 원인은 온도측정에서의 오차 발생 및 이상기체가 아니라는 점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1회차에서 3회차로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증탕을 하면서 물의 온도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둥근 플라스크의 온도는 완전히 물의 온도와 동시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물질량을 구하는 과정에서 쓰인 온도값(T)는 물증탕에 사용된 물의 온도였다. 그렇기에 온도가 table 1.에서 보다시피 온도값이 3회차로 실험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물질량과 온도의 정비례 관계로 인하여 실험 물질량 측정값이 증가하였다.

두 번째 추측된 오차의 원인으로 이상기체가 아니기 때문이라 추정하였는데, 이는 물질량을 구할 때 사용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상 기체의 벌칙을 모두 다 충족하는 기체일 때 비로소 그 식이 의미를 가지게 되며 모든 실제 기체들은 압력이 0에 접근할수록 상태방정식을 좀 더 정확히 따르는 한계 법칙이다.¹⁵ 또한 실제의 기체는 모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다소나마 차이를 나타내지만 입자의 부피가 무시되고 분자내력의 기여도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 관계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세톤은 화학식이 CH_3COCH_3 로 부피가 무시되기에는 어렵고 분자내력 기여도가 있었다. 또한 실제기체에서는 이상기체와 가장 근접한 모습을 될 때는 저압 고온의 상황에서이나, 이번 실험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1atm 및 상온에서의 실험). 그나마 이상기체와 가장 유사하도록 하기 위해 실험에 쓰인 아세톤은 인력이 약한, 즉 끓는점이 낮은 액체지만 그 두 요인을 무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실제 기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여 만든 식인 반데르 발스 방정식이 있다. 이 식은 실제기체 분자 간 존재하는 인력과 반발력을 고려하여 만든 식으로 좀 더 실제 기체에 적용하기 좋다. 이 식을 이용하여 분자의 몰 수를 구하여 $M = \frac{m}{n}$ 에 대입하여 물질량을 구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반데르 발스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 평균 물질량 값 또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사용하여 구한 평균 물질량과 같이 실제 값과는 꽤 차이가 났다(약 9g/mol의 오차). 이처럼 반데르 발스 방정식을 이용하여 실제기체 분자 간 인력과 반발력을 고려하여 계산하였지만 오차가 생겼다. 이는 실험 측정 시 앞서 말했듯이 온도 측정에서 오차를 발생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graph 3.을 보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 평균 물질량과 반데르 발스 방정식을 사용하여 구한 평균 물질량을 비교할 때 후자의 경우의 값이 좀 더 실제 물질량에 더 가까운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식을 이용하여 구한 평균 물질량 값이 실제값과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 물의 증기압을 들 수 있다. 물증탕에서의 온도는 고온이었으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물의 증기압을 높아지기 때문에 이 때 둥근 플라스크 안의 기체는 완전히 아세톤 기체분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기체의 압력은 1atm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세톤 기체의 분압을 이용하여 값을 산출했을 때 좀 더 정확한 실험 결과값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실험에서 실험 측정 온도 값이 가장 큰 오차를 낸 원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둥근 플라스크를 물 증탕할 때 미리 물에 잠기도록 두어 물과 최대한 동시에 온도를 올리는 것으로 실험을 보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는 둥근 플라스크 안 기체의 온도를 직접 잴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해 내는 방법도 오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onclusion>

: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 평균 물질량은 68.19g/mol이 나왔으며 반데르 발스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 평균 물질량은 67.21g/mol이 나왔다. 실제값과 두 값이 차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온도 측정에서의 오차로 추측되며 반데르 발스 방정식을 사용하였을 때 구한 값이 좀 더 실제 값에 가까웠음을 볼 수 있다.

<Reference>

1. 차은희 외 1명, 일반화학실험, 3/ed., 자유아카데미, 2016, pp.57~59
2. 김관 외 4명, 화학의 원리, 5/ed., 자유아카데미, 2012, p.A16
3. J. Daintith, 최신 화학용어사전(Dictionary of Chemistry), 대광서림, 2003, p.234
4. 김관 외 4명, 화학의 원리, 5/ed., 자유아카데미, 2012, p.270
5. J. Daintith, 최신 화학용어사전(Dictionary of Chemistry), 대광서림, 2003, p.116
6. wikipedia, "VanderWaalsconstants", [https://en.wikipedia.org/wiki/Van_der_Waals_constants_\(data_page\)](https://en.wikipedia.org/wiki/Van_der_Waals_constants_(data_page))
7. J. Daintith, 최신 화학용어사전(Dictionary of Chemistry), 대광서림, 2003, p.42
8. J. Daintith, 최신 화학용어사전(Dictionary of Chemistry), 대광서림, 2003, p.41
9. 김관 외 4명, 화학의 원리, 5/ed., 자유아카데미, 2012, p.251
10. J. Daintith, 최신 화학용어사전(Dictionary of Chemistry), 대광서림, 2003, p.42
11. J. Daintith, 최신 화학용어사전(Dictionary of Chemistry), 대광서림, 2003, p.233
12. J. Daintith, 최신 화학용어사전(Dictionary of Chemistry), 대광서림, 2003, p.106
13. J. Daintith, 최신 화학용어사전(Dictionary of Chemistry), 대광서림, 2003, pp.360~361
14. J. Daintith, 최신 화학용어사전(Dictionary of Chemistry), 대광서림, 2003, p.270
15. 김관 외 4명, 화학의 원리, 5/ed., 자유아카데미, 2012, p.251

우수상

정유진 미술치료학과



자기 상담 분석 초반 회기



과 목 명 :	상담심리학
담당교수님 :	장석환 교수님
학 과 :	미술치료학과
제 출 일 :	2016-11-16
학 번 :	20156429
성 명 :	정유진

자기상담분석 초반회기 목차

1. 분석보고서 작성

■ 상담 1회기 자기 상담 분석 보고서

I. 내담자와의 이슈 및 문제의 기술

- i. 내담자 요인의 평가
- ii. 상담의 목표 설정
- iii. 내담자의 자기탐색 과정

II. 사용된 기법 설명

- i. 상담초기와 첫면접
 - (1) 내담자 문제의 이해
 - (2) 촉진적 관계(라포)의 형성
 - (3) 구조화

ii. 상담자의 면담법

(1) 경청

- ① 경청의 요령
- ② 선택적 경청
- ③ 경청과 개입의 갈림길

(2) 재진술과 바꾸어 말하기

(3) 요약

(5) 질문하기

(6) 기타

iii. 상담의 기초 이론

- (1) 인간중심적 상담 및 치료

III. 상담 회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 (1) 상담 기법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 (2) 상담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IV. 향후 상담 진행 계획

① 경청의 요령

② 선택적 경청

③ 경청과 개입의 갈림길

(2) 재진술과 바꾸어 말하기

(3) 요약

(5) 질문하기

(6) 반영

(7) 기타

iii. 상담의 기초 이론

- (1) 인간중심적 상담 및 치료

(2) 정신분석적 상담 기법

III. 상담 회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 (1) 상담 기법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 (2) 상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IV. 향후 상담 진행 계획

2. 부록

I. ○○○ 내담자의 초기면담지

II. 상담 1회기 축어록

III. 상담 2회기 축어록

■ 상담 2회기 자기 상담 분석 보고서

I. 내담자와의 이슈 및 문제의 기술

i. 내담자 요인의 평가

ii. 상담의 목표 설정

II. 사용된 기법 설명

i. 상담 과정의 작업

- (1) 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상담자의 선도 반응

(2) 촉진적 관계(라포)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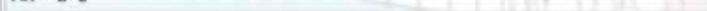
(3) 구조화

(4) 과거와 작업하기

(5) 저항의 출현과 해결

ii. 상담자의 면담법

(1) 경청



■ 상담 1회기 자기 상담 분석 보고서

I. 내담자와의 이슈 및 문제의 기술

i. 내담자 요인의 평가

○○○ 학생이 내담자 역할을 맡고 정유진 학생이 치료사 역할을 맡아 총 5번에 걸쳐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 1회기를 시작하기 전에 내담자에게 초기면담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1회기 상담을 마친 결과를 토대로 내담자 요인을 평가해 보았다. 내담자는 지적 잠재력 차원과 현실판단력 차원에서 큰 문제를 보이는 부분은 없었다. 내담자가 쓰는 어휘, 문법의 정확성, 개념적 사고능력 등을 기초로 보아 지적 발달 수준은 정상적이며,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현실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정서적 차원, 자기 개념 차원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으로 기분변화가 심한 것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기분 변화로 타인에게 괘를 끼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기분 변화로 대인관계 차원에서 과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내담자의 면담, 성별, 직업 등은 초기 면담지에 자세히 첨부했다.

ii. 상담의 목표 설정

1회기의 상담으로 상담의 목표를 바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담 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선드 반응을 통해 내담자의 자기 탐색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내담자가 1회기에서 제시한 현재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는 심한 기분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상담의 일차적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 문제 해결적 목표인 것이다. 나는 내담자의 현재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 탐색을 시도하였으며 2회기에 걸쳐서 이차적 목표 또는 궁극적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 또한 과정적 목표 및 결과적 목표도 1회기에 설정하지 않았고 2회기의 상담을 마친 후에 내담자와 함께 상의를 해서 설정할 수 있었다.

iii. 내담자의 자기탐색 과정

1회기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가 저항을 한 부분이 있었다. '내담자9' 문장에서 내가 기분 변화를 심하게 느꼈던 구체적인 상황을 물었으나 이유가 없다고 대답을 하였고 '내담자11' 문장에서 자신의 기분 변화의 원인을 관 모르는 것에 대해 의아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1회기 상담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기분 변화에 대한 원인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는 '내담자18'과 '내담자21'에서 말한 답변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처럼 내담자는 1회기 상담을 통해 자기탐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II. 사용된 기법 설명

i. 상담초기와 첫면접

(1) 내담자 문제의 이해: 상담 초기의 주요 작업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도움을 청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상담자8'의 문장을 통해 내담자에게 상담을 의뢰한 이유를 물어보았음을 할 수 있다. 또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한 초기 면담지를 토대로 내담자의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2) 촉진적 관계(라보)의 형성: 나는 내담자와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음', '아아' 등의 내담자의 말에 도움을 해주는 반응을 중간 중간 해주었고 내담자의 말에 웃음으로 화답하며 부드럽고 유연한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노력했다. 그 외에 다양한 상담 기법을 적용해 신뢰감을 주려고 노력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I-iii장에서 기술했다.

(3) 구조화: 1회기 초반에 상담에 대한 구조화 작업을 하여 내담자가 상담 장면이 편안하게 적응하게 도와주었다. 상담을 시작할 때 구조화 작업을 통해 상담의 기간이나 시간(상담자7), 비밀 보장의 원칙(상담자5, 6), 상담의 의미(상담자4), 내담자의 역할(상담자4)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상담이 끝나갈 무렵에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속적이고 원활한 상담의 진행을 위해 상담의 의미 및 내담자의 역할(상담자27)을 다시 설명해주어 구조화 작업을 마쳤다.

ii. 상담자의 면담법

(1) 경청

① 경청의 요령: 저서 상담 면접의 기초의 저자와 힐과 오브라이언이란 외국 학자의 경청의 요령을 바탕으로 상담 기법을 분석해보았다. 첫째, 시선을 통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접촉이다. 나는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의 눈(눈)을 마주치며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내담자가 알아차리게 했다. 내담자는 나의 눈마주춤에 처음에는 어색해했으나, 상담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와 함께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났다. 상담방의 눈을 들어보라 쳐다보지는 않았으며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눈을 사용했다. 결국, 상담자의 자세다. 나는 내담자의 긴장과 불안을 풀어주기 위해 이완된 자세(R)로 내담자 쪽으로 약간 몸을 기울여 상담을 진행했다. 나는 허리와 가슴을 펴고 보되하게 표용하라는 자세로 상담을 진행했다. 셋째, 상담자의 몸짓이다. 손을 거칠게 흔들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부적절하고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으며(A)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넷째, 상담자의 언어행위이다. 내담자가 말을 하는 동안후간의 '후', '아아' 등의 언어표현(U)을 통해 내담자가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주려고 노력했다.

② 선택적 경청: 나는 중요한 대목이나 관심 있는 내용, 내담자에게 더 깊은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면(상담자 16, 16, 22, 28) "후, 후"하는 부소리를 더 낸다거나, 소리를 키운다거나, 몸을 앞으로 숙이며 관심을 표시한다거나, 눈을 반쯤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극히 말하는 행동이 중요함을 알렸다. 내담자의 양, 부정적 감정이 언제 뜨거워지는 동안 구체적인 상황을 했었을 때 이 기법을 적용하여 내담자의 주의를 유도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택적으로 무시하였다.

③ 경과와 개입의 설명: 상담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입은 되도록 적게하고 있는 그대로 내담자의 상황과 감정 상태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상담 초기에 자신의 기분 변화의 원인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묻자 대답을 해주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원인지를 바로 지적하지는 않았고 1회기 상담을 수행하였다.

(2) 재진술과 바꾸어 말하기

1회기 상담에서 재진술과 바꾸어 말하기 기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재진술이란 내담자의 말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따라해 주는 것으로, 이번 상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내담자의 말을 똑같이처럼 따라하기보다는 내담자가 표현한 언어를 다른 참신한 언어로 바꾸는 기법인 바꾸어 말하기를 더 많이 사용했다. 바꾸어 말하기가 쓰인 부분은 '상담자10', '상담자11', '상담자12', '상담자17', '상담자24', '상담자28' 등에서 쓰였다. 예를 들어 '상담자17'의 경우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거론한 말에 나는 '그럼 주로 이런 감정들이 화람이나 공부와 관련 되어서 느끼는 감정들이 많은 것이네요'라고 말해주어 바꾸어 말하기 기법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 요약

나는 요약 기법을 적절한 반응에 상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은 채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였다. 요약 기법이 사용된 부분은 '상담자21', '상담자39'에서 잘 나타난다. 내담자의 감정 기분의 원인에 대해 탐색한 부분이 권위지자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주었다(상담자21). 또한 1회기 상담을 마치고 전에 전체 상담에서 나누었던 목표를 정리하며 내담자가 한 달의 구체적인 면을 용량으로 시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5) 질문하기

1회기 상담에서는 전반적으로 질문하기 기법이 많이 쓰였다. 1회기 상담의 질문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개방적인 질문이 많았으며 간접적인 질문보다는 직접적인 질문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포괄적인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자기 탐색을 촉진할 수 있었다. 포괄적인 질문이 쓰인 부분은 '상담자2', '상담자4'에 쓰였는데, 주로 형식적 차원(질문 식사의 여부, 상담의 횟수)을 통해 질문으로 비교적 맑은 반응을 이끌었다. '상담자27'도 포괄적 질문이지만 내담자가 인식하는 다면 측면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하였다. 개방적이면서 직접적인 질문은 '상담자8', '상담자9', '상담자11', '상담자13', '상담자18', '상담자21', '상담자26', '상담자30', '상담자32', '상담자38'가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주로 상담 목표를 설정하거나 선제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경험에서 내담자가 주로 어떤 행동을 하였기를 파악하게(상담자 9, 18, 21) 하고 과거의 주요 경험을 언어화함으로써 내담자의 주요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도 구체적으로 이렇시키는 역할(상담자 32)을 한다. 마지막으로 내담자가 구체적인 반응을 하게 하고, 역의 생활 장면(또는 감정)에서 자신의 행동(또는 감정)을 비교 검토하게(상담자8, 11, 30) 한다. 개방적이면서 간접적인 질문은 '상담자38'에서 보리나는데, 내담자의 말과 상담의 의도를 연결하면서 '라고 할까요'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6) 기타

그외의 반영, 회면, 해석 등 다양한 면담기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회기에서 그렇게 부트리지게 사용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1회기 상담이라면 회면, 회면할 경우 내담자 안에 있는 양이, 부정적인 측면, 저항, 부정적 행동의 부정적인 행위이나 사고, 감정을 알아차리게 해주고 색다른 변화에 도전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데,

초반 회기부터 사용할 시 비판이나 비난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석도 마찬가지로 내담자는 상담자의 해석을 통해 자신의 참조체계보다 더 큰 틀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지나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해석을 거부하면서 화를 내거나 못마땅해 할 수도 있고 표정의 변화 없이 침묵을 지킬 수도 있다. 따라서 해석과 직면은 너무 초반 회기보다는 상담의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자기 탐색이 깊이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해도 좋은 것이라 판단되어 1회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iii. 상담의 기초 이론

(1) 인간중심적 상담 및 치료: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추진적 태도를 취했다. 개진술과 바꾸어 말하기 기법을 사용해 내담자의 감정, 사고, 행동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자세를 보였다. 이 부분은 1회기 상담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상담자27', '상담자28'에서 받을 하기 전의 '음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내담자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상담자 33'을 통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느낀 감정과 태도를 솔직하게 표현해 솔직성, 진솔성, 일치성을 보여주며 라표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솔직성이 쓰인 부분은 많았으나 공감적 이해를 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상대방의 감정을 예민하게 파악하고 내뱉는 표현이 부족해 이 부분의 보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III. 상담 회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1) 상담 기법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이번 상담을 진행하면서 1회기에 필요한 구조화(상담의 의미, 내담자 및 상담자의 역할, 비밀보장의 원칙 등)를 명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상담의 기본적인 틀을 잘 세웠다고 생각한다. 또한 내담자 역할을 맡은 학생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도 긍정적이다. 또한 상담 기법 면에서도 아직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꾸어 말하기, 요약, 질문하기 등의 기법은 많이 사용했으나, 개진술, 반영 기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내담자의 내면감정을 놓치지 않고 전달해 주는 것이 힘들었으며 내담자의 감정을 분화시켜 민감한 감수성으로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개방적 질문이 많은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닫힌 질문의 끝맺음이 대체로 '~나요'로 비슷해 기계적 느낌을 줄 수 있고 간접 질문보다 직접 질문이 많아 내담자를 심문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요약 기법은 대화의 내용과 감정의 요제 그리고 일반적인 줄거리를 잡아내어 은근히 초점을 맞추도록 압박해 내담자에게 더 큰 그림을 보게 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를 찾게 하며, 상담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진척해 나가게 돕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담자21'의 경우, 앞서 닫힌 내담자의 말을 단순히 나열해주는 방식의 요약을 통해 내담자에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내담자11'에서 '그냥 기본 변화가 심하면~' 이란 것 같아요.'라고 말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다른 화제로 넘겨 내담자의 자기탐색의 기회를 마련해주지 못하였다. 경청을 할 때 선택적 경청이 중요인데, 이 부분에서 내담자의 이슈 및 문제에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생각을 한다.

(2) 상담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필기를 하는 행동을 하였는데, 상담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의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상담을 진행할 때 서로 나란히 앉은 것은 좋았으나, 둘 사이의 거리에 대한 조절(S)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담자의 문화적 특성(C)을 고려하지 않아 내담자가 부담을 느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투 면에서는 말을 자연스럽게 잊지 못하고 더듬는 행위(상담자35, 36)가 나타나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IV. 향후 상담 진행 계획

1회기를 진행할 때 시간이 촉박해 은근히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따라서 2회기까지 걸쳐 상담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내담자의 가족 및 주변 환경, 성격적 요인 과의 구체적이고 깊은 수준의 탐색이 이루어지는 상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자기 탐색 및 자기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상담 기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관점에서 서단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상담 기법을 적용하는 시도를 하려고 한다. 인간중심적 상담기법 외에 계속발드 상담기법, 정신분석적 상담기법 등 다양한 상담의 기법을 활용해 효과적인 상담을 구축하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상담 2회기 자기 상담 분석 보고서

I. 내담자와의 이슈 및 문제의 기술

i. 내담자 요인의 평가

○○○ 학생이 내담자 역할을 맡고 정유진 학생이 상담자 역할을 맡아 2회기 상담을 진행했다. 1회기 때 내담자 요인을 평가한 부분이 있으나, 2회기 상담까지 마친 후 더 추가될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기술하였다. 내담자는 지적 잠재력 차원과 현실판단력 차원에서 정상적인 범주에 속하였으나, 정서적 차원과 자기 개념 차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정서적 차원에서 내담자가 주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우울감과 자괴감으로 우울감이 더 보편적으로 느끼는 내담자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또한 이 우울감의 원인은 외부 상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 사고 및 인지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자기 개념에 대해 왜곡된 자기를 형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인관계 차원에서는 과거에 비해 현재 많이 개선된 측면을 보이나, 여전히 타인을 대할 때 위축되어 있고 낯을 가리는 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하게 위협한 수준은 아니며 소수의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 상담의 목표 설정

2회기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 내담자의 당면 문제는 심한 감정 기록으로 인한 피로음이지만 성격 문제는 반복적인 부정적 사고로 인한 인지적 왜곡에 있었다. 따라서 내담자가 말하는 상담의 일차적 목표는 감정 기록을 해소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내담자의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긍정적 생각을 하도록 촉진시키며 그 생각의 변화로 부정적 감정을 줄이는 데에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차적 목표 또는 궁극적 목표로 내담자의 긍정적 자기상 및 세계관을 구축해 자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해 당면 문제해결을 넘어서 내담자가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유연해지며 자기 실현을 하도록 돕는다.

II. 사용된 기법 설명

i. 상담 과정의 작업

(1) 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상담자의 선도 반응: 상담자는 상담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바람직하게 설정되도록 내담자에게 요령 있는 반응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선도 반응과 상담의 목표 설정의 관계는 다음의 네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상담자나 내담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한다. '상담자16'에서 나는 내담자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묻음으로서 자기탐색과 자기이해를 넓혀 목표 설정에 다가갈 수 있는 선도 반응을 했다. 둘째, 구체적인 경험에서 내담자가 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한다. '상담자44'는 우울함을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지를 물어 구체적인 경험에서 내담자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질문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또 '상담자48'은 내담자와 주변인과의 갈등을 물어 구체적인 경험에서 내담자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 셋째, 과거의 주요 경험을 언어화함으로써 내담자의 주요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도 구체적으로 이해시킨다. '상담자37'은 내담자의 초등학교 때의 주요 경험을 파악하게 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묻음으로서 자기탐색을 시도한 부분이다. 이처럼 나는 선도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던져 내담자의 목표 설정을 도울 수 있었다. 이 과정을 거쳐 내담자에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싶냐고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내담자는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를 한 부분을 바탕으로 적절한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

(2) 촉진적 관계(라포)의 형성: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흔히 공감적 이해, 수용적 존중, 일관적 성실성의 세 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 이는 인간중심적 접근법에서 말하는 상담기법에 부합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II-iii에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3) 구조화: 1회기 때 구조화 작업을 진행하기는 했으나, 전회기에 걸쳐 상담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조화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과정은 중요하다. 1회기에 비해 구조화를 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상담의 의미와 상담에서의 역할을 언급해주는 것은 상담 진행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상담자60'에서 이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4) 과거와 작업하기: 2회기에는 내담자의 과거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통해 당면 문제와 성격 문제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내담자18'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심한 기분 변화의 원인을 가족내력이라고 생각했

다는 부분에서 '내담자20~상담자37'까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었으며, '내담자37~47'은 초등 학교의 기억을 탐색해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된 원인을 파악하게 하였다. '내담자48~52'는 자신의 감정기록으로 인한 과거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해 통찰의 작업을 시도하도록 하였다.

(5) 저항의 출현과 해결: '상담자29'에서 어머니가 안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에 내담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미적지근한 반응을 하였다. 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통찰을 머리 수준으로만 하는 부지와 반응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내담자에게 구체적으로 '가족에서 혹시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던져 내담자의 감정상태를 확인하였다.

ii. 상담자의 면담법

(1) 정성

① 정성의 요령: 저서 상담 편집의 기초의 저자와 힐과 오브라이언이란 외국 학자의 정성의 요령을 바탕으로 상담 기법을 분석해보았다. 첫째, 시선을 통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접촉이다. 1회기와 달리 2회기 때에는 되도록 편기를 하지 않고 내담자의 눈을 맞추는 시간(E)을 늘려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눈길을 보였다. 내담자는 1회기에 비해 더 안정된 자세를 갖추고 상담을 하려고 했다. 둘째, 상담자의 자세다. 상담자는 내담자쪽으로 몸을 비틀어 앞으로 고개를 숙여(O) 내담자의 긴장을 이완하려고(R) 했다. 셋째, 상담자의 몸짓이다. 나는 팔꿈치를 끼거나 손을 흔드는 등의 자세는 피하려고(A) 노력했으며 내담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N) 1회기와 달리 내담자가 동양인이라는 점에서(C) 허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담자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S) 정성을 했다. 넷째, 상담자의 언어행동이다. 나는 내담자가 말하는 중간중간에 추임새(U)를 넣어 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1회기에 비해 개선된 자세와 태도로 정성에 임할 수 있었다.

② 선택적 정성: 내담자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감정기록의 원인이 가족내력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화제를 꺼냈다. 내담자의 가족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껴져 '상담자26', '상담자27'에서 '음음', '아아' 등의 목소리를 내 소리를 키우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등 선택적 정성의 자세를 취하였다. 또한 내담자의 과거를 탐색하는 부분인 초등학생에서의 경험을 탐색한 '내담자38', '내담자40'에서 눈을 반짝이고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자세로 눈을 더 많이 마주치며 정성을 하였다.

③ 정성과 게임의 갈림길: 1회기와 달리 2회기에는 정성을 하면 중 게임은 한 부분이 있었다. 내담자의 가족내력에 대해 파헤친 부분은 좋았으나, 이 부분은 내담자 자신이 아닌 제 3자에게 초점을 맞춘 부분이라고 판단해 '상담자37'에서 내담자의 자기이해와 자기탐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화제를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 게임의 횟수가 많지는 않았으며 있는 그대로 내담자를 존중해주는 자세를 위해 게임보다 정성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2) 재진술과 바꾸어 말하기

2회기의 상담에서도 1회기와 마찬가지로 재진술과 바꾸어 말하기 기법이 많이 쓰였다. 재진술이 쓰인 부분은 '상담자38', '상담자38'에서 할 수 있고 바꾸어 말하기가 쓰인 부분은 '상담자14', '상담자19', '상담자22', '상담자41', '상담자46', '상담자47'에서 할 수 있다. 1회기에 비해 재진술이 쓰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령 '상담자38'에서 언니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한다는 내담자의 말에 '언니를 편하게 느끼시나요?'라고 반응해 재진술을 하였다.

(3) 요약

상담의 처음과 끝부분을 요약함으로써 대화의 내용과 감정의 요제 그리고 일반적인 즐거움을 잡아내었다. '상담자9', '상담자10'은 1회기 내용을 요약한 문장이고 '상담자54'는 2회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다. 그러나 상담 중간중간에도 내담자의 말이 길어져 이야기를 정리할 필요를 느껴 요약을 해주었는데, '상담자28', '상담자29', '상담자37', '상담자52'에서 할 수 있다. '상담자 28, 29, 37'은 내담자의 가족 내력에 대해 요약한 부분이고 '상담자52'는 어머니에 대한 내담자가 느끼는 양가감정을 요약해 말해준 부분이다.

(5) 질문하기

2회기에도 질문하기 기법은 자기 탐색 및 자기 이해를 위해 중요한 기법으로 쓰였다. 폐쇄적 질문보다 개방적 질문이 많았으며 간접 질문보다 직접 질문이 많았다. 개방적 질문이면서 직접 질문을 한 부분은 '상담자3', '상담자10', '상담자24', '상담자30', '상담자31', '상담자40', '상담자49'이고 질문하기 유형으로 가장 많이 쓰였다. '왜'보다는 '어떻게'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 내담자의 감정을 탐색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반면 폐쇄적 질문이면서 직접 질문을 한 부분은 '상담자7', '상담자48'이다. '상담자7'은 상담의 주제와는 관련이 적었기 때문에 내

담자의 짧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화제를 바꾸기 위한 시도였으나, '상담자48'의 직면법은 포괄적 질문에서 개방적 질문으로 바꾸어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한다. 반면 개방적 질문이면서 간접 질문을 한 부분은 '내담자37'인데, '~라고 했는데요'로 마무리지음으로써 관심을 보일 수 있으면 질문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6) 반영

2회기에 반영이 소인 부분은 '상담자50'이다. 어머니와의 마찰에 대해 말하는 내담자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해 나는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내담자의 감정상태를 읽고 반응해주었다. 내담자의 말에서 표현된 감정의 정도만큼 반응을 해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상담자21', '상담자29'은 반영의 깊이가 너무 깊어 해석이 되고 말았다. 내담자의 감정기복이 가늠내릴 수 없다는 말을 하였으나 그것으로 인해 내담자 자신이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자21'에서 '○○ 씨를 힘들게 한 부분이 있었나요'를 꺼내 내담자 쪽에서 부인하는 반응을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감정기복이 심하지 않다는 말에 '상담자29'에서 '물 안심이 될 수도 있고 가늠 내에서' 등의 말을 꺼내 내담자가 말하지 않은 의미를 절가해 내담자가 받아들이기 부담스럽다고 느꼈다.

(7) 기타

그외에 해석, 직면 등의 기법은 2회기에서 소인 부분은 거의 없다. 아직 초반 회기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감정상태를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했으며, 바꾸어 말하기, 재진술, 질문하기, 요약 등의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iii. 상담의 기초 이론

(1) 인간중심적 상담 및 치료: 나는 내담자와의 속진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인간중심적 상담기법을 활용해 상담에 임하였다. '상담자6', '상담자17'에서 내담자의 상황과 입장에서 공감적 자세로 임하려는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고 '음음', '아' 등의 목소리를 내어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다. 내담자에게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자세를 취해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다음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나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느낀 감정과 태도를 솔직하게 표현했는데, '상담자21', '상담자29', '상담자59'에서 알 수 있다.

(2) 정신분석적 상담 기법: 정신분석적 상담 기법은 내담자의 방어기제를 탐색하고 과거의 무의식을 파고들여 의식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룬다. '내담자17'에서 내담자는 충학교 퇴 이후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힘들다고 말함으로써 그 이전의 경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상담자37'에서 볼 수 있듯, 충학교 이전의 더 지난 과거의 경험을 파고들여 과거를 재탐색하는 질문을 먼저 내담자의 자기이해를 보였다. 과거의 고개를 중요하게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입장을 취해 내담자의 성격 형성의 요인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III. 상담 회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1) 상담 기법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2회기 상담에서 나는 내담자에게 올바른 경청의 자세를 갖고 상담에 임하였다. 1회기에 비해 경청의 요령을 더 많이 활용해 상담에 임하여 내담자의 다양한 역동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재진술, 바꾸어 말하기, 반영, 요약, 질문하기 등의 기법을 사용해 내담자의 통찰의 수준을 한층 더 이끌었다. 그러나 반영하기 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많고 내담자의 감정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지 못해 더 많은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나의 질문을 할 때 하나만 묻어야 하는데 '상담자37'과 같이 이중질문을 사용한 부분도 보였다. 그러나 상담자의 적절한 선드러움을 보이고 인간중심적 접근과 정신분석적 접근을 사용해 상담을 진행한 부분은 상담목표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상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상담자27'처럼 나의 해석이 맞지 않았을 때 당황하여 말을 더 들거나 제대로 말을 잊지 못하고 질문을 남발하면서 불안한 감추려 모습을 보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IV. 향후 상담 진행 계획

내담자의 부정적 생각들을 줄이고 긍정적 생각을 키우기 위해 인지행동적 상담 기법을 적용해 인지적 왜곡을 발견하고 통찰하도록 상담을 이끈다. 생각의 변화로 내담자의 성격 문제를 다루고 감정안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의 예민한 감정을 다루는데 초점을 맞추어 인간중심적 상담기법을 적용해 신뢰할 수 있는 상담 관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해석과 직면을 통해 변화의 위한 부분들과 저항을 극복하도록 이끈다.

■ 부록

I. 000 내담자의 초기 면담지

초기면담지 (Intake)					A. No	
					Date	11/2
					T.	
내담자 신상						
성명	000	성별	여자	생년월일	980920(만 20세)	
주소	의정부 거주			연락처	010.2622.9671	
직업	대학생			결혼여부	미혼	
학력		종교	무교	경제상태	중	
정보제공자		의뢰기관	자발적 의지	세션비용	무료	
장애유형	해당사항없음	정신과치료경험		없음		
		미술치료경험		없음		
주 호소문제	심한 기분 변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가족배경						
관계	성명	연령	직업	특이사항		
어머니	윤윤아(가명)	46세	주부	어머니와 과거 갈등을 겪음		
아버지	문문성(가명)	66세	자영업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다.		
언니	정혜인(가명)	22세	대학생	가족 가운데 가장 친하다고 함		
내담자 정보						
1.인적사항	000 내담자는 의정부에 거주하는 만 21세 여성으로 현재 차의과학대학교에서 미술치료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 2년을 재학 중이다.					
2.생육사, 과거력	내담자는 출생부터 지금까지 의정부에 거주해 살아왔다. 초등학교부터 재학 시절, 심한 감정 기복을 가지고 있었고 감정 기복의 내력은 가족에 기인한다고 보이며 외부 환경에 의해서 기복이 심하다고 보다는, 주로 내부적 요인에 의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자랐다. 내담자의 주변 감정은 우울감으로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 피해를 끼쳤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 초등학교와 의정부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학과에 입학해 대학 2년의 재학생이다.					
3.가족력	내담자는 아버지, 어머니, 언니와 함께 네 식구를 이루고 있다. 가정에서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은 감정 기복이 심한 편으로 특히 아버지는 가정 내에서 권위적이고 부부불화하며 가부장적이지지만 가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는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지만 어린 시절 내담자는 어머니와 갈등을 겪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에 비해 현재 가족 간의 관계는 호전적이며 사이가 좋다고 한다. 가족 내에서 언니와 가장 친하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4.장점과 약점	(1) 장점: 조용하게 확실한 자신이 많은 타를 수행한다. 그리고 타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깊고 걱정을 해주려고 노력한다. (2) 약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낯가림이 있다.					
제시된 문제(Presenting) 분석, 평가						
현재 발달 수준 및 문제	인지행동론	내담자는 인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때가 많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과거에는 학부가 믿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거나 좌절을 내며 최상의 하루종일 알뜨며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내담자는 부정적인 생각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는 있으나, 이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져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부정적 생각으로 인해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고 괴롭다고 말한다.				

II. 1회기 축어록

상담자1: (웃으면서)안녕하세요.

내담자1: 안녕하세요.

상담자2: 오늘 아침은 든든하게 먹고 오셨나요?

내담자2: (작은 목소리로)네, 아침 잘 먹고 왔어요. (수줍게 웃는다.)

상담자3: 하하, 네. 저희 상담 센터를 찾아와 주셨는데, 상담이 어떤 것인지 알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내담자3: 음, 그냥 고민 이야기하고 고민..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상담자4: 아아, 네. ○○ 씨처럼 상담이라는 게 너무 막 그렇게 너무 거창하거나 너무 우리, 우리의 삶이란 너무 뽕뽕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좀 일상의 문제를 좀 해결해나가도록 저는 그냥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만난 게 오늘 처음이잖아요?

내담자4: 네.

상담자5: 네,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 놓기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해주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겠지만, 네, 너무 그렇게 부담감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이 상담 과정에서 하는 모든 내용은 다 비밀보장이 되니까 안심하고 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담자5: 예.

상담자6: 하지만 ○○ 씨가 너무 자신에게 위협,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나 타인에게 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그런 가능...여지가 보일 때에는 그때를 제..그때를 제외하고는 주변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제가 다른 경우에는 다 비밀보장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웃음을 짓는다.)

내담자6: (내담자도 상담자에 따라 웃는다.)

상담자7: 이 상담이라는 게, 그냥 정말 자신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시간은 30분 정도 될 것이고 일주일에 1번씩 5회기에 걸쳐서 상담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담센터를 찾아오시게 되셨잖아요.

내담자7: 네.

상담자8: 이곳을 방문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내담자8: 음..요즘을 기본 변화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 왔어요.

상담자9: 아아, 최근에 기본 변화를 심하게 느꼈던 상황이 있었을까요?

내담자9: 음, 그냥 이유 없이 구체적인 상황은 떠오르지 않는데, 이유 없이 너무 불안하고 막 그러다가, 음, 또 이유 없이 갑자기 굉장히 우울해지고 자괴감이 들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상담자10: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본의 변화 폭이 다른 사람들보다 크다고 느끼시는..

내담자10: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담자11 (웃으며) 그러면 자신의 기본변화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의 정적이 흐른 후) 이렇게 기본 변화가 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시나요?

내담자11: 그냥 기본 변화가 심하면 네 그냥 그런 생각..좀 의아한 것 같아요. 이해가 안되요.

상담자12: 아아, 네, 자신의 그 기본 변화에 대해서 그 스스로도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일 때가 많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웃음)

내담자12: 네.

상담자13: 아까 말씀해주신 감정 중에 대개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즐거움도 있었고 우울감이나 자괴감이 라는 여러 감정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우울이나 자괴감같은 감정은 언제 느껴보셨나요? 그니까, 어떤 때 느끼나요?

내담자13: 음..우울감같은 감정은 그냥 평소시에.. 음, 자괴감은 (웃음) 과제 하기 전에?

상담자14: (웃음)

내담자14: 아니면 시험이나 과제가 있을 때?

상담자16: 아아.
 내담자15: 좀 뭐..해야 할 일이 있는데 준비가 안되어 있을 때..
 상담자16: 음..
 내담자16: 우울감도 그때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상담자17: 그럼 주로 이런 감정들이 학업이나 공부와 관련 되어서 느끼는 감정들이 많은 것이네요.
 내담자17: 그런 것 아닐까요? 음. 그런 학업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무언가 제가 다른 사람처럼 많이 비교를 하는 것도 그래서 더 그런 감정도 많이 들어요.
 상담자18: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음..구체적인 상황이 있었을까요? 이것과 관련된..?
 내담자18: 음. 우선 최근에 최근에..학교에서 시험이 있었는데.
 상담자19: 네
 내담자19: 시험을 보고 성적같은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그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점수가 좋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상담자20: 으음.
 내담자20: 그런데 또 그렇게 약간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만큼 노력을 안한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들고
 상담자21: 아아. (웃음) 어. 그러면 ○○ 씨는 지금 기분 변화가 심하신 편이라고 하셨는데, 기분이 좀 다른된 상태일 때는 주로 타인과의 비교를 할 때라고 하셨고 이 타인과의 비교는 이제 시험이나 성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반대로 즐거운 감정은 언제 드시나요?
 내담자21: 그냥 '아,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 할 때는 커피를 마신 다음이나
 상담자22: (웃음)
 내담자22: 그냥 날씨가 좋을 때?
 상담자23: 아아.
 내담자23: 진짜 그런 이유로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상담자24: 아아, 대개 소소한 데에서 즐거움을 느끼시네요.
 내담자24: (웃음을 짓는다.)
 상담자26: 사실 날씨 좋다는 것이랑 커피라는 것 자체가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네. (웃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담자26: 음..
 상담자26: (웃음)
 내담자26: 그럴 갑자기 즐거운 때를 생각하니까 그것 것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상담자27: 아아. (약간의 정적이 흐른 후) 음. 그것 외의 부분에서 즐거움이 느껴지는 때는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는.. 생각이 안나는 건가요?
 내담자27: 음.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같은 것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되게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상담자28: 아아, 오히려 그러면 긍정적인 감정은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주로 개인적인 취미나 그런 자신만의 그 흥미로운 일을 할 때 더 행복을 느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담자28: (작은 목소리로) 네
 상담자29: (웃음)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담자29: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담자30: (웃으면서) 그 기분 변화가 있으시다면 하루에 그 변화의 빈도가 얼마나 잦다고 느껴세요?
 내담자30: 진짜..뭐 텅날 다르기는 하지만, 진짜 수시로 변하는 것 같아요..
 상담자31: 음..
 내담자31: 좀 오래 지속될 때도 있고 아니면 바로바로 변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바로바로 변하기보다는 그래드 몇 시간 정도면 지속되다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또.. 그러다가도 이유 없이 바로 변하기도 하고.
 상담자32: 으음.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이렇게 자신의 기분 변화가 심한 것에 대해서..심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자신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내담자32: 음.. 안정되지 못한다? 불안정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상담자83: (정적이 흐르고 작은 목소리로) 안정되지 못하다..불안정하다.. 그러면 오늘 오시게 된 이유가 이 상담을 통해서 보다 좀 안정된 자신을 찾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라고 볼까요. (웃음)

내담자83: 맞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담자84: (크게 웃음)

내담자84: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담자85: (웃으며) 네. 제가 느끼는 바를 말하는 것이지..것이니까..거예요. (정적이 흐른 후에)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다보면 기분 변화를..기분 변화는 사실 누구나 있는 것이잖아요?

내담자85: 네

상담자86: 사실 이것을 대개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 씨는 이 문제를 호소..이 문제를..아, 이 상황을 어..면담지를 보시면 무 호소문제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좀 큰..크게 인식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담자86: 음..

상담자87: 있을 지가 궁금해요. (웃음)

내담자87: 그냥 어렸을 때부터 기분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상담자88: 아.

내담자88: 그래서 혼자 의식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분 변화가 심할 때 무언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담자89: 음.. 그러면 오늘 ○○ 씨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 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예민 씨는 기분변화를 크게 느끼시는 부분으로 이곳을 방문해 주셨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주로 개인적인 부분이나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기쁨을 느끼시고 반대로 시험이나 학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우울감이나 자괴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으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이 크다고 말씀 주셨네요.

내담자26: 네, 맞아요. 잘 이해해주셨네요.

상담자26 (웃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상담 목표를 정할 수도 있지만 ○○ 씨의 이야기를 2회기 때 더 이어서 듣고 난 다음에 상담 목표를 구체화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내담자27: 네네, 좋아요.

상담자27: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상담은 저 혼자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너무 상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 편한 친구와 이야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센터에 찾아와주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상담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내담자28: 네, 감사합니다.

상담자28: 네, 저도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조심하러 들어가세요.

III. 2회기 축어록

상담자1: 저 안녕하세요.

내담자1: 네, 안녕하세요.

상담자2: (웃으면서) 지난 한 주동안..

내담자2: 네.

상담자3: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내담자3: 아, 저 아팠어요.

상담자4: 아! 어디가 아픈거라거나.

내담자4: 몸살 기운이 좀 나세요. 네

상담자5: 아아, 어떡해..

내담자6: 네.

상담자6: 어떻게, 약속 잘 드시고.

내담자6: 네, 약 먹고 있어요.

상담자7: 네, 요새 밥씨가 갑자기 후회했죠?

내담자7: 아, 네, 많이 후회서.. 저보 감기의 걸린 것 같아요.

상담자8: 아이고, 맞아요. 사실 저보 약간 비감기의 한 것 같아요. 저보 저번 시간의 상담 도중에 상담 걸린 걸 하면.. 이제.

내담자8: 네.

상담자9: ○○ 씨께서 감질 기분이 심하다는 주제로 이처를 찾아와 주셨고 이 감질의 원인을 파악 하보 받으셨던 행복이나 소소함에서..

내담자9: 네.

상담자10: 부정적 감정을 느끼실 때가 많고 부정적인 감정을 주제로 말하셨던 심취 면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심취가 보일 면에서.. 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감정을 표현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럼요 요새 이보 감질 상태가 어떤지 물어 수 있을까요?

내담자10: 좀 지난 부의 아파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담자11: 아아, 기분이 그러면 1에서 10이면 보통 1의 나쁨이든 10의 행복이든 보통 5 정도면 부의 기분 상태를 평가 하던지 있었는지..?

내담자11: 한 3? 3-4?..

상담자12: 네, 많이 아파가지고..(웃음)

내담자12: (웃음)

상담자13: 그럼 그런 심리적인 부분 보든 다른 심리적인 부분에서 혹시 또 감질 기분이 심했던 부분이 있을.. 있을까요?

내담자13: 으음, (잠재 생각하다가) 아니요, 그렇게 지랄 생각나면 것은 없었 것 같아요.

상담자14: 아아, 그러면 딱히 지랄 딱 떠오르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요?

내담자14: 네.

상담자15: (웃음 부 감질의 이어진다).. 그럼 ○○ 씨가 말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담자15: 음, 부정적인 감정은.. 뭐.. 화가 나거나?.. 우울했거나? 무기력했거나? 아.. 보 딱히 많이 안좋은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요. 네.

상담자16: 네, 아, 그러면 과거에 안쪽 이런 감정을 통해서 이제 말했었던 적이 있었는지 물어볼요.

내담자16: 아..(정적인 표현 후) 고8 때?

상담자17: 아아, 고8 때, 고8은 진짜 말해요.

내담자17: (웃으며) 좋았든 때 이후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중2?

상담자18: 중2..?

내담자18: 네, 중2. 그런데 기분 변화가 심하게 가끔 내렸던 것 같기도 하고.

상담자19: 으음, 그러면 가끔 중2 이와 비슷한 기분이 있던..

내담자19: 다요.

상담자20: 아아, (웃음)

내담자20: (웃음) 엄마가 그나마 좀 양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가족들이 좀 억만한 것 같기도 하고. 네, 한 지내면 네 가림씩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안그러는데 과거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상담자21: 그게 이제 ○○ 씨를 힘들어 한 부분이 있었나봐요.

내담자21: 아니.. 그런 건 없었어요.

상담자22: 아, 그냥 가족이 그냥 다 기분이 심한 것 같다..?

내담자22: 네, 그래서 저보 그렇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담자23: (웃음)

내담자23: 가족내력..

상담자24: 네, 그런 생각 할 수 있지요. (긴 침묵이 흐른 후) 그러면 이제 가족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는지가..그니까 언제, 그니까 그런 걸 크게 느꼈는지? 가족끼리 있을 때.

내담자24: 아, 제가...제가요?

상담자25: 아, 아니요, 가족 중에서요.

내담자25: 아..(약간의 정적이 흐른 후) 언니같은 경우는 갑자기 엄청 막 관해주다가 뽀뽀 있다가 또 갑자기 뭐라고 해야 하지, 그게 관해주다가 뽀뽀 안지나서 이제 기분이 다른편 것처럼 보이고.. 이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상담자26: 으음.

내담자26: 아파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보다는 좀 그 겁이 크다고 해야 하나? 좀 기분 파악 좀 아닐 때? 이런 때? 아파가 집에 들어오면 그냥 오날 아파의 기분은 어떤지를 가장 제일 먼저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담자27: 아아.

내담자27: 왜냐하면 아파에 의해서 화지우지가 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기도 하는..그런 것들? 암마는 그렇게 많이 생각은 안해왔는데.. 암마는 그나마 양호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상담자28: 그럴 ○○ 씨 말을 정리해 보면, 언니의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관해주다가..아, 항..어쩔 때는 관해 주는데 또 어쩔 때는 갑자기 태도가 틀변해서 그런 걸로 기분이 심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고, 이제 아버지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냥에 따른 기분 상태가..상태의 변화가 좀 심해서..

내담자28: (웃음)

상담자29: (웃음) 네, 그래서 좀 불편이 심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내에서 좀 거부감적인 이미지가 있으시다고 하셔서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 약간 집안이..집안 분위기가 흔들리는 그게 좀 있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나마 좀 기분이 다른 가족에 비해서는 편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좀..안심이 될 수도 있고..가족 내에서, 어찌보면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편한..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담자29: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담자30: (웃으면서) 하하, 가족에 대해서 그럴 이제 어떻게 느끼시는지?

내담자30: 음?

상담자31: 이 가족에서 혹시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내담자31: 으음..가장 편한 것은 언니..

상담자32: 아아.

내담자32: 네, 저는 언니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해요.

상담자33: 아, 언니를 편하게 느끼시나요?

내담자33: 네.

상담자34: 네, 언제 편안함을 느끼세요?

내담자34: 그냥 같이 있을 때 솔직히 친구보다 더 오래된 사이니까 같이 있을 때는 편한 것 같아요.

상담자35: 음..

내담자35: 그리고 서로 개그보기도 잘 맞고 (웃음)

상담자36: 아아.

내담자36: 같이 있을 때 즐겁고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상담자37: 으음, 네, 그러면 이제 가족 이야기는 이제..가족 이야기는 역기 이쯤으로 해두고 이제 ○○ 씨의 본제인 감정 기복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씨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보면 이제 ○○ 씨의 감정 기복의 내력은 이제 가족들이 너무 감정 기복이 많은 것처럼 자신도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그리고 이 감정 기복에서도 어머니는 좀 편하시지만 나머지는 감정 기복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대상은 언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감정 기복이..그리고 감정 기복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좀 많이 느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때는 이 부분 어떤 감정을 느꼈고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았던 편이라고 할리네요.

내담자37: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사춘기가 왔는지.. 음..네. 주변 친구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상담자38: 아, 그러면 ○○ 씨의 기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다고 느끼시는 것...

내담자38: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피아실에 학교 가서 업드려서 있고 그랬거든요. 기분이 너무 안좋아서. 그래서 친구들이 왜 그러는지 물어 달을 물어오다보면 짜증만 내고..네, 그랬던 것 같아요.

상담자39: 으음.

내담자39: 네. 잘 대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담자40: 그때 ○○ 씨는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내담자40: 항상 잘 정확하게 너무 낯선 일이라서 기억은 안나는데 우선은 우울한 감정이 커서 그 당시에는 되게 짜증이 났는데 또 하루 지나갈 때쯤에 생각해 보면, 아니면은 학교할 때쯤에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왜 그랬지?'라고 좀 후회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좀 그렇게 대한 것 같아요.

상담자41: 그러면 이제 ○○ 씨는 과거에 우울함을 많이 느꼈지만, (웃으며)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이제 또 타인을 또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웃음)

내담자41: (웃음)

상담자42: 사실 이 우울함이라는 감정이 이제 이 사람은 느끼지 않는데, 애는 느끼는... 사실 보면 사람들이 다 우울한 감정을 조금씩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담자42: 네.

상담자43: 네, 사실 이 감정이라는 게 사람으로서만 정답 대개 당연한..당연하고 감정이 일어난다는 게 그럴 수가 있는데, ○○ 씨가 생각하는 우울함을 느낄 때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런..네.

내담자43: 우울함. 으음. (고민을 한 후) 우울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상담자44: 아니면은 우울함을 주로 과거에는 어떤 상황에서 느꼈는지?

내담자44: 음.. 상황이랄기보다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 그런..혼자 생각하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우울해하고.

상담자45: 아아.

내담자45: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울함을 느꼈다. 이렇게 이었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담자46: 아아. 그러면 주변 상황보다는 이제 자기만의 생각에 의해서 우울하다는 감정이 생기게 된... 된 것이네요?

내담자46: 네, 그런 것 같아요.

상담자47: (웃음) 그리고 이제 이 우울한 감정으로 인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나 상처를 부지는 않았을까 하고 염려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내담자47: 네. 맞아요.

상담자48: 혹시나 자신의 감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겪었던 부분이랑만가, 갈등을 겪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내담자48: 한창 예민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친구들보다는 가족들한테 편하고 그러니까, 막 대하는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막 대한다기 보다 편하게 대하는 그런 게.. 그래서 그때는 집에 가서 많이 피장을 부리고..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랑 마찰이.. 엄마랑 마찰이 있었어요. 제가 기분이 안좋아서...제가 기분이 안좋으면 달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달도 안하니까 엄마가 달달해하고 하를 달에 대답도 안하고 이러니까 막 혼났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상담자49: (정적이 흐른 후) 그때 엄마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내담자49: 으음. '왜 나를 이해를 못해줄까?'라는 그런 생각?

상담자50: 많이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담자50: 음, 네. (정적이 흐른 후)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제가 좀 이해해주길 바라면서 아무 달도 안했으니까..네, 오히려 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입을 닫아버리니까..

엄마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상담자51: 아아.

내담자51: 지금 생각하니깐 이해가 되네요. (웃음) 죄송한 것 같기도 하고..

상담자52: 아아. 그러면 어머니에 대해서 자신의 기분이 좀 안좋은 상태였을 때,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는.. 동시에 또 어머니의 행동이 또 이해가 가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인제 현재 이제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지..?

내담자52: 환경 괜찮아요. 진짜로. 가족 내에서 큰 드러본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어서.. 할상 잘 지내요.

상담자53: 으음.

내담자53: 가족 관계는 언제나 괜찮았습니다.

상담자54: 그러면 오늘 ○○ 씨의 의견을.. 아니 오늘 ○○ 씨의 이야기를 꼭 물어보았는데, 인제 오늘 했던 상담 회기를 한번 꼭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아, ○○ 씨가 저번 주에 느꼈던 감정상태가 8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8있던 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부정적 감정을 느낀게 아니라 감기를 삼프 인해서 느낀 신체적인 부분으로 인한 그런 감정 상태였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감정 기록을 심하게 느꼈다고 생각했던 때는 현재보다 주르 과거에 그 감정 기록을 많이 느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특히 감정 기록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끼쳤을까봐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같다고 말해 주셨고..

내담자54: 네.

상담자55: 이제 그 중에서도 엄마..와의 관계에서 인제 그.. 자신의 감정 기록으로 인해.. 이제 감정 기록을 좀.. 본술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저번 시간에 이제 상담 목표를 정하지 않고 끝냈었잖아요.

내담자55: 네

상담자56: 네. 그래서 상담 목표를 인제 정하고 이번 회기를 마치려고 해요.

내담자56: 네.

내담자57: ○○ 씨는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의 상담을 꼭 해오면서 이제 ○○ 씨가 생각하시는 상담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내담자57: 음.. 좀 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상담자58: 음..

내담자58: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상담자59: 네. ○○ 씨와 이야기를 나는 후에.. 나는 후에 생각한 것은 아, 나는 후에 제가 정리를 해보면 정답이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어떤 외부 상황에서 비롯될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과거의 경험부터 꼭 물어다 보았을 때에는 자신만의 인제 생각으로 인해 그런 감정을 느낀 때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앞으로 3회기가 남았지만, (웃으며) 짧은 기간이지만, 상담의 목표를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보다 발전적인 생각을 하도록 변화시키고 그 생각의 변화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데에 이제 목표를 두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담자59: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담자60: (웃음)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상담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상담을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아요.

내담자60: 네.

상담자61: 이제 상담이라는 게 사실 몇 번 한다고 그렇게 한 번에 바뀌는 부분도 아니고.. 아니지만 아니고. 이제.. (웃은 후 정적이 흐른 다음에) 이제 상담의 목표가 이제 단번에 달성되는 것도 아니네요. 하지만 계속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제보다는 더 오늘이 좀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담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너무 '자기를 변화시켜야 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앉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를 털어 놓는다는 생각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내담자40: 네, 안녕히 계세요. (웃음)

장려상

김태호 보건의료산업학과

<p>리포트 주제 선정 과정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p>	<p>수업의 과제로 ‘고령화와 국내 보건의료시스템’ 또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와 국내 보건의료시스템과 관련하여 에세이 형식에 기반 하여 근거를 토대로 5장 이내에서 비판적으로 논하는 것이 과제의 주제였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관련된 지식에 대해 학습욕구가 생겼기 때문에 고령화를 선택하여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학부 수준에서 저의 리포트 작성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기 위해 교내 리포트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주제에 관련하여 제약이 크지 않아 주저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기타 사항 (리포트 작성 과정에서 특별한 점, 조별 과제의 경우 역할 분담 등)</p>	<p>과제는 단독으로 진행하였고 자료 출처는 일관성과 신빙성을 위하여 대부분 통계청 및 KOSIS에서 참고하였습니다. 표기한 자료는 대부분 표 형식이며 해당 사이트 내의 카피킬러 검토 결과 14% 수준의 카피율을 보였는데 생각보다 높은 카피율이 역올할 정도로 근거를 토대로 저의 생각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습니다.</p>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000만 명이며 그중 60세 이상의 인구는 1,000만 명 수준이다. 현재의 인구성장률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맥시멈을 찍고 2060년에 4,300만 명 정도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노인 인구의 비율은 해마다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청년층의 인구비율이 줄어들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늘어나는 수명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해마다 국가에 대한 복지의 욕구는 늘어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며 의료비 지출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이지 않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미래일 것이다. 본 에세이에서는 거버넌스, 재정, 인력 및 자원 순으로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을 간략하게 살펴봄과 동시에 인구 고령화가 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거버넌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관련한 정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노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정책관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중앙의료원·대한적십자사·국립암센터·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건강증진재단·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및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가입자 보호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건강검진·증진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자산 관리·운영 업무 등을 관할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중앙정부적인 요소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진다. 특히 급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수입과 지출의 적절한 균형 유지를 통해서 미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하는 단계에서 고령화를 빼놓고는 정책을 세울 수 없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가 있다.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등록 사단법인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

비한 노인복지증진과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민간단체이다. 노인복지시설, 기관, 단체 상호간의 이슈 및 여론, 노인복지 동향 및 흐름에 대한 노인복지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론을 일원화 하여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노인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신 거버넌스의 출현으로 인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는 시점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대한민국에서 정책 수립 과정 중 노인관련 단체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연한 것이 정책은 정부에서 수립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그 국민들은 노인이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정책은 지극당장 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변수가 많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여기저기 얽혀있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여서는 완벽한 미래 대책을 수립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단체 또한 단체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극단적인 요구보다는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인이 주체가 되는 시대가 조금씩 열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체라는 이유로 원하는 모든 것을 요구하게 된다면 국가의 재정 은 더욱 악화 될 것이며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게 된다.

재정

보건복지부는 2015년 약 260조원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할당 받았고 2010년에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하였다. 매년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출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 예산대비 보건복지부에 할당하는 양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늘어나는 복지욕구와 고령화로 인한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OECD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4년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한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미국
10.4	28.1	31.9	25.8	30.1	21.7	24.7	19.2

출처: OECD

국민건강보험은 2014년에 약 49조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약 44조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의 수입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수입의 대부분은 보험료로 충당이 되며 보험료의 상승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인해 재정상황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의 대부분이 급여로 빠져나가는데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인해 지출이 매년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재정상황의 악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최근 정부는 수지율을 100비만으로 유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누적 흑자 20조원을 돌파하였는데 당장은 이 흑자가 다른 부분에 재투자 할 재원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고령인

구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필히 세이브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전체인구 5,200만 명 중에서 약 670만 여명 정도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2013년에 620만 여명과 비교 해 볼 때 2년 사이에 50만 명의 노인인구의 증가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증가와 줄어드는 인구성장률은 경제인구의 감소로 볼 수 있고 이는 노년부양비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노년부양비>

년도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노년부양비	7.4	10.1	15.2	22.1	38.6	57.2	71	80.6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국가승인통계 제10133호」, 2011.12월

노년부양비란 생산 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인구의 수를 표시한 수치인데 우리나라는 2020년에 경제활동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22.1명이며 2060년에는 80.6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관한 재정난은 후에 끔찍한 수준으로 닥치게 될 것이며 현재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 기정사실화 된 재앙이게 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수입의 상승률 보다 지출의 상승률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보험료 상승이나 세금을 더 걷어 미래를 대비한다는 생각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장려정책 혹은 의료보장률의 적정수준 유지를 통해 재원을 저축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 또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보장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 또한 중요하지만 국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미래 세대의 짐이 과중 될 뿐이며 수십 년 후에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상황에 쓰일 수 없을 것이다.

정치인 또한 과한 포퓰리즘은 금물이다. 지나친 선전은 국민들을 현혹시키며 특히 보건의료지식에 관련해서는 공급자와 소비자간 정보격차가 크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혹은 과한 선전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과증시키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예를 들어 무상의료 같은 슬로건을 내세우고 국민을 현혹시키려 한다면 국민들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할 것을 미처 생각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력 및 자원

현재 우리나라의 과목별 전문의 인력 현황을 보게 되면 내과에 가장 많은 전문의가 편중되어 있으며 예방의학과에 가장 적은 전문의 인력이 있다(실제로 27개의 전문과목이 있지만 노인인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11개의 과목만 추려보았다).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은 안정적으로 수급되어지는 상황이며(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국내에서는 의사인력의 부족보다는 과목 편중화의 문제가 더욱 심하다) 아쉬운 점은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예방

의학과와 전문의의 수가 눈에 띄게 적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병원 이용은 1차 진료를 통한 이용이 가장 많은데 그런 점에서 1차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가정의학과와 미래 수급을 기대한다면 지금도 높은 수치는 아니라는 것 또한 아쉬운 점이다.

<전문과특별 전문의 현황>

시점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
2014	13,309	1,496	3,061	2,473	2,889	3,432	2,409	1,609	5,549	1,142	173
2015	13,873	1,572	3,144	2,557	2,980	3,540	2,437	1,712	5,729	1,255	173
2016	14,449	1,679	3,249	2,627	3,088	3,635	2,472	1,846	5,930	1,381	181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2014년 요양보호사는 약 20만 여명, 요양직 간호사는 약 1만 여명 정도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간호사 인력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한번 간호사 일을 그만두게 되면 다시 복직하는 비율이 적다. 요양 간호 인력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부담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다.

<요양직 인력 현황>

직종/시점	2012	2013	2014
요양보호사	168,227	182,100	195,168
간호사	8,527	9,454	10,287
계	176,754	191,554	205,455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수는 2009년 대비 2016년에 두 배 가까이 뛰었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뛰어난 성장률을 보였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필요한 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요양기관 현황>

요양기관 종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요양병원	777	867	988	1,103	1,232	1,337	1,372	1,416
의원	27,027	27,469	27,837	28,033	28,328	28,883	29,488	30,144
치과의원	14,242	14,681	15,058	15,365	15,727	16,172	16,609	16,916
보건소	239	240	240	243	243	244	243	241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또한 중요한 관심사이다. 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복지시설, 여가시설, 재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확충되었으며 2015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위한 기관도 새로 설립되었다.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의 새로운 설립은 미래 노인인구의 일자리 확보와 재정확보를 위한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현황>

시점	총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2011	70,643	414	4,079	63,375	2,750	25	-
2012	71,873	416	4,352	64,077	3,003	25	-
2013	72,860	435	4,585	64,983	2,832	25	-
2014	73,774	443	4,841	65,665	2,797	28	0
2015	75,029	427	5,063	66,292	3,089	29	129

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우리나라는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화에 맞춰서 인력의 개편 또한 시급하다. 의사 인력의 인기 과목으로의 편중화와 간호 인력의 업무상 어려움에 비한 급여의 문제 및 복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맞춰 의사 인력들의 도, 농간 불균형 해소, 요양직 간호인력 확충의 문제 등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수요에 맞출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의 증가는 요양직 간호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써 요양직 간호사의 적절한 수급 또한 문제가 될 것이며 현재의 수치는 앞으로 필요할 수 보다 훨씬 적은 수치이다. 때문에 간호협회 또는 간호협회는 요양직으로의 이직을 장려하도록 하고 정부 또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요양직으로 장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병원의 이용 횟수를 증가 시키고 이용 횟수의 증가는 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의원 수의 증가는 미래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의학과 같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전문의가 개원을 하는 의원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며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보건인력들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그러한 점에서 예방의학과 의 턱없는 전문의의 수는 미래의 의료비 절감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사건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의 테마는 고령화에 맞춰지며 세부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과 지출의 최소화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인 관심거리이며 보건의료의 질 또한 중요하지만 질의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재정을 적절하고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기에 이 난관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국가가 후에 세계보건의료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본문에도 언급했듯이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며 끝없는 복지 요구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진보가 아닌 도태를 불러올 것이고 국가의 경제적 문제와 연결이 되어 쇠퇴의 길을 걸을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지금의 시스템 보다 더 나은 방안을 끝없이 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려상

김채화 미술치료학과

리포트 주제 선정 과정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	세계발명특허사의 과제는 어느 한 물건을 정하여 그 물건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여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 저는 수저라는 물건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아서 친숙한 물건이기도 하였고, 수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얼마나 오래 됐을지 궁금해서 이 주제로 선정해서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기타 사항 (리포트 작성 과정에서 특별한 점, 조별 과제인 경우 역할 분담 등)	수저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되어서 정리하기 힘들 뻔 했는데 목차를 작성하고 시작한 덕분에 조금 더 수월하게 리포트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저’의 역사



제출일	2016년 10월 28일	전공	미술치료학과
과목	세계발명특허사	학번	20166413
담당교수	홍수린 교수님	이름	김채화

목 차

1. 머리말
2. 국가별 수저의 역사
 - 2.1 중국의 수저 역사
 - 2.2 한국의 수저 역사
 - 2.3 일본의 수저 역사
3. 동아시아 수저 역사의 비교
4. 결론 및 느낀점
- 5.참고
 - 5.1 참고문헌
 - 5.2 참고사이트

I. 머리말

손가락과 젓가락은 실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소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수저’는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을 만큼 완성적인 물건이며 이것이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끼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먼저 수저란 손가락과 젓가락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의미합니다. 손가락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에서 밥을 떠먹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젓가락은 반찬을 집어먹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손가락의 뜻은 손가락의 '손'은 '쇠'의 조어 '술'에서 모음이 바뀐 말이고, '가락'은 '손'의 뜻입니다. '젓가락'이라는 이름은 '저'에 '가락'이 붙은 말로, '저'의 어원은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특히 손가락은 음식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지위를 가진 주식을 먹는 데 쓰이기에 생명유지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도구로 비유됩니다. 흔히 죽음을 일컬어 “손가락을 놓았다”라는 속된 표현이 있는데, 이 경우 생명유지의 근본으로 식사와 관련하여 가장 중심 되는 도구인 손가락을 거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가락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도구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수저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쓰여서 그저 지나칠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과거 수저들 역시 발굴 작업에서 대거 출토되어 ‘너무 흔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저’로 주제를 잡은 이유는 수저 하나로 수천년의 생활문화사를 훑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저는 삼국시대에서 현재까지 시공간을 넘나들며 존재하여 그에 관한 학습이 가능하고, 왜 아직까지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규명해낼 수 있어 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그 시대 사람들, 사회상황 등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각 국가별 수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II. 국가별 수저의 역사

1. 중국의 수저 역사

가. 중국의 숟가락

수저는 보통 동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수저를 사용한 국가는 중국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산둥성과 산서성, 하남성과 하북성에서는 신석기시대에 도제로 만든 국자가 출토되다가, 은대에 이르러 국자와 숟가락이 출토되기 시작합니다. 유물들은 주로 주거지와 분묘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전국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전국시대에 이르면 도제로 만든 국자가 출토되는 예도 있지만 주로 청동제 국자와 숟가락을 무덤에 부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대에 이르면 이러한 전통은 일변하여 도제로 제작된 국자와 숟가락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칠기로 제작한 예도 있고 청동으로 제작한 예도 가끔씩 출현하게 됩니다. 낙랑에서 칠기로 제작한 국자와 숟가락이 출토된 예를 보아도 한대에는 칠기 제작한 숟가락과 국자를 애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장사 마왕퇴 1호 한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를 지나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르기까지 분묘에서 출토되는 청동숟가락과 젓가락은 그 출토의 예가 드물게 됩니다. 도제 숟가락 또는 국자의 부장 빈도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5세기나 6세기쯤에 좀 더 넓은 계층에서 숟가락을 개별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에 이르러 은제로 제작한 국자나 숟가락이 분묘에서 출토되고 젓가락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묘에 수저를 묻는 장례습속은 중국 북방의 거란과 여진의 요·금, 몽골의 원나라를 거치면서 더욱 성행하여 숟가락의 사용은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당대까지는 말각장방형의 술에 자루 끝을 능형으로 마감하는 전통적인 형식에 머물렀지만, 요금대에는 숟가락의 자루가 길어지거나 자루 끝에 쌍어를 새기는 쌍어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숟가락이 식탁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릉형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숟가락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국물보다 건더기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표음식인 국수를 먹을 때도 면을 위주로 먹으며, 국물을 떡더라고 그 국물이 식은 후 그릇째 약간 들이마시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림1>



<그림2>

나. 중국의 젓가락

중국에서는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젓가락을 저(箸)보다는 췌자(筷子)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상아, 옥, 금, 은, 청동, 나무 등으로 제작하고, 단면은 방형, 원형, 다각형 등으로 다양합니다. <예기>에 의하면 “함께 밥을 먹을 때 땀 난 손으로 먹지 않는다.”, “기장밥을 젓가락으로 먹지 않는다.”라고 하여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사용하였고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에 나물이 있는 것은 젓가락을 쓰고 나물이 없는 것은 젓가락을 쓰지 않는다.”라고 쓰인 것으로 보아 국에 건더기가 있을 때는 젓가락을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젓가락은 처음에는 나무로, 상주시대에는 청동으로, 한나라 때 대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수·당대에는 청동이나 은젓가락에 금도금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명·청대까지 사용되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한대에 나타나며, 명, 청 시대에는 시나 그림을 새겨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명은 남경을 중심으로 일어난 한족의 나라로 북방의 여진, 거란, 몽골 등과는 식음문화의 전통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명대에는 젓가락만으로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궁정과 문무백관과 함께 많은 남방 사람이 북방으로 이주하면서 남송 때 북방 음식과 남방 음식이 결합되어 성립된 음식문화가 다시 북쪽으로 옮겨가 남북이 새롭게 통합되는 중국요리가 탄생하였고, 이때 ‘췌자’라는 새로운 이름의 젓가락만으로 밥을 먹는 풍습이 중국 전역으로 퍼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주로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며, 젓가락을 사용한 식음문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2. 한국의 수저 역사

가. 한국의 숟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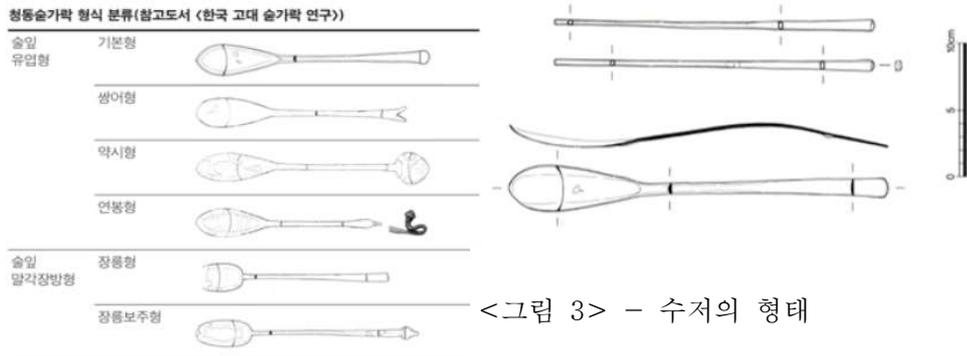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수저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무령왕릉에서는 수저 2벌이 왕과 왕비의 관 앞¹⁾에 있었고, 또 하나의 청동숟가락이 왕비의 두침부근에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청동 숟가락은 논산 표 정리 유적이나 청주 신봉동유적 등에서 발견되어 백제 귀족문화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숟가락으로서는 안압지에서 출토된 것이 대표적인데 음식물을 뜨는 숟가락 부분의 끝이 뾰족하고 손잡이 부분을 가늘고 길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숟가락과 같은 형태가 일본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어 당시 일본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왕경유적의 가옥에서 청동숟가락이 출토되고, 분황사지에서는 숟가락 거푸집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숟가락의 사용 계층이 확대되었고, 숟가락의 형태와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숟가락이 출토되어 전국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신라의 청동숟가락이 모두 2점을 1세트로 보관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음식을 떠오는 것과 입으로 직접 넣는 역할을 따로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11세기에는 분묘에서 숟가락이 출토되기 시작했고, 12세기에는 왕의 무덤과 귀족들의 화장 묘

1) 두침 : 나무베개

에 숟가락을 부장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원의 지배를 받는 13세기 후반에 더욱 확산되었고 16세기 말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11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 약 500년간 숟가락은 통일신라시대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술은 유연형에, 자루는 술목에서 휘어지면서 곡선을 이루고 끝은 호형으로 마감되는 것은 기본형, 기본형에서 자루의 끝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쌍어형, 자루 끝에 소형의 술이 부가되는 것은 약시형, 자루 끝에 연봉이 달린 것은 연봉형, 술의 형태가 말각장방형에 자루가 술목에서 세장하게 이어지는 것은 장릉형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형태들은 아래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 수저의 형태

물론 숟가락의 변화는 당시 섭취하는 음식물의 변화와 관련지어 보아야 합니다. 원의 지배를 겪으면서 고려의 식탁에는 국이 빠질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숟가락의 사용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시대 전기에는 기본형이나 쌍어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들면 이상하게도 16세기까지 유행하던 여러 형식의 숟가락이 거의 한꺼번에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둥근 술에 일자형 자루가 술목에 부가되는 형식의 숟가락으로 정착되게 됩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의 원인은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추정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림 4> - 청동수저

무령왕릉에서 출토했음



<그림 5> - 숟가락 거푸집

분왕사지에서 출토했음

나. 한국의 젓가락

젓가락은 숟가락보다 뒤늦게 발명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분묘에서는 젓가락이 출토되지만 대부분의 식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양 현곡리에서는 고려분묘 33기가 발굴 조사되었는데 이 분묘의 주인공들은 남한강 상류지역에 토착하였던 지방 세력이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젓가락은 모두 청동제로 4벌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까지도 젓가락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집안에서만 젓가락을 사용하는 정도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견된 태안 마도선에서 다수의 나무젓가락이 출토되고, 고려가요 <동동>에 분지나무로 깎은 젓가락이 언급되어 고려 사람들은 나무젓가락을 많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도 되고 있습니다. 이후 젓가락의 출토는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0%대를 유지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전기의 젓가락 사용의 경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김홍도와 김득신의 풍속화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장면이 남아있어 서민들도 젓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림 6> - 김홍도의 풍속화로 '주막'

<그림 7> - 김홍도의 풍속화로 '점심'

3. 일본의 수저 역사

가. 일본의 숟가락과 젓가락

세 나라 중 가장 마지막에 발달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역대 임금들의 보물을 모아둔 정창원에 한국의 젓가락이 있어 우리의 젓가락이 일본으로 넘어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수저의 역사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나누지 않고 수저로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7세기 전반 일본의 한 고분에는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숟가락이 출토되었습니다. 8세기를 지나면서 정창원에 많이 전래되는 것 중 하나가 숟가락으로 동숟가락 345개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당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금도금은제 숟가락과 젓가락이 한 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신라계의 청동숟가락 2점이 출토되었고, 9세기 전반에는 길이는 26cm 정도인 짧은 젓가락들이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귀족이 살던 곳에서 노송나무 젓가락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귀족을 중심으로 목제 젓가락을 사용한 식사법이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대안사의 재산 목록에는 숟가락 31개가 젓가락 12세트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하사받은 공양구 세트 기록에는 백동제 수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안사의 젓가락은 모두 공양구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라 시대의 각 사원에서 백동이나 은과 같은 금속제 수저가 공양구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숟가락이 사라지고 일본적인 젓가락 문화가 확립되어간 시기는 9세기를 지나면서입니다. 9세기 초의 유적에서는 숟가락은 보이지 않고 젓가락만 채식용 그릇과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1136년에 제작된 상차림에서는 젓가락만을 그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후 일본이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모습은 12세기 후반에 확립된 것으로 추측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림 8> - 일본의 첫 청동숟가락



<그림 9>

- 일본의 1136년에 제작된 상차림

Ⅲ. 동아시아 수저 역사의 비교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은 수저의 사용에 있어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함께 써왔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수저를 비교론적 관점으로 보자면, 세 나라 모두 수저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 사회의 특성에 따라 모양과 용도가 다르게 변화해왔습니다. 그 이유를 자연환경의 차이, 국가 간 교류 양상의 변화, 식단의 차이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이 끼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중 '혹정필담'의 한 부분을 보면 당시 한국과 중국의 음식 문화를 비교한 대목이 있습니다. 박지원이 중국 선비들과 함께 했던 식사에서 중국 숟가락이 한국과 달리 자루가 따로 없고, 깊이가 깊어 밥을 떠먹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 동아시아 삼국의 수저는 비슷한 모양을 갖췄고, 용도 또한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혹정필담'에 기록되었듯 당시 중국에서 숟가락은 밥을 떠먹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록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한, 중, 일 삼국이 고대에는 비슷한 생활양식을 공유할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통합성이 느슨해졌으며,

음식 문화에서 그런 변화의 모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수저 중 숟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는 국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중국, 일본에서는 점차 숟가락의 쓰임이 줄어들고 젓가락이 중심이 되었지만, 한국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쓰는 관습으로 인해 독특한 문화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식생활인 국 문화와 밀접한 관계로 인해 숟가락과 젓가락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IV. 결론 및 느낀 점

1. 결론

사람은 동물의 한 종으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도구를 사용하여 음식을 먹었고 그것이 지금의 수저형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저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으로서의 공통적인 도구이면서도 민족과 문화에 따라서 그 양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인 세 국가의 수저들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각국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 식탁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식도구가 각각 다른 문화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이것은 동양 삼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상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저는 그 자체로 유구한 전통과 역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확실히 민족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데 주요한 물질적인 대상이며 최고의 발명품일 것입니다.

2. 느낀 점

저는 처음에 ‘수저’를 발명품이라고 인식하지 못 하였습니다. 당연하게 매일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어서 친숙했기에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저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어 수저의 발명이 위대했다는 것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레포트를 통해 수저에 대해 조사할수록 신기했습니다. 먼저 수저의 역사를 찾아보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수천년전의 수저의 모습이 지금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은 그만큼 수저가 완전성 있는 물건이었음을 시사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저는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부족함 없는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저의 미래모델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수저의 미래형에 대해 고민해보며 디자인도 해 볼 것입니다. 이미 부족함 없는 완전체적인 물건이지만 더 나아가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기능과 결합하여 새로운 수저의 미래모델을 제시해 볼 것입니다.

V. 참고

1. 참고 문헌

-정미선, 「동아시아 3국의 공통 식사도구의 전파, 수용 및 변화에 대하여 : 한.중.일의 공통 식사도구로서의 젓가락을 중심으로」, 『 Journal of Oriental Culture&Design』, 국민대학교 동양문화디자인연구소, 2009

-윤성재, 「고려시대 분묘출토 청동수저」, 『역사와 실학』 제 56집, 역사실학회, 2015

-이승원, 「식사도구의 역사적 발전」, 『청대학술논집』 제 14집,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09

-배영동, 「한국 수저의 음식문화적 특성과 의의」, 『문화재』, 국립문화재 연구소, 1996

2. 참고 사이트

-<http://pstag.blog.me/220563373197>

-<http://m.blog.naver.com/aulerbrian/40193349355>

-https://www.chf.or.kr/c2/sub2_2.jsp?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rdTtype=R&bbIdx=103305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108000046>

-<http://blog.naver.com/gemengi/220711618447>

-<http://blog.naver.com/gemengi/22071161844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5754&cid=40942&category>

장려상

배기런 보건복지정보학과

<p>리포트 주제 선정 과정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p>	<p>수업시간에 복지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요소에 대한 학습 이후에 실제 우리 주변의 정책이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문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최근 담배세 인상 정책과 관련하여 세금의 성격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이러한 정책이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인지 조사하고 싶었다. 또한 담배와 관련한 기본권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하여도 호기심이 들었다.</p>
<p>기타 사항 (리포트 작성 과정에서 특별한 점 조별 과제의 경우 역할 분담 등)</p>	<p>시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세금과 관련한 문제가 컸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보고 작성은 '배기런'이 하였으며 발표와 PPT작성은 김도현이 맡아 해주었다.</p>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사회복지정책론

배기련 김도헌

1. 들어가며

2015년 1월 1일, 정부는 담뱃값 인상 정책을 실시하였다. 담뱃값 인상 정책은 정부의 입장에서 흡연률을 낮추겠다는 취지하에서의 정책이다. 하지만 우리는 담뱃값 인상 정책이 진정 흡연률을 낮추기에 적합한 정책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담배라는 재화는 일반 서민들이 자유권의 권리를 가지고 직접 값을 주고 사는 기호 식품인데, 이에 너무 지나친 제약을 거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이 되기 직전부터 ‘증세없는 복지’ 라는 슬로건을 걸고 선거유세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복지를 늘리기 위해선 세금을 올리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정부 측에서는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담뱃값 인상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담배는 서민들에게 세금을 얻어내기 위한 가장 단순하며 편리한 재화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흡연자들이 왜 흡연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그 다음 외국의 금연정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한 뒤,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더 불어 담배와 세금간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2. 왜 흡연을 할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한다. 금연을 하는 것이 사회적 풍토로 자리 잡긴 하였지만 흡연을 줄곧 해왔던 사람들은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흡연을 하는 이유는 뭘까? 첫 째, 환경적 영향이다. 주위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집에서는 아버지나 형이 담배를 피우고, 길 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며 걸어간다. TV를 켜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꺼내 입에 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듯 주변 환경적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둘째, 심리적 영향이다.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심리적인 이유는 담배를 피우면 긴장이 풀리고, 불안이나 분노, 욕구 불만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효과들은 일시적이다. 최근의 정신 역동 이론에서는 심리적 고통과 그 고통을 마음에서 처리하는 자기조절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반응이 물질 의존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그대로 흡연하는 이유에도 적용이 된다. 셋 째, 유전적 영향이다. 18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유전적으로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 이란성 쌍둥이보다 흡연의 일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흡연 습관에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유전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은 흡연이 유전이라는 말과 다른 것이다. 넷 째, 니코틴의 영향이다. 니코틴은 담배 속에 존재하는 중요한 정신 활성 물질로 아편과 같은 수준의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마약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니코틴의 성질로 인하여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한다.

3.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가. 국내 금연정책 비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에 따르면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건강수명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분야로 건강 생활 실천 확산, 예방중심 상병관리, 안전 환경 보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가 있다. 건강 생활 실천 확산 분야에는 금연 분야가 존재한다. 금연분야에서 금연 환경조성을 통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를 금연하게 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함으로써 흡연 및 간접흡연 감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성인남성흡연율 29.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추진방향

금연정책의 추진 방향으로는 흡연예방 및 흡연을 감소를 위한 교육/상담/치료 등 금연정책 강화,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으로 간접흡연 노출 감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 홍보의 다양화가 있다.

다. 추진전략

추진 전략으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사회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도의 금연 사업계획 수립/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한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 한다 이는 담배 가격 인상, 담뱃갑의 경고그림 도입/경고문구 표시 강화, 금연구역확대 등 관력 법 개정 사항이다. TV/라디오 공익광고, 다큐 등 기획보도, 인터넷 포탈 사이트 등 특화된 캠페인 실시를 통하여 대상자별로 세분화하고 매체별 특징과 장점을 살린 금연 홍보를 추진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의 내실화, 금연상담전화(Quit-line)역량강화를 통해 흡연자의 금연지원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간접흡연의 위해와 흡연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흡연 인구의 흡연인구로의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라. 금연정책의 추진 경과

- * '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
- * '95년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금연 정책 추진
 - 금연구역지정, 담배광고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등
- * '02년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공개
- * '05년 금연교육 및 홍보 중심에서 금연지원으로 사업 확대
 - 금연클리닉(보건소·민간단체), 금연상담전화, 군·전 의경 금연지원 등
- * '08년 공공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정
- * '14년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7월)
 -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하여 금연 환경 조성 촉진
- * '15년 담뱃값 인상(2500원->4500원), 일반/휴게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
 - 일반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 등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마. 금연 홍보·교육 프로그램

1998년부터 금연 홍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금연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은 1999년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하다가 2002년부터는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금연 상담, 금연 교실 등을 운영하기도 하고 보건소나 대학교, 민간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2000년부터는 보건소, 사업장, 학교 등에서 금연상담 및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금연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 공익광고는 2000년부터 매년 꾸준히 제작, 방영해오고 있으며, 공익광고는 TV뿐만 아니라 라디오, 극장,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영하고 있다. 금연 공익광고 외에도 2004년부터는 금연 다큐멘터리와 ‘청소년 금연콘서트’ 등과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고, 건강 관련 방송프로그램과 시사성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금연 관련 방송물을 기획하여 금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포스터, 리플렛 등의 홍보물을 제작, 청소년 여성 대학생 등 대상자별로 세분화 하여 기획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이 외에도 금연 상담·치료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바. 금연지원사업

우리나라의 금연지원사업의 경우,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는 물론이고, 금연길라잡이를 통해 웹기반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로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국단위의 금연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도적 사례로 인식되고 있으며,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조항별 이행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금연클리닉은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연간 약 44만 명 정도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과 니코틴대체요법을 포함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상담전화의 경우도 2006년부터 전문상담사가 전화상의 금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35명의 전문 금연 상담사가 연간 약 15만 건의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 서비스의 금연성공률도 높아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6개월 금연 성공률은 약 49.2%, 금연상담전화 이용자의 1년 금연 성공률은 약 26% 수준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 적용된 웹 기반의 금연지원 서비스의 경우도 정보제공성과 접근성이 높아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 2016년 정부의 금연정책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23일부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인 ‘담뱃갑 경고 그림 표시’가 시행된다. 작년 10월부터 각계 전문가들이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국형 경고 그림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그려져 나온다. 금연치료 프로그램 본인 부담도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금연치료 프로그램(8주~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 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던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3회 방문 시) 수행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2016 금연 광고도 흡연의 폐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지난 금연 광고와 달리 ‘사실성’을 강조해 표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밖에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걸린 흡연

자가 직접 광고에 출연해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증언형 금연캠페인 도입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 외국의 금연정책

가. 영국

2015년 기준 크게 3개로 나누어 규제한다. 첫 째, 담배의 TV광고 금지 이는 우선적인 담배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둘째, 담배의 세금 인상 정책. 현재 우리나라에도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담배의 세금을 인상시켜 우선적으로 청소년이나 소득이 적은 이들의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중산층에게는 큰 자극이 되지 못한다. 셋 째, Anti-smoking 활동이다. 담배의 위험을 알리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고, 흡연자들의 효과적인 금연을 장려하며 일반 가정이나 차내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영국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에 특히 신경 쓴다고 한다. 하지만 담배와는 차이를 두어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나. 인도

인도는 2004년도 세계 2위의 흡연국이며 세계의 흡연자의 10%가 인도에 있을 정도로 흡연율이 아주 높다. 이러한 인도는 Smoke Free Place를 선정하여 담배연기로부터의 안전지대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담뱃갑의 표지를 바꾸었다. 담뱃갑의 표지에 건강에 대한 불이익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를 전부 새기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도 역시 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시켰으며, 메스미디어와 대형 방송사의 방송은 아예 금지시켰다. 또한 담배에 대한 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다.

다. 홍콩

홍콩의 경우에는 담배를 잡는 경관들을 위한 규칙이 따로 마련되어있다. 규칙을 어기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법이며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5.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 (흡연권과 혐연권)

지금까지 우리는 흡연을 왜 하게 되는지를 비롯하여 국내 국외 금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담배라는 기호식품은 중독성이 있으며 건강에 유해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금연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흡연자의 경우에는 담배를 필 수 있는 흡연권을 주장하고 있고 비흡연자간의 경우에는 혐연권을 주장하고 있다.

옆의 사진은 JTBC에서 방영하는 시사 프로그램인 '썰전'의 방영 모습이다.

썰전에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을 현재 시사적 문제점으로 꼽고, 이에 대한 토론을 나누었다. 평소 사회의 중요한 시사거리를 가지고 토론을 나누는 프로그램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을 다루었다는 것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이 이 전보다는 더 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 방송에서는 서울 시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은 '자기 차 안 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규제가 강해졌다고 이야기 한다. 이 방송에서 나온 jtbc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의 최비오씨는 "세금



을 더 많이 내고 있는데 내 집 안에서든 밖에 나가서든 피우기가 힘들어지죠” 라고 말을 하였다. 하지만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비흡연자는 흡연자의 권한을 침해할 일이 별로 없는데 흡연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였다. 하지만 흡연자의 경우에는 건강한 환경

에서 흡연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흡연자들은 흡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규모는 2015년 기준 담배 세수 10조 5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흡연자는 흡연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비흡연자는 혐연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의 가치에 상충하게 된다.

두 기본권이 서로 상충 할 때에는 어떠한 기본권을 우선해야하는지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이익형량을 통한 방법과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한 해결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이익형량의 방법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에는 헌법규범간의 충돌과 갈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익을 형량하여 보다 중요한 우월한 가치를 보호하여 이를 주장하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즉 기본권에도 가치적으로 서열이 존재하고 높은 가치의 기본권이 낮은 가치의 기본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흡연권과 혐연권 중 더 중요시 한 것은 혐연권이라는 재판을 내린 결과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 의한 해결은 동 가치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에나 이익형량의 수단으로만 해결이 어려운 기본권이 충돌할 때에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익형량의 방법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규범 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이 있다. 규범 조화적 해석은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처럼 두 기본권중 어느 하나의 기본권만을 다른 기본권에 우선시키지 않고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모든 기본권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의 방법을 찾아 충돌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따라서 규범 조화적 해결의 방법은 기본권 간의 위계서열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방법으로써, 이익형량의 방법보다도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 조화적 방법에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 기본권 모두에 일정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두 기본권 모두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의 제한으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두 기본권의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으므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을 찾아 기본권 충돌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상충하는 기본권 중 어느 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그 제한의 정도는 최후의 방법까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이다.

규범 조화적 해결의 방법으로 정부는 흡연자들을 위하여 흡연 부스를 설치해주었다. 하지만 흡연부스는 흡연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2015년 6월 1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실외 흡연부스가 있는데도 흡연부스 밖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목격됐다. 당연히 길을 걷는 사람들은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한 흡연자에게 흡연실 밖에서 흡연을 하는 이유를 묻자 “흡연실 밖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흡연부스가 매우 좁고 더우며 환풍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흡연

실 밖에서 흡연 한다”고 말하였다. 흡연자들은 흡연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흡연시설만 제대로 갖춰 있으면 대다수의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흡연부스의 가장 큰 문제는 폐쇄형으로 만든 흡연부스이다. 폐쇄형으로 제작된 흡연부스는 환풍기를 통해 담배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하지만 흡연자들은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담배 연기가 자욱해 ‘독 가스실’이라고 부르며 이용을 꺼려하는 흡연부스. 허술한 흡연부스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었다.

규범 조화적 해결방법의 방안으로 흡연부스를 만들었으나 이는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평이 대다수이다.



이 자료는 길거리 흡연구역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론 조사이다. 이는 2015년 조사한 자료인데, 흡연자의 77%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비흡연자의 80.6%가 필요하다고 조사 되었다. 즉 ‘길거리 흡연구역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79.9%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게 한다.

흡연권이 흡연권보다 중요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흡연권도 역시나 중요한 권리이다. 그렇기

에 흡연자들의 권리를 존중해줄 수 있으며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7. 담배와 세금과의 연결고리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을 이야기하던 도중 흡연자의 권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로 흡연자들은 흡연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담배와 세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옆의 그림을 보다시피 담배값이 2500원이었을 때와 4500원 이었을 때의 세금의 비율은 굉장히 다르다.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지방세와 국세이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962원에서 1450원으로 50%가 올랐다. 그리고 국세의 경우에는 234원에서 1027원으로

339%오르게 되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그리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地方稅)와 대립된다.

현 정권인 박근혜 정권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주장해왔던 ‘증세 없는 복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담배값의 인상 정책을 통하여 2015년 기준 담배세수 10조 5천억원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담배값 인상 당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값 올리는 것은 건강을 위하여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44% 수준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 29%까지 낮추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예상 세수증가액은 ‘2조 8천억 원’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사재기 효과가 있었던 작년에는 최소 3조~4조가 늘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다. 실제로 2014년 대비 3조 6천억이 증가하였다. 올해는 아마 5~6조 정도 세수가 늘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이는 흡연율이 쉽게 줄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있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온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서 뒷받침 해준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36.6% 더 늘어난 상태이다.

담배가 해로운 건 맞지만 문제는 담배가격 인상이 서민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5~6만불 정도라면 담배값을 그 정도 늘려도 상관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이제 2만불을 넘긴 수준이다. 이 말은 기호가격 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에게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담배값 인상 정책을 통하여 금연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 역시 이 효과가

<2015년 및 2016년 상반기 담배 반출량 및 재세부담금>
(단위 : 억갑, 억원, %)

	'15년 상반기	'16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반출량	13.1	17.9	4.8	36.6
담배소비세	13,237	17,984	4,747	35.9

미비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정부의 금연 사업과 관련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금연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흡연자 10명 중 7명이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고작 2%에 불과 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지원 프로그램 유지 및 중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만 9693명(67.7%)이 중도에 포기하였으며 금연에 성공하여 치료를 마친 인원은 3403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건 치료비용의 40%를 흡연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흡연자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담배도 비싼 가격에 구입하여 피워야 하는 마당에 금연 치료를 위한 비용마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 정책 처에 따른 담뱃값 인상에 따른 정부의 담배부담금 수입은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담배부담금의 고유 목적인 건강증진사업 비로는 28.4%만 배정해 놓아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 증진을 꾀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해 볼만하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담배가격 인상의 정책을 흡연율을 줄이겠다는 취지하의 정책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하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8. 마무리하며

우리는 처음에 금연에 대한 강한 규제가 진정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시작 하였다. 하지만 담배의 특성에 따라 흡연율은 쉽게 내려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실효책이 필요할 것이며, 단순 담뱃세 인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담뱃세 인상은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며,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였다면 정말 실효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더 아낌없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은 현 정권의 슬로건인 ‘증세 없는 복지’의 범위에서 벗어나 세금을 더 걷어내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노림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흡연은 건강에 해롭고 안 좋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금연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좀 더 실효적인 방안의 금연정책을 제시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처

구가인, w동아일보, 2007.03.16, <http://woman.donga.com/List/3/all/12/1370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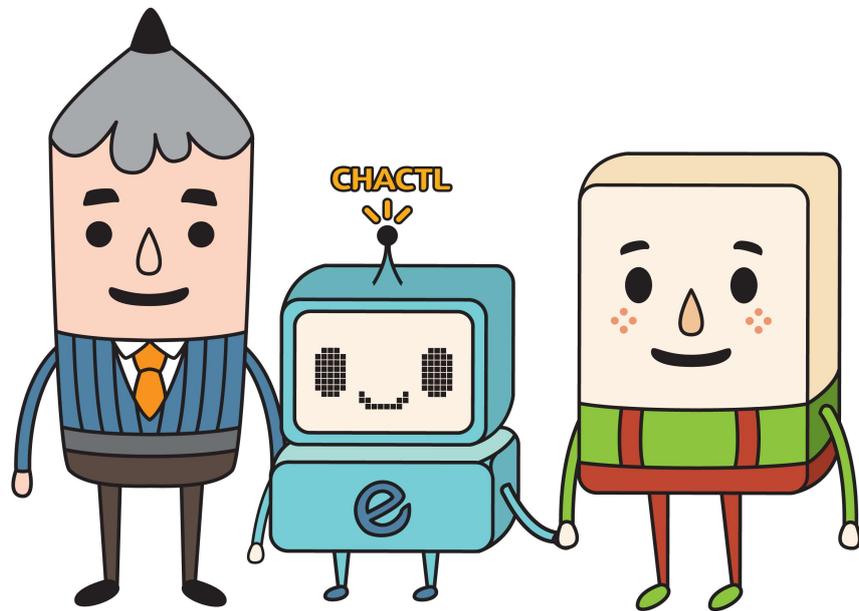
금연길라잡이, <https://www.nosmokeguide.or.kr/mbs/nosmokeguide/>

보건복지부 금연서포터즈 10기 NO UR SMOKING, 외국의 다양한 금연정책, 2016.09.20.,
<http://olyann.blog.me/220815976998>

JTBC 썰전 180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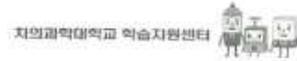
통합 논술 개념어 사전, 한림학사, 2007.12.15., 청서출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760&cid=47333&categoryId=4733>

IV. 우수 노트 공모전



최우수상

최유진 식품생명공학과



* 용해도에 미치는 B인 (고체의 경우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

A. 용도의 영향 (용액에 관한)

고체: 용도의 증가가 용해 속도를 빠르게 함 (상호작용) → 용액 사용

⊖ 용도의 증가가 인반적인 용해도의 증가를 가져옴.

(항산화제, 항산 세척 등은 제외)

⊕ 아세트산 수용 (반응 반응)

B. 구조의 영향

극성-극성

비극성-비극성

ex) - DDT는 지방에 녹음

(비) (비)

아유 → 인적.

• VA: 비, V.C: 극

• 지방산: C-H 결합 함량과 비
(C₁₈H₃₄) → 그리스 (C₂₀H₄₂)

• 메탄올: O-H 결합 함량과 비
(CH₃OH) → 알코올계 KI

(아이오딘화 용액)

* 방법

<실험>

1. 벤조산 1g + 아세트산 1g → 증류수 30ml

양성성

양성성

→ 주가지 생성 용액

2. 50% 벤조산을 증화시키는 데 필요한 3M NaOH 의 부피 계산 후 **3ml**를 넣는다. ⇒ 4ml

3ml (가변)

양변한 염기성 용액 안드기 위해

3. pH 증이로 염기성 용액 → **중성 거르기** → 비커에 남은 것

(변화 반응, 리드백)

차가운 증류수 1ml로 2~3회 씻음

pH ↓ H⁺ ↑ : 산성 (반응액)

pH ↑ H⁺ ↓ : 염기성 (과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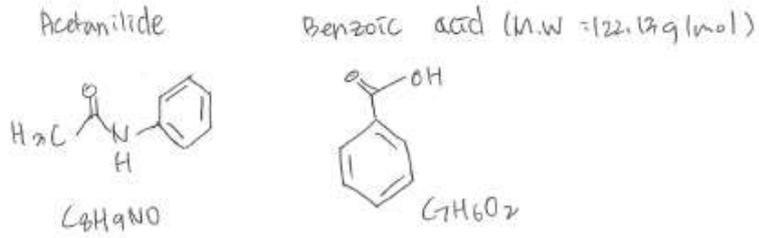
비수율: 66.4%

부품

농담장기

가변기 이용 (이소프레머 면서)

• 도식화



A (물에 약간용해) + B (물에 약간용해)

↓ NaOH

A (물에 약간용해) + B 수용 (물에 안용해)

↓
A 침전

↓
B 수용 용액
↓ HCl
B 침전

• 기타(질문, 과제 등)

남서 / 서쪽 방향 여부 ?

7. 재결정라 거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명: 유수민 페이지: 47-92 날짜: 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과 영계의 성질을 이용하여, 비슷한 용해도를 가진 물질을 분리하기 정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결정 무엇인지? (ppa 참고)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온도 구조 ph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 → 재결정 방법 (입어복것) ppa 푸르복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재결정 (Recrystallization) → 용매 100ml 에는 수 있는 용질의 양 ① 고체물질의 특정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온도에 의존하는 점을 이용하는 정제 방법 ② 고체를 고온에서 용해하여 진한 용액을 만든 후 이온 냉각하면 다시 결정이 형성됨 ③ 재결정 과정에서 원래 고체에 함유 되어 있던 불순물은 용액중에 용해된 채로 남기 때문에 순수한 결정을 얻음. (과포화 상태) 용해도 큰 것 (비교적) 선택. * 용해도의 영향은 이차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극성용매 - 극성 용매, 비극성 용매 - 비극성 용매) - 온도 ④ 산염기의 성질이 용해도를, 비슷한 용해도를 가진 물질 분리, 정제. * 용매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이어야 한다. 뜨거운 용매 속에는 완전히 녹은 반면에 차가운 용매 속에서는 다소 불용성이 될 것이 이상적. ② 불순물을 저온에서 쉽게 녹일 수 있는 용매 ③ 용매는 정제 하거나 하는 물질과 화학적 반응 NO N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정제 후 수득이 높을 수 있는 용매 허수한 아세트 아노라이드 아 벤젠산의 질량 및 타순율 (%) 구하기 *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가 큰 용매 선택.

도식화 하는 부분에 알아보기 쉽게 그림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상

이찬미 간호학과

Q. 1. 개질 A의 A의 개질?

1% : 20.91 + 77.77g

1. 개질 : 41.8g

< □개질, □개의 개질 >

지외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

Q. 1. 개질, H₂S 개질 + 1.5g H₂S 개질? : 1. 개질 × 10²³ 개

1. 개질 : H₂S 개질 6.02 × 10²³ 개

1.006 × 2 × 77.77 = 77.77g

1. 개질 H₂S 개질 0.5g : ? 개 sample 개?

1. 개질 × 2 개질 개.

Q. H₂O 개질, 0.15g 개질 개?

1.006 × 2 + 16 × 2 = 77.77g

6.02 × 10²³ : 77.77g = 77.77g : 0.15g

△ 개질 개질 : 개질 개질 : 개질 × 100

Q. K₂S : 21.1g × 2, 77.77g = S
77.77 + 77.77 = 155.54g

$\frac{77.77}{155.54} \times 100 = 50.00\%$

Q. H₂O, O의 개질? → 77.77g

1.006 × 2 + 16 = 77.77g

Q. $\frac{77.77}{77.77} \times 100 = 100\%$

Q. K₂CrO₄의 개질?

21.1 × 2, 16 × 4 = 77.77g

K $\frac{77.77}{155.54} = 50.00\%$

Cr $\frac{77.77}{155.54} = 50.00\%$

O $\frac{77.77}{155.54} = 50.00\%$

Q. 1.26×10^{23} M, Ne : g?

CHA University -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1M: 6.022×10^{23} = □ M: 1.26×10^{23}

• 도식화

$10^{-10} \times$

$1.26 \times 6.022 = 0.77 \times 10^{23}$

$0.77 \times 10^{23} \text{ g} = 1 \text{ M} : 70.15 \text{ g}$

$= 40.4 \times 10^{23} \text{ g}$

4.70×10^{25}

Q. 1.05g M, Ag : g?

1M: 107.9g = 1.05g M: 117g

Q. 8.71M, K : g?

1M: 39.10g = 8.71 : 341g

Q. 1M, H₂ 분자, 원자 분자?

$6.022 \times 10^{23} \times 2$

H₂ 분자
H

Q. 1M T.Cla / 12.5g (1/2M?)

13% 분자

$41.81 \times 100 \times 4$

$= 169.7 \text{ g}$

Q. 1M, S₈ 분자, S 원자 분자 → OK

← 분자 분자

• all 분자 분자!

H₂O 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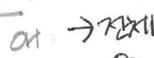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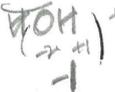
Q. 7.46M, Li₂O 분자?

$Li_2O \text{ g } 6.94 \times 2 + O = 29.98 \text{ g}$

17.99g

1M : 107g

Q. 분자 Al, Al(OH)₃ 의 분자?



mole

개
분
자

• 기타(질문, 과제 등)

Cl₂ 2mol 분자

1mol Cl₂ 분자

Q. 분자 NaClO, 분자 NaCl 분자

1mol, NaCl

Na⁺ Cl⁻ 23g
Na 23g

$49g = 23g : 1 \text{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명: 페이지: 7페이지 날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 (1HR) 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정리 <p>$1\mu = 6.022 \times 10^{23}$</p> <p>$g \rightarrow \boxed{\text{물}} \rightarrow \text{원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 <p>PC \rightarrow 1원자 (12g) 원자</p> <p>$C_{60} + Ca_{40.000} + 2x = (g)$</p> <p># 15.0g Pb, 몇분?</p> <p>$1m: \frac{1}{200.9} = 19\mu : 15g$</p> <p># 22.0g, Hg 몇분?</p> <p>$9\mu = 200.6g : 1m$</p> <p># Au 원자 원자, 16.0g Au 원자</p> <p>$1\mu = 6.022 \times 10^{23} \rightarrow$</p> <p>$= 191g : 2\mu : 16g$</p> <p>$0.9122\mu \times 6.022 \times 10^{23} = 4.29/0 \times 10^{23}$</p> <p># 11.80g, Ti 원자?</p> <p>$1\mu \text{ Ti} : 47.88g = 11.80g : x$</p> <p>(7) $0.1622\mu \times 1.11 \times 10^{23} = 0.922 \times 10^{23}$</p> <p>$9.21 \times 10^{22}$</p> <p># 2.12×10^{18} 원자, 몇분?</p> <p>$1\mu : \frac{1}{6.022 \times 10^{23}} = 1.66 \times 10^{-24}g$</p> <p>$2.12 \times 10^{18} \times 1.66 \times 10^{-24}g = 3.5192 \times 10^{-6}g$</p> <p>$3.52 \times 10^{-6}g = 3.52 \mu 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약 	<p>2.12×10^{18} 원자, 몇분?</p> <p>$6.022 \times 10^{23} : 1\mu = \frac{1}{10^{23}}$</p> <p>$2.12 \times 10^{18} = 6.022 \times 10^{23} \times ?$</p> <p>$3.52 \times 10^{-6}g$</p> <p>$1\mu : 6.941g = 3.52 \times 10^{-6}g : x$</p> <p>$x = 3.46 \times 10^{-6}g$</p>

시험기간 수업 내용 필기, 예습·복습용으로 다용도로 노트를 사용 하였습니다. 학습한 날짜와 학습목표를 기입하면서 학습 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틈틈이 학습 단계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공부한 모든 과목이 노트에 있는 만큼 항상 노트를 지니고 학습, 복습하였습니다.

우수상

한상연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차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명: 박형순 • 페이지: • 날짜: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 음악심리치료의 정의 -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 음악심리치료의 정의 1. 내담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음악 경험을 통해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치료과정 음악 (여흥감) + 리듬 (치료적 영역) ∴ 내담자와의 역동적인 변화 유도 복합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총괄적 체계적인 과정 음악적 경험 내기서 내기서 내담자도 가진 감정 또는 정서결핍과 같은 개인내적 문제와 이로 인한 관계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내적 외현화 힘이 실현되도록 돕는 치료 영역 ★ 음악심리치료의 목적 1.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2. 자기인식, 내적 갈등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 관계문제에 대한 자유유발, 의사소통문제 / 상처 자유, 지지적 자원 확인, 영성적 자원의 확인 3. 인간의 정신적 기능, 심리 정서적 건강에 초점을 두 것 4. 정서적 외상을 치유하여 내면과 현실을 인식하도록 하며, 인지적 자유성과 행동변화를 이끌어 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 	

- 도식화

음악 치료 VS 음악 심리 치료

신체적 기능 향상, 단순한 정서 변화

+

정서적 기능 향상, 존재론적 통합

- 기타(질문, 과제 등)



* 음악 치료의 시연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간단하게나마 알고 있기)

1. 전문 훈련과정 수료 음악치료사에 의해 진행
2. 병원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 대상
3. 목적이 무엇인지 (건강, 정신, 사회·문화 훈련)
4. 음악적 간단 + 다룰 전문적인 간단 전문 → 설정된 목표를 가진 치료 단계 설정
5. 음악적 경험이 중요한 요소 (다양한 장르의 고려)

* 음악심리치료의 구성 요소

1. 내담자 2. 치료사 3. 음악

* 음악심리치료의 역사

역사적인 면 - 1700년 후반부터 특수교육현장에서 음악을 사용한 미주
1800년 초기 청각·시각·자극 장애 아동들의 훈련과 교육과정에서 중요 역할 담당

19C. 정신과 기관 : 음악, 유익미한 치료 프로그램

20C. 2차 세계대전 이후 의료 영역에 활용

* 음악치료의 영역

1. 교육 : 치료적 교육적 도구로서 활용 대상 : 학습 환경에 있는 아동

2. 심리치료 : 정신과 병원, 상담센터 등

음악경험 - 특수적 기법, 곡흥연주를 통해 카타르시스와 자기 통찰

3. 의료 : 신체적 건강 증진, 통증감소, 연명력 증진

4. 사회복귀 :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관, 양호원, 모양원, 보스포스 기관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치료적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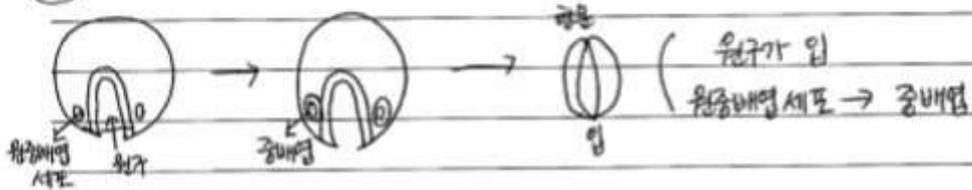
수업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 일반 생물학 I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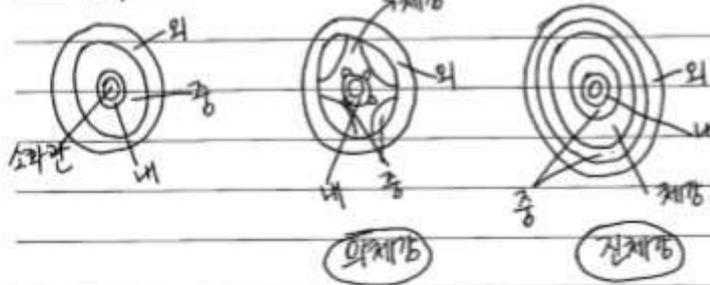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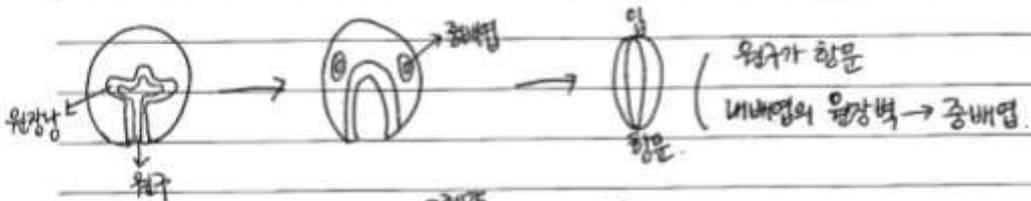
무엇이 동물인가?

- Multicelled heterotrophs univalled diploid body cells
다세포성 동족영양생물 세포벽이없는 이배체 체세포
- Meiosis of specialized germ cells produces haploid gametes,
Which join to produce a zygote in sexual reproduction
전문화된 가원 세포의 감수분열은 배수체 생식세포를 생산한다,
유성생식에 접합자를 생산하기 위해 연결된다.
- 동물세포는 배아에서 성체까지 발달한다.

선구



후구



곤충은 다리가 3쌍

• 환형동물

- 체절 0

- 물. 육지에서 산다

다모류
비모류

- 다모류의 감모가 있다 chitin-reinforced bristles

- 소화계가 완벽하게 생체 사각 (원시 소화계, ^{성숙}완전 소화계, 진체장의 선동물)

지렁이 - 심장 2~5개

ex) 새장
크리넥트, 결심, 내사 X

- 심장이 4개나 생체 사각

• 연체동물 Mollusk

- 작은 체장, 등에 망토모양의 외투막.

- 외투대칭

- 복족류 (달팽이), 이매패류 (가리비, 고둥), 두족류 (오징어, 문어)

- 두족류를 제외하고 개방혈관계

복족류 - 감각척수를 가진다

• 선형동물 Roundworms

- 위계감, 체절 X

- 탈피, 변태

- 큐티클로 덮여있다

- 속이 다 들어가 보인다

ex) 회충 - 속주를 죽이지 X

• 절지동물

① 관절형 다리, 딱딱한 ① 외골격, 장벽으로 탈피, ② 특수화된 분절

- 무척추 동물 중에서 가장 번성

- 외골격, 감각기관 0

- 철각류 - 갈게발 0
- 갑각류 - 랍스타, 새우, 게
- 노래기, 지네
- 곤충
- ④ 호흡구조 ex) 아가미, 기관
- ⑤ 감각기관 ex) 눈
- ⑥ 분화된 배생단계 ex) 유생, 유충, 성충

• 철각류

- 두흉부와 복부로 구성.
- 철각과 첫번째 다리 사이에 다리수염 0
- 거미는 곤충이 아니다!? → 거미류
4쌍의 다리

• 갑각류

- 2쌍의 더듬이
- 해양절지동물. 담수나 육지에도 산다
- ex) 게, 가재, 따개비, 새우, 요각류, 검은 물벼룩
- 십각류 ex) 민물가재, 대하, 새우, 크랩

• 곤충의 특징

- 3쌍의 다리, 1쌍의 안테나.
- 두부, 흉부, 복부
- 유생.
- 곤충 → 변태를 함
- 몇몇 곤충들은 불완전 변태를 겪는다.

• 곤충의 중요성

- 꽃가루 매개자

학질 = 말라리아

- 농작물 피해; 저충해 조파리..

- 새는 곤충을 먹고 산다 새.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인간..

- 동물의 사체. 똥을 처리한다

- 질병의 매개자

• 극피동물

- 예) 불가사리, 성게, 해삼, 성게류

*플랑크톤: 물속에서 스스로 헤엄칠 수 X 것

- 쿠구동물

- 방사머징, 좌우머징 X

불가사리 - 뇌 구조 X, 분산성경계

envision 마음속으로 그려다

unexplored 철저히 검토되지 않은

reservoir 저장소

nearshore 해변의

venom 독

subdue 진압하다

harpoon 작살

withing

conviction 경련

seizure 발작

gut 소화관

해면동물 sponges	자포동물 Cnidarians	편형동물 Flatworms	관형동물 Annelids	연체동물 Mollusks	선형동물 Roundworms	절지동물 Arthropods	극피동물 Echinoderms	척삭동물 Chordates	
X	①	좌우	좌우	좌우	좌우	좌우	① (상대칭)	좌우	대칭
X	②	3	3	3	3	3	3	3	배엽층
X	③	④	○	○	○	○	○	○	소화기관
무체강	무체강	무체강	전체강	전체강	의체강	전체강	전체강	전체강	체강
			선 구 동 물				후 구 동 물		
	방사구 이배자 강 무체강에 의한		방사구: 가포동물, 극피동물 배엽: 지포동물 가포동물로 강강 무체강: 해면동물 의체강: 선형동물			①방사구 ②이배자 강강 ③무체강에 의한			
					①방사구 ②이배자 강강 ③무체강에 의한				

두 과목을 한 노트에 필기를 해서 노트가 남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3장]

Page. 1310
Date.

마케팅 믹스 4P

제품, 가격, 유통, 촉진

광고 / 인적판매 / 판매촉진 / P.R

(발신자의 의도)

복합화하여 (복합된 메시지를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이해하는)

해독

이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한다

하루된 message 에 대하여 수신자가 보내는 ~~반응~~ 반응

반응이 발신자에게 전달되는 피드백

소비자 반응단계

인지단계 → 반응단계 → 행동단계

인지적 반응
 Open your arms wide and jump high toward the sky.

광고에 노출될 되면

- 1) 제품/메세지
- 2) 정보원천인 광고매체
- 3) 광고를 간체



광고에 정보처리능기 충분히 높고

[有
無]

정보처리능력 있으면

없으면 주변적대사이다

주방방

주방방

광고매체

광고방상대사

광고를 전략, 매체전략 → 광고예산활성

매체특성표 분석하여 광고특성 파악할 때

일관성있고 상호보완적!

장려상

노경훈 바이오공학과

지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명: 페이지: 날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 평형이라는 방향으로 변하는 경향이 없을 현상대로 유지됨 → 동적 평형: 역반응과 정반응이 계속 일어나지만 속도가 같음 · 열역학 평형) [극대]의 온도가 주위의 같은 경우 → 그래서 고체 에너지가 양쪽 방향으로 계속 흐르지만 열역학적으로 평형이 됨 · 열역학 평형: → 고체에 의해서 닫힌 내에 갇혀 있는 기체의 압력이 주위와 같음 → 기체 속은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경향을 갖지 않음 에너지 → 일부 두뇌와에게 고온영역에서 → 저온영역으로 흐른다. · 화학 평형) '에 이온 물질이 환원물은 산화물을 더 내거나 반응물로 되돌아가거나 하는 어느 쪽으로도 경향이 없음 ∴ $\Delta S_{\text{전체}} = 0$ → 어느 쪽으로 흐르려도 안함 → 평형 상태에서도 물질의 자발성을 구해야 함 $\Delta S, \Delta S_{\text{주위}}, \Delta S_{\text{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체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계산은 잘함까지 단일화 한 개념 → 반응의 자발성 여부 판단하는 개념 → 고체에서 얻을 수 있는 비평형성이 얼마나 속도를 알려줌 → 열역학이 반응이 자발성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아줌

• 도식화

$$\Delta S_{\text{전체}} = \Delta S + \Delta S_{\text{주위}} = \Delta S - \frac{\Delta H}{T}$$

$$\Delta G = -T\Delta S$$

$$\therefore G = H - TS$$

일정 온도에서 ($\Delta G = \Delta H - T\Delta S$)

(A) 자발적 변화 외부의 영향없이 반응이 일어나는 경향

" + 일정 압력에서 $\frac{\Delta G}{T} = \frac{\Delta H}{T} - \Delta S$

$$\Delta G = -T\Delta S_{\text{전체}}$$

$\Delta G > 0$ 이면 평형 → 계의 평형상태 → 국한이 극대값이 하성할

$\Delta G = 0$ 이면 평형

$$\Delta G = \Delta H - T\Delta S \rightarrow \begin{matrix} \Delta H > 0 & \Delta S > 0 & \Delta H > T\Delta S \text{ 인데 } & \Delta G > 0 & \text{자발적} \\ & & & & \times \\ & & & & \Delta G < 0 & \text{자발적이다} \\ \Delta H < 0 & \Delta S > 0 & & \Delta G < 0 & \text{자발적이다} \end{matrix}$$

(a) 1atm, 10°C (b) 1atm, 0°C → 일정 압력

$H_2O \rightarrow H_2O$ (s) (l) 기 상태 변화 ΔG_m 구하기 또 각 온도에서 ΔG_m 구하면 자발적 여부 결정 가능

용해과정의 엔탈피, 엔트로피 변화량은 이온화 계수

$$\Delta H_{\text{fus}} - T\Delta S_{\text{fus}} \quad (6.01 \times 10^3 - 22 \times 22.83) \text{ J} \cdot \text{mol}^{-1}$$

$$6.01 \times 10^3 - 22 \times 22.83 \text{ J} \cdot \text{mol}^{-1}$$

• 기타(질문, 과제 등)

(a) 따라서 10°C에서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만 0°C에서는 평형상태를 이룬다. $\Delta G_m < 0$ 자발적



* $G = H - TS$ 이다 보

- 일정 압력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G 는 감소
- T 가 증가하면 TS 증가하여, 서로 부터 더 큰 양이 빼진다.

반응의 자유에너지

$$\Delta G = \sum n G_m(\text{생성물}) - \sum n G_m(\text{반응물})$$

$$\Delta G = \{2 \times G_m(\text{NH}_3)\} - \{1 \text{mol} \times G_m(\text{N}_2) + 3 \text{mol} \times G_m(\text{H}_2)\}$$

표준반응 자유에너지

- 광대한 온도에서 표준상태에 있는 생성물과 반응물 간의 G° 의 자유에너지 차이
- $$\Delta G^\circ = \sum n G_m^\circ(\text{생성물}) - \sum n G_m^\circ(\text{반응물})$$

ex) 25°C 에서 $\text{HI}(g)$ 의 표준 물 엔트로피와 표준생성 G° 계산

$$25^\circ \rightarrow \Delta S = \frac{q_r}{T}$$

$$\text{표준 물 생성 엔탈피} \rightarrow \Delta H^\circ = 1 \times \Delta H_f^\circ(\text{HI}, g) = -26.48 \text{ kJ}$$

표준 물 엔트로피)

$$S_m^\circ(\text{HI}, g) = \{S_m^\circ(\text{H}_2, g) + S_m^\circ(\text{I}_2, c)\}$$

$$206.6 - 1 \dots = 83.2 \text{ J-K}^{-1} \rightarrow 0.0832 \text{ kJ-K}^{-1}$$

$$\Delta G^\circ = 705^\circ$$

$$26.48 \text{ kJ} - 298 \text{ K} \times 0.0832 \text{ kJ-K}^{-1}$$

표준생성 값 자유에너지:

내용을 연관시켜 공부하였습니다.